

EBS 수능완성
국어영역



01 ④	02 ④	03 ②	04 ⑤	05 ②
06 ③	07 ①	08 ④	09 ①	10 ②
11 ④	12 ①	13 ④	14 ⑤	15 ①
16 ④	17 ⑤	18 ④	19 ③	20 ①
21 ⑤	22 ⑤	23 ⑤	24 ⑤	25 ⑤
26 ②	27 ③	28 ⑤	29 ④	30 ④
31 ④	32 ③	33 ③	34 ④	35 ③
36 ⑤	37 ④	38 ③	39 ①	40 ④
41 ⑤	42 ①	43 ④	44 ②	45 ④

[01~06] 고전 시가+현대시

(가) 이이, 「매초명월」

해제 이 작품은 눈 속에서 달빛을 받아 흰빛과 맑은 기운을 발하는 매화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 매화의 아름다움을 ‘물빛’, ‘흰 자태’ 등의 비유적 표현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으며, 매화가 지닌 지조와 절개의 속성을 ‘맑고 차가움’이라는 말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화자는 이러한 매화의 속성을 내면화하여 마음을 정화하는 모습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주제 매화의 맑고 깨끗한 모습을 보며 얻은 마음의 정화

구성

- 1~2구: 달빛을 받아 밝게 빛나는 매화의 모습
- 3~4구: 매화에서 느끼는 맑고 찬 기운
- 5~6구: 매화를 바라보며 정화되는 내면

(나) 신대철, 「추운 산」

해제 이 시에서 화자는 추운 산길을 걸으며 눈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눈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은 순수하고 가치 있는 삶을 지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자는 사물에 이름을 붙이거나, 그 이름에 매여 사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산을 두고 다니거나 산을 깎아 무언가를 메운 사람들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 시의 후반부에서 화자는 추위 속으로 들어가자는 말을 하는데, 이는 가치 있는 삶을 지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제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 순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다짐

구성

- 1연: 순결한 세계를 추구하고자 밤의 끝에서 걷고 있는 화자
- 2연: 사물에 이름을 붙이며 세속적인 세계에 속박되어 사는 사람들
- 3연: 세속적인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반문
- 4연: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표상하는 꽃들
- 5연: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한 반성과 가치 있는 삶의 추구
- 6연: 화자가 닮고 싶어 하는 자연물들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나)는 ‘-르까?’라는 의문형 종결 어미의 반복과 ‘사람들’이라는 시어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서는 음성 상징어가 활용되고 있지 않다.
- ② (가)에서는 과거의 기억을 환기한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 ③ (나)에서는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한 표현을 확인할 수 없다.
- ⑤ (나)에서는 화자인 ‘나’가 작품 표면에 등장하지만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하는 것은 아니다. (가)에서는 화자가 작품 표면에 등장하지 않는다.

02 시상 전개 방식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3~4구에서는 매화의 맑은 기운에 감응, 즉 마음이 움직이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므로 화자는 매화에 친밀감을 느낀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5~6구에서 화자는 매화를 보니 마음속 양금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화자가 매화에 거리감을 느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1~2구에서는 매화에 달빛이 비친 모습을 ‘물빛’ 같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매화와 달빛이 서로 어우러져 형성하는 외부 정경이 제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② 1~2구에서는 매화의 모습이 ‘환히 맑기에’와 ‘물빛인 듯하네.’와 같이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묘사되고 있다. 3구의 ‘흰 자태’에서는 시각적 이미지가, 4구의 ‘차가움이 사람의 뺨속에 스며드네.’에서는 촉각적 이미지가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매화의 속성을 부각한다.
- ③ 2구의 ‘달’과 6구의 ‘오늘 밤’을 통해 화자가 매화를 마주하는 시간적 배경이 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5~6구에서는 매화를 통해 마음속 양금을 정화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므로 매화라는 자연물에 반응하는 화자의 내면이 제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맑고 차가움이 사람의 뺨속에 스며드네.’는 매화의 맑고 차가운 기운이 화자의 뺨속에 스며든다고 할 정도로 매화의 기

운을 강하게 느끼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추위로 상징되는 시련을 이겨 내기 위해 내적 의지를 다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눈이 흰 자태를 더해 주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흰색의 색채 이미지를 가진 자연물인 ‘눈’은 매화가 가진 깨끗함의 속성을 부각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③ 화자는 ‘눈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데, 흰색의 색채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눈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은 화자가 순수한 삶을 지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④ 화자가 가고 싶다고 말하는 ‘깊은 산’은 속세와 대조되는 공간으로, 화자가 지향하는 순수하고 고결한 삶을 영위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화자는 ‘사람들은 산을 다 어디에 두고 다닐까?’, ‘산을 깎아 대체 무엇을 매웠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는 속세의 사람들에 대한 비판 의식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화자는 ‘깊은 산’을 자신이 지향하는 삶을 살기 위해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나)의 ‘들어가지, 추위 속으로.’는 ‘분침 하나 약자의 침묵 하나 움직이지 못한 스스로에 대한 반성을 기반으로 가지 있는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다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추위’는 자기 정진을 위해 선택한 치열한 외적 상황으로 볼 수 있다.

04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가)의 화자는 ‘오늘 밤’ 매화를 보니 마음속 앙금이 없다고 했으므로 ‘오늘 밤’은 내면의 정화를 경험하는 시간이라 할 수 있다. (나)의 화자는 순수한 표상인 ‘눈사람’이 되고자 ‘잡념과 머리카락이 희어지도록’ 계속 ‘밤의 끝에서’ 걸어가고 있다. 따라서 ‘밤’은 화자가 내면의 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화자가 매화를 보며 애상감을 표출하고 있지 않고, (나)의 화자가 ‘밤’이라는 시간에 상실감을 표출하고 있지 않다.
- ② (가)의 화자는 매화를 마주하며 마음속 찌꺼기를 씻고 있다. 마음속 찌꺼기는 세속에 대한 욕망이 될 수도 있으므로 ‘오늘 밤’을 세속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나 있는 시간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나)의 화자가 걷고 있는 ‘밤’은 눈사람처럼 순수한 삶을 살기 위해 걸어야 하는 시간이므로 이

를 세속에 대한 욕망이 표출되는 시간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가)의 화자가 일상적 삶의 어려움을 떠올리고 있는 상황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나)의 화자가 일상적 삶의 소중함을 떠올리고 있는 상황도 아니다.
- ④ (가)의 화자는 ‘오늘 밤’에 부정적 현실에 대한 저항의 의지를 다지고 있지 않다. 또한 (나)의 화자가 ‘밤’에 부정적 현실을 수용한다는 설명도 적절하지 않다.

05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사물에 이름을 붙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이름을 붙여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들’, ‘이름으로 말하고 이름으로 듣는 사람들’, ‘~이름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화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들이 제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에는 화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들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을 뿐, 공동체적 삶에 대한 화자의 바람이 형상화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
- ③ 이름에 얽매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화자가 무기력했던 자신의 삶을 떠올린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④ 화자가 이름에 얽매어 있는 사람들을 보며 긍정과 포용의 정신으로 감싸 주려 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⑤ 화자는 이름에 얽매어 있는 사람들을 허상에 집착하는 사람들로 보고 있으므로 이들을 타인과의 소통 실패로 인해 내적으로 갈등하며 후회하는 존재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6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에 제시된 꽃들이 가진 공통의 속성 중에 하나는 흰색 계열의 색채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화자가 바라는 순수한 삶을 표상한다고 볼 수 있다. 화자는 이들을 떠올리며 자신도 순수한 삶을 살고자 하는 뜻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은 화자가 바라는 삶을 표상하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은 화자가 지향하는 깊은 산에 존재하는 자연물들로 세속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존재이므로 ㉡ 역시 화자가 바라는 삶을 표상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과 ㉡은 모두 세속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잇고 사는 존재들로 볼 수 있다.

- ② ㉠과 ㉡은 모두 화자가 지향하는 순수한 삶을 표상하는 존재들이다.
- ④ 화자는 순수한 삶을 살고자 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을 뿐, 화자가 공동체적 삶에 대한 지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과 ㉡이 화자의 바람을 외면하는 존재라고 판단할 근거 역시 작품에서 확인할 수 없다.
- ⑤ 화자는 미래의 삶에 대한 낙관적 기대와 희망의 마음을 표출하고 있지 않으므로 ㉠, ㉡이 낙관적 기대와 희망을 보여 주는 자연물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7~11] 인문

‘알타 회담’

해제 이 글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국제 질서에 대한 주요 결정이 이루어졌던 알타 회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루스벨트는 구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이권을 배제하고 미국 중심의 자유 무역 체제를 확립하고자 했다. 그리고 국제 연합을 통해 평화 체제를 보장하려 했다. 이러한 미국의 전후 구상은 소련의 스탈린이 이에 응함으로써 구체화될 수 있었다. 스탈린은 동유럽에서의 세력권 확보와 독일 무력화를 통해 자국의 안보를 지키고자 했다. 또한 미국의 요구에 화담함으로써 국제 연합에서의 비토권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루스벨트의 구상과 스탈린의 화담은 영국의 이해관계와는 배치되는 것이었다. 영국의 처칠은 구제국주의적 이권을 지켜 내고자 했으나 이는 미국과 소련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알타 회담 이후 영국이 국제 질서의 주변으로 밀려나면서 미소 양대 강국 중심의 전후 국제 질서가 탄생하게 되었다.

주제 알타 회담의 주요 내용과 전후 국제 질서의 변화

구성

- 1문단: 알타 회담에서의 합의 내용
- 2문단: 알타 회담에서 미국이 얻어 낸 성과
- 3문단: 알타 회담에서 소련이 얻어 낸 성과
- 4문단: 알타 회담의 결과로 나타난 영국의 국제적 지위 변화
- 5문단: 알타 회담 이후 국제 질서의 변화

07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이 글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질서에 대한 미국, 영국, 소련 간 협상의 결과를 각국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알타 회담에서 미국은 국제 연합 창설을 통해 세계 경제 질서의 정치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했으며, 구제국주의 질서를 해체하고 자유 무역 체제를 확립하고자 했다. 소련은 동유럽에 완충 지대를 확보하고 독일을 무력화하여 전쟁의 위협을 줄이고자 했다. 영국은 과거의 제국주의 질서와 그로 인한 이권을 지켜 내고자 했다. 이 글은 이러한 각국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국가 간 협상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국제기구 내에서 자국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후 국제 질서에서 자국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 회담에 참여한 결과가 설명되어 있다. 또한 시간 순서대로 타협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 ③ 약소국들의 이권이 배제된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기보다는, 구제국주의 시대의 강대국이었던 영국의 이권이 배제된 결과



QR코드 앱을 사용해 추가 정보를 확인하세요.

고난도 · 신유형 수능연계완성 3/4주 특강

1등급을 향한 고난도 문항집
신유형과 킬러 문항 완벽 대비

를 설명하고 있다.

- ④ 미소 양 진영 간의 이념 갈등을 다루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미소 양 진영이 협력하여 이루어 낸 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 ⑤ 미국, 영국, 소련 각국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국의 이익과 상관없이 바람직한 국제 질서를 확립하려는 세력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08 중심 내용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2문단을 통해, 제2차 세계 대전 이전의 국제 연맹과 달리 실제적 권력을 지닌 국제 연합을 창설하여 약소국들이 특정 국가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게 하는 것이 루스벨트의 입장이었고, 이러한 입장이 회담 결과 관철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제 연합에서 소련과 영국은 모두 상임 이사국으로서 동일하게 비토권을 가지므로, 영국과 소련은 표결 방식에 대등한 권리를 지닌다는 것을 3문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 연합의 표결 방식에서 영국에 대한 소련의 우위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1문단을 통해, 폴란드는 소련이 앞서 인정했던 친소 임시 정부, 즉 루블린 정부를 재조직하는 선에서, 유고슬라비아는 친소계 공산주의 지도자였던 티토가 참여하는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2문단을 통해, 미국이 서유럽을 자유 무역 체제에 안정적으로 포함시키고자 했다는 것과, 스탈린은 동유럽에 대한 미국의 목인을 얻었기 때문에 서유럽에서의 공산주의 운동을 독려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1문단을 통해, 미국, 영국, 소련에 더해 프랑스가 독일 분할 점령에 참여하는 것을 합의했으며, 독일 분할 점령의 목적은 독일을 비무장화, 비군사화 그리고 분단시키는 것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1~2문단을 통해, 루스벨트는 스탈린의 일본전 참전이 동아시아에서의 전쟁 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생각했으며, 알타에서의 비밀 협정을 통해 미국은 소련의 일본전 참전을 확약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4문단을 통해, 소련은 이러한 미국의 요구에 응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신탁 통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09 생략된 내용 추론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보기>를 통해 전쟁 기간 동안 소련의 피해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극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글의 3문단에서 소련의 최우선 목표가 동유럽을 통한 완충 지대의 확보와 독일 무력화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소련이 동유럽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한 이유는 동유럽을 자국과 독일 사이의 완충 지대로 확보하여 전쟁의 재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4문단을 통해, 소련이 영국 중심의 구제국주의 질서에 반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1~2문단을 통해, 소련은 동유럽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서유럽에서의 공산주의 운동을 독려하지 않을 것을 미국에 약속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1문단을 통해, 소련은 알타 회담에 참여한 3개국 중 하나로 전후 국제 질서 개편에 대한 권리를 이미 인정받은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1, 3문단을 통해, 소련은 완충 지대를 확보하기 위해 동유럽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으려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소련이 동유럽 국가들을 침략하려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10 세부 내용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2문단을 통해, 루스벨트가 영국 중심의 구제국주의 질서를 강대국들의 협조 정치 및 신탁 통치 체제로 전환하고자 했다는 것과 루스벨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는 서유럽을 자유 무역 체제에 안정적으로 포함시킨 것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루스벨트는 미국 중심의 자유 무역 체제 확립을 위해 영국 중심의 구제국주의 질서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기를 원했을 뿐, 영국을 자유 무역 체제에서 배제하려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4문단을 통해, 루스벨트는 영국을 아시아 문제에서 전면적으로 배제했으며, 한반도 신탁 통치 참여국에서도 영국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1문단을 통해, 비밀 협정에서 미국은 소련의 일본전 참전을 확약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4문단을 통해, 영국은 아시아 문제에서 전면적으로 배제되었으며, 한반도 신탁 통치 참여국에서도 배제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4문단을 통해, 홍콩 및 수에즈 운하에 대한 영국의 지배권을 유지하고 싶어 했던 처칠에 대해 스탈린이 세계 지배욕이라는 표현으로 비아냥거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4문단에서, 국제 연합의 창설이 홍콩 및 수에즈 운하의 지배권 등 영국 제국의 이권이 종식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받고자 했던 처칠에게 스탈린은 세계 지배욕이라고 비아냥거렸다는 내용을 통해, 스탈린이 홍콩 및 수에즈 운하에서 영국의 이권이 유지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영국이 유지하고자 했던 제국주의 질서가 미국이 원하는 국제 연합과 양립하기 어려웠다는 내용을 통해 루스벨트의 생각도 스탈린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 세부 내용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2문단을 통해, 미국은 동유럽에 대한 소련의 지배권을 인정하여 이제 막 파시즘 지배에서 벗어난 서유럽을 자유 무역 체제에 안정적으로 포함시키고자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이 의도한 신질서는 미국과 소련의 공존하에 미국의 자본 수출 대상지를 확보하는 것이었으며, 미국과 소련 사이의 대립은 미국이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2문단을 통해, 미국은 구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에 대한 영향력이 사라지기를 바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② 2문단을 통해, 미국은 영국 중심의 구제국주의 질서가 강대국들의 협조 정치 및 신탁 통치 체제로 전환되기를 바랐으며, 특히 국제 연합이 전쟁 방지를 위한 실제적 권력을 지닌 국제 기구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 2문단을 통해, 미국은 구식민지 지역에서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의 이권이 사라지고 이곳이 미국 자본의 새로운 투자지가 되기를 희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⑤ 1~2문단을 통해, 미국은 동유럽을 소련의 세력권으로 인정하는 대신 소련의 국제 연합 참여를 통해 국제 연합이 전쟁 방지를 위한 실제적 권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국제 평화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2~15] 고전 소설

신광한, 「하생기우전」

해제 16세기 중반 신광한이 지은 한문 단편 소설집 『기재기이(企齋記異)』에 실려 있는 전기 소설(傳奇小說)로, 김시습의 소설 「만복사저포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생이라는 인물이 죽은 여인의 혼령을 만나 사랑하게 되고, 그녀가 부활한 후 혼인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혼사 장애를 극복한 애정의 성취와 입신출세를 통한 욕망의 실현을 다룬 작품이다. 임진왜란 이전의 전기 소설이 대체로 비극적 결말인 것과는 달리 행복한 결말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작품에는 당쟁이나 과거 시험의 불공정 등 당대 현실의 문제점에 대한 간접적인 풍자도 엿보인다.

주제 혼사 장애의 극복을 통한 애정의 성취와 입신출세

전체 줄거리

하생은 집안이 가난하고 조실부모했지만 재주가 남달라 고을 수령의 추천으로 태학에 입학하게 된다. 조정이 어지러운 탓에 등용되지 못하고 울적하게 지내던 하생은 낙타교에 있는 점쟁이를 찾아가 자신의 운명에 대한 점괘를 얻고, 도성 남문 밖 숲속의 인가에서 죽은 여인을 만나 인연을 맺는다. 하생은 여인의 부탁대로 금척을 도성의 저잣거리의 큰 절로 가져갔다가 도둑으로 오인받지만, 여인의 부모와 만나 자초지종을 설명하여 그녀가 부활하도록 돕는다. 여인의 부모가 신분상의 차이로 혼인을 반대하자, 여인은 식음을 폐하고 부모를 설득하여 마침내 하생과 부부가 된다. 그 후 하생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상서령까지 올랐으며, 두 사람은 서로 공경하며 행복하게 살아간다.

12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네 부친이 큰 옥사를 처결하면서 죄 없는 사람 수십 명의 목숨을 모두 구해 주었으니, 이로써 지난날 못사람들을 해코지했던 죄를 용서받을 만하다. 부친의 지난 죄로 인해 죽은 다섯 아들은 이미 오래되어 돌이킬 수 없으니 너를 돌려보내야겠다.’를 통해 시중이 못사람들을 해치는 잘못을 저질러서 그의 아들들이 옥황상제의 처분으로 죽음을 맞이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중략> 앞의 내용을 보면 여인은 하생에게 금척을 주며 “서방님께선 이 물건을 가지고 가서 서울 저잣거리의 큰 절 앞에 있는 노뚝돌 위에 올려 두십시오. 그러면 분명 이 물건을 알아보는 자가 있을 겁니다. 어떤 곤욕을 당하더라도 제 말을 부디 잊지 말아 주세요.”라고 부탁하고 있다. 또 <중략> 이후 내용에서 하생은 결박당한 채 시중에게 “너는 입으로는 시와 예를 말하면서 뒤로는 남의 무덤을 파헤치는 자란 말이나?”

라는 질책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하생이 여인의 부탁을 들 어주었기 때문에 무덤을 파헤친 도둑으로 몰려 결박을 당한 채 끌려왔다고 짐작할 수 있다.

- ③ 하생이 여인과 인연을 맺은 일을 들려주자 시중은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라며 반응하고 있고, 남녀 종들은 서로를 돌아보며 탄식하고 있다. 이는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시중의 반응에 공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남녀 종들이 하생을 질책하는 시중의 심정에 공감하는 모습으로는 볼 수 없다.
- ④ 시중의 부인은 주렴 안에서 하생의 말을 듣고 울음 섞인 목소 리로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딸의 무덤이 파헤쳐지는 것을 꺼려서 우는 것은 아니다.
- ⑤ 여인은 깨어난 후 부모의 첫 물음에 “별다른 일은 없었어요.” 라며 ‘뭔가 수줍어하는 기색’을 보이고 하생과의 일을 숨기고 있다.

1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여인은 옥황상제의 분부를 듣고 하생에게 “그런데 옥황상제 께서 약속하신 날이 바로 오늘 아침이어요. 이때를 놓치면 저는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답니다. 지금 서방님을 만났으니 이 또한 하늘이 정한 운명이겠지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며 죽 을 때까지 서방님을 받들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시겠어요?”라 고 말하고 있다. 이는 천상계의 권능자인 옥황상제에게 들은 정보를 통해 운명으로 정해진 대상인 하생과 오래오래 행복 하게 살며 그를 받들겠다는 욕구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은 처음 만난 사이이며, 두 사람의 사 랑이 전생부터 이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이 글을 통해 하생은 여인의 부탁대로 금척을 서울 저잣거리 의 큰 절 앞에 있는 노둑돌 위에 올려 두었다가 결박당한 채 시중 앞으로 끌려온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로 볼 때 죽 은 여인이 준 금척은 하생이 여인의 가족을 만나게 하는 기능 을 하며, 현실계와 비현실적 이계를 연결하는 매개물로 볼 수 있다.
- ② “하생의 용모와 재주는 참으로 범상치 않으니 사위로 삼는다 해도 문제 될 건 전혀 없겠소만 집안이 서로 걸맞지 않는구 려. 더구나 이번에 겪은 일이 너무 괴상망측하고 보니 이 일 을 계기로 혼인을 시켰다가는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 지 않을까 싶소.”를 통해 알 수 있다.
- ③ 하생이 여인을 만난 집(숲속의 인가)은 살아 있는 사람인 하

생과 죽은 여인이 인연을 맺기 위해 설정된 현실계 속의 비현 실적 이계에 해당한다.

- ⑤ 이 글의 여인은 이승을 떠난 존재였으나 시중이 무덤을 파 보 았을 때에는 심장에 온기가 있었다. 이는 여인의 부활과 관련 된 내용으로, 임진왜란 이전의 비극적 결말로 끝나는 일반적 인 전기 소설의 내용과는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14 대화의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을 받는 대상은 하생인데, ㉠은 하생이 결박을 당하고 모 욕을 받는 상황에서 미래에 발생할 일을 예상한 것이다. 하생 이 ㉠을 받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 것은 아니므로, 하생의 성찰이 ㉠을 받기 위한 전제는 아 니다. ㉡은 시중이 경제적 보상을 생각한 것인데, 이러한 보 상도 하생의 성찰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과 ㉡을 받는 대상은 모두 하생이다.
- ② ㉠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상하는 것이고, ㉡은 앞으로 하 려는 일을 밝히는 것이므로, 모두 아직 실행이 되지 않은 상 황이다.
- ③ ㉠에는 여인과의 혼인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생의 바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은 시중이 혼인 대신에 경제적 보상을 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 ④ 시중이 잔치를 열어 하생을 위로하며 그의 소원을 물었는데 혼사에 대한 언급이 없자, 하생은 속을 태우며 여인을 원망하 고 있다. 이로 볼 때 ㉡은 받는 대상이 바라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

15 감상의 적절성 평가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A]의 1행에서 ‘옥’은 명문가의 딸인 여인을, ‘티끌이 묻’은 상 황은 한미한 가문 출신인 하생과의 인연을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더럽혀질 건 없나니’는 하생이 명문 가의 딸인 여인에게 자신과의 인연은 별로 허물이 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A]에는 하생이 시중에게 보복을 다짐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으며, 이 글에 서도 찾을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A]의 2행에서 ‘둥지로 돌아간 봉황새’는 다시 살아나 집으로

돌아온 여인을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행에서 ‘봉황새’는 고귀한 가문 출신인 여인의 신분을, ‘난새’는 한미한 가문 출신인 하생의 신분을 비유한 것이다.

- ③ [A] 앞부분의 ‘하생은 답답하고 불쾌한 마음으로 숙소에 돌아와 가슴을 치고 속을 태우며 약속을 저버린 여인을 원망했다.’와 관련하여 ‘다시 돌아볼 리 있겠는가’는 하생이 무덤에서 나와 자기 집으로 돌아온 여인이 가문의 차이를 따져 자신과의 약속을 저버렸다고 원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④ [A]의 마지막 행에서 ‘좋았던 만남’은 하생이 여인과 숲속의 인가에서 인연을 맺은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하생은 여인과의 혼사를 바라고 있지만, 시중은 혼사에 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하생은 여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외려 부끄럽네’는 하생이 여인과 맺은 인연에 대해 후회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6~21] 기술

‘형질 전환을 이용한 유전자 변형 작물(GMO) 육종 기술’

해제 이 글은 식물이 지닌 유전자를 변형하여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는 기술을 형질 전환의 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외래 유용 유전자를 발굴하여 복제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아그로박테리아의 플라스미드를 이용하여 재조합 운반체를 만드는 단계이다. 외래 유용 유전자를 아그로박테리아의 플라스미드에 삽입하여 재조합 운반체를 만든다. 세 번째 단계는 외래 유용 유전자가 결합된 재조합 운반체를 식물의 유전체에 이식하여 외래 유용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단계이다. 네 번째 단계는 외래 유전자를 도입한 식물 세포를 증식하고 완전한 식물체로 재분화시킨 후 형질 전환된 식물을 선발하는 단계이다. 이렇게 얻어진 형질 전환 식물은 안정성 검정을 거쳐 품종화가 이루어진다.

주제 유전자 변형 작물 육성을 위한 형질 전환의 과정

구성

- 1문단: 형질 전환을 이용한 품종 육종 기술
- 2문단: 형질 전환 1단계 - 외래 유전자 발굴 및 복제
- 3문단: 형질 전환 2단계 - 유전자 운반체 재조합
- 4문단: 형질 전환 3단계 - 재조합 운반체 이식
- 5문단: 형질 전환 4단계 - 식물 재분화 및 생물 검정
- 6문단: 형질 전환 식물의 품종화

16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이 글은 외래 유용 유전자를 이용하여 식물의 유전자를 변형하고 새로운 식물 품종을 육성하는 기술을 형질 전환의 과정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형질 전환을 통한 품종 육종 기술에 미친 영향은 제시했으나, 그것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 ② 식물 조직 배양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식물 조직을 배양한 이후 유전자가 변형되어 품종이 개발되는 과정은 설명하고 있지 않다.
- ③ 아그로박테리아의 플라스미드를 이용하여 재조합 운반체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나 유전자 변형 작물의 DNA를 이용하여 특정 미생물의 형질 전환 방법이 개발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 ⑤ 유전자 변형을 통한 육종법은 교잡과 같은 생식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했으나, 둘을 비교하여 유전자 변형 작물이 지닌 장점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17 세부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5문단의 내용에 따르면, 외래 유용 유전자가 이식된 세포만 선택적으로 선발하는 배지는 재분화 배지가 아니라 선발 배지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1, 5문단의 내용에 따르면, 식물 조직 배양을 통해 체세포로부터 완전한 식물체를 재생시킬 수 있다는 것, 전형성이란 세포가 완전한 식물로 재분화될 수 있는 성질로, 전형성을 지닌 식물 세포 하나로부터 완전한 식물체가 재분화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1문단의 내용에 따르면, 형질 전환을 이용한 품종 육종 기술이 가능해진 것은 유전자 조작 기술과 식물 조직 배양 기술이 확립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3문단의 내용에 따르면, 재조합 운반체는 외래 유용 유전자를 식물 세포에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2문단의 내용에 따르면, DNA에서 특정 유전자를 분리하기 위해 제한 효소를 이용하며, 제한 효소는 DNA 중 특정 염기 서열을 인지하고 이를 자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8 세부 내용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4문단의 내용에 따르면, 옥신과 시토키닌은 아그로박테리아가 아니라 숙주 식물에 의해 생산된다. 아그로박테리아는 옥신과 시토키닌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숙주 식물에 이식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3~4문단의 내용에 따르면, 아그로박테리아는 식물체에 근두암증을 일으키는 토양성 세균이다.
- ② 3문단의 내용에 따르면, 식물 세포의 DNA 구조가 선형의 이중 나선 구조로 이루어진 것과 달리 플라스미드의 DNA 구조는 원형의 이중 나선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 ③ 4문단의 내용에 따르면, 아그로박테리아는 숙주 식물에 옥토파인을 만드는 유전자를 이식하는데, 옥토파인은 아그로박테리아의 생존에 필요한 질소를 공급하는 양분으로 이용된다.
- ⑤ 4문단의 내용에 따르면, 아그로박테리아의 플라스미드에 작물이 가지고 있는 이병성 유전자와 전사 방향이 반대인 유전자를 삽입하여 식물 세포에 이식하면 이병성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여 발병을 막을 수 있다.

19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4문단을 통해, 아그로박테리아는 원래 옥신, 시토키닌, 옥토파인 등을 만드는 유전자를 식물에 이식하여 식물의 줄기 혹은 뿌리에 근두암증을 만드는데, 아그로박테리아를 이용한 식물 육종 기술에서는 이 유전자 대신 외래 유용 유전자를 플라스미드에 삽입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신품종 개발 과정에서 옥신을 만드는 유전자는 식물의 유전체에 이식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형질 전환의 첫 번째 단계는 제한 효소를 활용하여 외래 식물체의 DNA에서 필요한 DNA 조각을 절단하는 단계이다.
- ② 형질 전환의 두 번째 단계는 플라스미드의 T-DNA에서 옥신이나 시토키닌 등을 만드는 유전자를 제한 효소를 사용하여 절단한 후 외래 유용 유전자를 DNA 연결 효소를 사용하여 결합시키는 과정이다.
- ④ 형질 전환의 네 번째 단계는 외래 유용 유전자가 이식된 식물 세포를 선발 배지에서 선발한 후 재분화 배지에서 선발된 세포를 재분화시켜 완전한 식물체로 육성하는 단계이다.
- ⑤ 형질 전환이 이루어진 이후 농업적인 성능 및 효용성, 안정성 검정을 거쳐 상품화를 위한 개체가 선발된다. 선발된 개체는 정밀한 안정성 검사와 품종화가 이루어지고 종자가 증식된다.

20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외래 유용 유전자와 함께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도 식물체에 이식 가능하다는 점에서 ㉠도 두 종류 이상의 외래 유전자를 식물체에 이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는 외래 유전자를 텅스텐이나 금 분말 등의 미세한 금속으로 코팅하여 유전자 총으로 식물 세포에 직접 주입하므로, 유전자 운반체를 재조합할 필요가 없다.
- ③ ㉢는 바이러스의 특성상 감염에 의해 성숙한 식물체의 대부분의 세포로 새로운 유전자를 도입할 수 있다. 반면 ㉠은 유전자 도입 이후 재분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성숙한 식물체에 외래 유전자를 바로 도입할 수 없다.
- ④ ㉣는 아그로박테리아의 플라스미드를, ㉤는 바이러스를 유전자 운반체로 이용하여 식물의 형질을 전환시킨다.
- ⑤ ㉠은 재조합 운반체가, ㉡는 금속 코팅된 유전자가 식물 세포에 삽입된 후 세포가 재분화되는 식물 조직 배양 과정을 거쳐 형질이 전환된 식물을 얻을 수 있다. 반면 ㉢는 식물체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유전자 도입 및 발현이 이루어지므로, 식물 조직 배양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

21 생략된 내용 추론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아그로박테리아에 감염됨으로써 외래 유용 유전자는 식물의 유전체에 이식된다. 따라서 아그로박테리아가 생존하지 못하더라도 감염을 통해 목표한 형질로의 전환은 이루어진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선발 배지에 항생제가 충분히 함유되지 않은 경우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를 지니지 않은 세포가 살아남을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목표한 형질로 전환되지 않는다.
- ②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는 발현된 반면 외래 유용 유전자는 발현되지 않은 경우에는 목표한 형질로 전환되지 않는다.
- ③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를 포함하지 않은 세포가 선발 배지에서 사멸하지 않는 경우 외래 유용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목표한 형질로 전환되지 않는다.
- ④ 외래 유용 유전자와 전사 방향이 반대인 유전자를 동시에 이식하면 외래 유용 유전자의 발현이 억제되어 목표한 형질로 전환되지 않는다.

[22~25] 현대 소설

이제하, 「초식」

해제 이 작품은 아버지의 세 번째 국회 의원 출마와 관련한 이야기를 서사화한 소설로, 현대 한국 사회의 정치 행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특히 순수와 공감, 소통에 기초한 '초식의 세계'와, 폭력과 부조리에 기초한 '육식의 세계'가 이항 대립을 이루면서 육식 세계의 폭력성이 잘 형상화된 작품이다.

주제 한국 현대 정치 현실의 부조리와 폭력성에 대한 비판

전체 줄거리

소도시에서 얼음 도매업을 하던 아버지는 세 번째 국회 의원 출마를 한다. 이전에 있었던 두 번의 선거에서도 아버지 '서광삼'은 늘 꼴찌로 낙선을 했지만, 아버지는 세 번째 국회 의원 출마를 멈추지 않는다. 특히 아버지는 출마를 할 때마다 채식을 강행하여 선거 운동을 돕던 모든 집안 식구는 곤욕을 치른다. 세 번째 출마의 유세장에서 아버지는 친구 최 씨를 만나게 되고 최 씨와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들과 관련된 문제로 소란이 일어나 잠시 채식을 중단하고 선거 운동을 멈춘다. 아버지는 선거 운동을 중단한 어느 날, '나'와 함께 사람들이 많이 찾는 도수장 주인을 찾아 열변을 토하지만 도수장 주인으로부터 냉대를 받는다. 이후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도살할 소를 나누며 축연의 자리를 갖는다.

22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우리들이 고통스러웠던 것은 ~ 그는 갓 벌어진 무슨 커다란 꽃봉오리 속에 의젓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듯했던 것이다.'를 통해 볼 때, 가족들은 아버지의 낙선보다도 낙선을 하고도 의연한 아버지의 배짱을 보고 더 고통스러워함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부친은 자신이 속해 있으면서 그렇게나 미워하던 한 세계'라는 내용을 보면, 아버지는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를 '미워'했다. 따라서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와는 불화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② '부친의 망발(출마)은 단지 젊었을 때 글깨나 좀 읽었다는 탓일 따름이고'라는 서술 내용을 보면, 숙당 조문제 선생은 아버지의 출마를 '글깨나 좀 읽은 사람'과 관련시켜 이해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나'가 '설마 당신이 방에 몰래 숨어서 '다니엘'을 읽어 치유했리라고는 상상이 되지를 않는다.'라고 이해한 것으로 보아, '나'는 아버지의 성경 지식을 높게 평가하지 않고 있다.
- ④ 아버지는 '외할머니나 모친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반발 때문에 평생 절이나 교회 문턱을 피했고'에서 알 수 있듯이, 아버지

는 외할머니나 어머니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한 반발심이 있었지만, 외할머니나 모친 사이에 잠재된 종교적 갈등 때문에 괴로워한 것은 아니다. 또한 외할머니와 모친 사이에 잠재된 종교적 갈등도 드러나지 않는다.

23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채식을 중단했던 아버지는 도수장 주인의 지지를 얻기 위해 도수장을 찾아가나 끝내 도수장 주인으로부터 외면을 당한다. 아버지가 느낀 실망감은 '잡초'를 '한 줌 훑어서' 입에 넣고 씹으며 '무연히' 눈앞의 건물을 바라보는 장면에서 잘 드러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아버지는 자신을 '사자 아가리'나 '떨떨 끓는 불 속'에 넣어도 끄떡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이로 보면, 아버지의 유세는 유권자들의 연민을 이끌어 내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결연한 출마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아버지는 선거 결과에 아랑곳하지 않고 의연하고 고고한 모습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로 보면, 아버지가 선거 결과에 대해 절망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③ '나'는 아버지가 채식을 그만두자 친척들이 기뻐 날뛰며 '왕성한 식욕'을 드러내는 것을 두고 '그것은 계면쩍다기보다 더러운 광경이었다.'라고 여기고 있다. 또한 가족들의 육식을 반어적 의미를 함축한 '모친의 낭만' 등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로 보면 친척들과 가족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는 것이라기보다는 비판적 시선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아버지는 자신의 출마와 관련하여 마지막 결단을 위한 행위를 결행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버지의 행위를 현실 도피적 태도와 연결하여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4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아버지는 자신이 미워하던 세계를 개혁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출마를 하고, 채식은 아버지의 그러한 현실 개혁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 과정의 하나와 관련한다. 이로 미루어 보아 '채식'은 세속과 거리를 두고자 하는 탈속 의지와는 관련이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아버지는 국회 의원 출마를 선언하며 '도미구이 접시를 한옆으로 슬그머니 밀어 놓고, 허탈한 얼굴로 시금치 접시로 젓가

락을 가져갔다.’에서 알 수 있듯이 채식 행위를 한다. 이를 두고 ‘누이와 나’가 ‘그것이 신호였다.’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아, 아버지의 ‘채식’은 국회 의원 출마의 신호가 된다.

- ② ‘세월도 세월이러니와 선량에 대한 부친의 이런 엉뚱한 꿈이 라든가 이를테면 그 준비라고 할 수 있는 채식’이라는 내용을 보면, ‘채식’은 아버지의 꿈의 실현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③ ‘누이와 나는, 4년마다 오는 부친의 그 구닥다리 같은 흥역을 또 치르게 되나 부다 하고, 부지중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아버지의 출마 신호인 채식을 가족을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 ④ ‘나’가 “채식’ 같은 기묘한 방법’을 ‘구약 「다니엘서」에서부터 그 연유가 비롯한 성시다.’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나’는 아버지의 채식을 성경에 연원을 둔 기묘한 방법으로 이해하고 있다.

2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아버지가 ‘도수장의 주인’을 찾아가 무언가 말하는 것은 ‘도수장의 주인’을 설득해서 시민들의 지지를 얻고자 함이지 자신의 신념을 접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 이런 점에서 아버지가 지향하는 삶의 방식이 도수장 주인이 지향하는 ‘육식’ 세계의 삶의 논리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아버지는 선거에 출마할 때마다 선거 준비의 하나로 채식을 하는데, 아버지의 이러한 행위는 기존의 육식 세계의 삶의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출과 관련한다. 이로 보면, 아버지의 채식 행위는 기존의 삶의 방식을 바꿔 보려는 의지의 표출이다.
- ② 아버지의 선거 출마와 낙선에 대해 조롱하는 ‘이웃이나 학교 동료들’의 모습에서 부조리한 현실을 바꿔 보려는 아버지의 행위가 조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 ③ 아버지가 최 씨와의 불미스러운 사건 이후 채식을 중단하면서 선거를 도왔던 ‘친척 참모들’이 ‘순대구이거나 날치, 가자미 같은 것’ 들을 왕성하게 즐긴다. 이로 보면, 친척 참모들은 ‘육식’의 세계를 지향하는 삶의 방식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 ④ 아버지가 모종의 결단을 하고 ‘도수장의 주인’을 찾아가 ‘열변’을 토하지만, 끝내 ‘도수장의 주인’이 ‘부친’을 외면하는 것으로 보아, ‘도수장의 주인’은 세계의 변화를 열망하는 개인으로 볼 수 없다.

[26~31] 사회

(가) ‘지출 조정 정책과 지출 전환 정책’

해제 이 글은 거시 경제의 대내 균형과 대외 균형이라는 두 개의 정책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책 수단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재정 정책을 통해 대내 균형을 추구하는 경우 환율 변화를 통해 대외 균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면 환율 정책은 지출 조정 정책인 재정 정책과 상호 독립적인 정책 수단으로서 지출 전환 정책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정 정책과 환율 정책은 거시 경제의 대내외 균형을 모두 추구하기 위한 독립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주제 지출 조정 정책과 지출 전환 정책의 효과

구성

- 1문단: 개방 경제에서의 거시 경제 변수
- 2문단: 대내외 균형의 동시 달성을 위한 거시 경제 정책
- 3문단: 지출 조정 정책과 지출 전환 정책

(나) ‘브레턴우즈 체제’

해제 이 글은 연계된 자유주의를 구현하려 했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브레턴우즈 체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브레턴우즈 체제는 고정 환율제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경상 수지 불균형 해결을 위한 일시적인 환율 조정을 허용함으로써 안정적인 국제 통화 질서를 유지하려 했다. 또한 국가 간 자본 이동을 철저히 통제함으로써 고정 환율 유지와 각국의 국내 경제 정책적 자율성을 동시에 보장하려 했다. 국제 통화 질서의 안정성과 국내 거시 경제의 안정성을 연계하면서 자유로운 무역 질서를 추구하고자 연계된 자유주의를 구현하려 했던 것이다.

주제 브레턴우즈 체제를 통해 구현된 연계된 자유주의

구성

- 1문단: 금 환 본위제이면서 조정 가능한 고정 환율제였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브레턴우즈 체제
- 2문단: 국제 통화 질서의 안정은 보장되지만 국내 통화 정책의 자율성이 존재하지 않았던 제1차 세계 대전 이전의 자유주의 금 본위제
- 3문단: 국내 통화 정책의 자율성과 국제 통화 질서의 안정을 연계한 브레턴우즈 체제

26 세부 내용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가)의 2문단을 통해, 확장적 재정 정책은 국민 소득을 증가시켜 물가가 상승하고, 화폐 수요가 늘어나 국내 이자율 상승 및 외국 자본 유입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확장적 재정 정책과 달리 긴축적 재정 정책을 사용하면, 정부 지출의 감소로 국민 소득이 감소하고 물가

가 하락하여 거래의 규모가 작아지게 되고, 화폐 수요가 감소하여 국내 이자율이 하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1문단을 통해, 개방 경제에서의 대내 균형은 국민 소득을 완전 고용 국민 소득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에 해당하며, 대외 균형은 순수출을 0으로 유지하는 것, 즉 경상 수지 균형을 달성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가)의 2문단을 통해, 재정 정책은 정부 지출 변화를 통해 국민 소득을 변화시킨다는 것과 국내 이자율에 영향을 미쳐 환율을 변화시키고 이에 따라 순수출도 변화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가)의 2~3문단을 통해, 재정 정책은 지출 조정 정책, 환율 정책은 지출 전환 정책으로 서로 독립적인 정책 수단이므로, 대내외 균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독립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가)의 3문단을 통해, 지출 전환 정책에는 관세 정책도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입재에 관세를 부과하면 경제 주체들은 전체 지출 규모가 일정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값이 비싸진 수입재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국내 생산 재화에 대한 지출을 늘릴 것이다. 즉 관세 정책은 지출 전환 정책으로 총 수요의 크기는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국내 상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시킬 수 있다.

27 세부 내용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나)의 1문단을 통해, ㉗에서는 금 1온스 당 35달러로 달러의 금 태환이 보장되었으며, 각국 통화의 가치는 달러화에 고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각국의 통화의 가치가 달러화를 매개로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연동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나)의 2문단을 통해, ㉘는 금 본위제로 금의 일정량 가치를 기준으로 단위 통화의 가치를 재기 때문에, 각국 통화의 가치가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의 1~2문단을 통해, ㉗와 ㉘는 고정 환율제로서 환율이 일정하게 고정되지만, ㉗에서는 일시적·구조적인 경상 수지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환율 조정이 허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㉘에서 경쟁적 평가 절하가 발생했다는 것을 통해 환율 조정이 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나)의 1문단을 통해, ㉘에서 경쟁적 평가 절하가 벌어진 것은 경상 수지 흑자라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각국이 환율

을 인상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㉘에서는 각국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환율을 조정하여 국제 통화 질서가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나)의 2문단을 통해, ㉘는 고정 환율이 유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제 통화 질서의 안정이 보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나)의 2문단을 통해, ㉘에서는 각국의 경상 수지 불균형이 전적으로 국내 가격의 변동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나)의 1문단을 통해, ㉘에서는 평가 절하를 통해 자국 통화의 가치를 변화시킴으로써 경상 수지 불균형이 조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나)의 1문단을 통해, ㉘에서는 자국 통화의 가치를 조정할 수 있었으며, ㉗에서는 환율 조정이 일시적·구조적인 경상 수지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허용되었다는 것, 경상 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환율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구조적인 경상 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㉗와 ㉘ 모두 자국 통화의 가치를 평가 절하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8 생략된 내용 추론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㉗은 재정 정책이 대내 균형 달성이라는 대내 정책 목표와 대외 균형 달성이라는 대외 정책 목표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발생한다. 경기 불황에 경상 수지 적자가 결합된 경우, 확장적 재정 정책은 국민 소득을 증가시켜 대내 균형을 달성하게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순수출을 감소시켜 경상 수지 적자를 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한편 ㉘는 대내 경제 관리를 위한 통화 정책이 경상 수지 변화에 따른 통화량 변동으로 인해 대외 경제 상황에 종속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고정 환율제하에서 국내 통화량은 경상 수지에 따라 변동되므로 통화량 조절을 위한 정책 역시 대외적 경제 상황에 종속되기 때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㉗과 ㉘는 모두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발생한다.
- ② ㉗은 국내 경제 정책인 재정 정책에 의해 환율이 변화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반면 ㉘는 환율이 고정되었기 때문에 국내 통화량 및 국내 가격이 경상 수지 변화에 의해 변동되어 발생한다.
- ③ ㉗은 재정 정책만 실시하는 경우 대내 균형과 대외 균형이 상충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하지만 고정 환율제에서는 국내 가격 변화에 의해 경상 수지 불균형이 해소되며, 이러한 국내

가격 변화로 인해 ㉠이 발생한다.

- ④ ㉠은 재정 정책으로 인한 국민 소득 증가가 이자율과 환율을 변화시켜 순수출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발생한다. 하지만 ㉠은 경상 수지 흑자가 국내 상품과 노동의 가격을 상승시키거나 반대로 경상 수지 적자가 국내 상품과 노동의 가격을 하락시키기 때문에 발생한다.

29 중심 내용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연계된 자유주의였던 브레턴우즈 체제는 국가 간 자본의 이동은 통제했지만 국가 간 상품의 이동에 있어서는 자유 무역을 추구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연계된 자유주의는 각국의 경제 정책에 대한 자율성과 자유로운 국제 무역을 연계하고자 했다.
- ② 각국 경제 정책의 자율성이 국가 간 자본 이동 억제를 통한 국제 통화 질서의 안정성에 연계되어 있었다.
- ③ 브레턴우즈 체제가 국가 간 자본 이동을 철저히 통제한 것은 경상 수지 균형 회복을 위해 환율을 유지한 채 모든 부담을 각국의 국내 경제가 지게 되는 사태를 막으려 한 것이다.
- ⑤ 브레턴우즈 체제는 보호 무역주의를 방지하기 위해 구조적인 경상 수지 불균형을 방지하려 했으며, 이를 위해 일시적·구조적 경상 수지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환율 조정이 허용되었다.

30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보기>를 통해,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 확장적 통화 정책은 환율 상승 압력을 유발하며,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다시 긴축적 통화 정책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고정 환율제하에서 자본의 유출입이 자유로운 경우 통화 정책은 고정 환율 유지를 위해 그 효과가 상쇄된다. 즉 고정 환율제하에서 통화 정책은 고정 환율 유지를 위한 기능만 할 뿐 아무런 자율성을 지닐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환율이 변화하는 경우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더라도 통화 정책의 자율성은 유지된다. 환율이 고정된다면 자유로운 자본 이동과 통화 정책의 자율성 중 하나만 추구할 수 있다.

- ② 국가 간 자본 이동을 전제한 상태에서는 통화 정책의 자율성과 안정적인 환율 운용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
- ③ 개방 경제에서 통화량이 변화하는 경우 국내 이자율이 변화하고, 국내 이자율 변화에 따라 자본의 유출입이 발생해 환율도 변화한다. 이때 통화 정책으로 인한 국내 이자율 변화 효과가 환율 변화로 인해 상쇄되는 것이 아니라, 환율 변화를 막기 위해 통화량을 다시 변화시킴으로써 상쇄된다.
- ⑤ 통화 정책이 유발한 환율 변동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조정됨으로써 국내 이자율도 원래 수준을 회복한다.

31 단어의 의미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자국 통화의 가치를 하락시켜 경상 수지 흑자를 얻기 위해 각국은 환율 인상 경쟁을 벌이게 된다. (가)의 2문단의 '환율이 하락함으로써 국내 화폐의 가치가 평가 절상되어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한다.'를 통해 '환율 하락 → 자국 통화의 가치 상승 → 순수출 감소'의 인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을 '경상 수지 개선을 위한 각국의 환율 인상 경쟁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한 국가가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하여 벌어들인 외화'는 외화로 벌어들인 수출액의 크기이며, '외국의 상품과 서비스를 수입하기 위해 지급한 외화'는 외화로 지출한 수입액의 크기이다. 또한 (가)의 1문단을 통해 순수출은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을 '외화로 표시된 순수출액의 크기를'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다.
- ② 확장적 재정 정책은 국내 이자율을 상승시켜 국내 화폐의 가치를 평가 절상시키므로, 이에 따라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한다. 따라서 ㉠을 '수출을 감소시키면서 수입을 증가시키는'으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다.
- ③ 환율이 상승할 경우 상대적으로 값이 비싸진 수입재에 대한 지출을 줄이는 대신에 국내 생산 재화에 대한 지출을 늘리므로, ㉠을 '국내 생산 재화와 수입재에 대한 지출 비율에'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다.
- ⑤ (나)의 2문단을 통해 고정 환율제의 경우 경상 수지 불균형은 국내 통화량 변동 및 국내 가격 변동으로 해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내 경제 정책의 자율성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을 '각국이 국내 경제에 대한 정책적 자율성을 상실하게'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다.

강풀 원작 · 이만희 각본, 「그대를 사랑합니다」

해제 이 작품은 동명의 웹툰을 각색한 시나리오로 노년층의 삶과 사랑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는 ‘송 씨’, 그를 좋아하는 ‘김만석’, 치매에 걸린 부인 ‘조순이’를 돌보는 ‘장군봉’의 모습을 통해 노년의 사랑과 더불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소외된 노인들의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도록 하는 작품이다.

주제 노년의 아름다운 사랑과 이별

전체 줄거리

서울 어느 산동네에서 우유 배달을 하는 할아버지 김만석은 우연히 만난 할머니 송 씨에게 호감을 느낀다. 한편 주차장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장군봉은 치매에 걸린 아내 조순이를 돌보며 살아간다. 어느 날 장군봉이 문을 잠그는 것을 깜빡하고 출근한 틈을 타 조순이가 집을 나간다. 길을 잃은 조순이를 본 김만석은 그녀의 집을 찾아 주고 이 일로 인해 김만석과 장군봉은 친해진다. 김만석과 송 씨는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장군봉은 처의 상태가 심각해지자 처와 함께 세상을 떠난다. 이를 본 송 씨는 김만석과 죽음으로 이별하는 것이 두려워 고향으로 떠나 버린다. 송 씨를 그리워하던 김만석은 죽음을 맞이하고 송 씨의 고향에는 봄이 찾아온다. 만석을 그리워하던 송 씨는 김만석이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나는 환상을 보고, 송 씨는 김만석의 오토바이를 타고 함께 아름답고 긴 여행을 떠난다.

32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가)에서 송 씨는 만석이 동사무소로 데려가 독거노인 보상 급여를 받게 하려고 하는데도 무안해하며 자리를 피하려 하거나, 주민 등록증을 당장 발급해 달라는 만석을 만류하는 등 자신의 힘든 처지를 벗어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송 씨가 자신의 처지를 적극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와 의지를 보인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서는 송 씨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만석이 송 씨를 데리고 간 동사무소가 배경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동사무소에서 벌어지는 사건 속에서 송 씨에 대한 만석의 애정이 드러난다.
- ② (가)에서는 일정 연령이 되면 누구나 발급을 받도록 되어 있는 주민 등록증조차 없는 송 씨의 상황을 보여 줌으로써 소외된 상태로 살아가는 송 씨의 처지를 짐작하게 한다.
- ④ (나)에서는 ‘군봉(소리): 그렇게 큰아들이 떠났다.’, ‘군봉(소리): 그렇게 아이들이 떠나고 우린 그저 말만으로 자주 찾아

뵈어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 등과 같이 군봉의 ‘소리’를 중간 중간 삽입하여 자식들의 말이나 현재 상황에 대한 군봉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의 처음 장면에서는 가족사진을 촬영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모습을 제시한 후, 자식들이 하나둘씩 집을 떠나는 장면을 연속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다시 군봉 부부만 남겨진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 준다.

33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㉔은 주민 등록증이 없는 송 씨에게 주민 등록증을 바로 만들어 주라고 연아를 재촉하는 만석을 만류하는 말로, 만석이 송 씨의 처지를 들춰낸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송 씨가 만석에게 분개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㉑은 동사무소에 가기를 꺼리는 송 씨에게 하는 말로, 송 씨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만석의 적극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 ② ㉒은 독거노인 보상 급여 신청을 독려하는 직원들의 말로,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깊이 절하는 송 씨에 대한 직원들의 우호적인 관심이 담겨 있다.
- ④ ㉓은 부모님을 모시지 못한다는 첫째 아들의 말에 이어진 며느리의 말로, 이후에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군봉의 대사로 미루어 볼 때 큰며느리로서 시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자유롭지 못한 마음을 드러낸 의례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⑤ ㉔은 부모님을 모시지 못할 형편이라는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는 말로, ‘두 분은 꼭 제가 모시고 살’ 거라고 했던 자신의 말을 지키지 못하게 되자 ‘원래 장남인 형님이 모시는 게 맞’다고 자신을 정당화하는 심리가 담겨 있다.

34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송 씨 대신에 송 씨의 이름을 ‘송이쁜’으로 정해 알려 준 만석이 송 씨의 이름을 재차 확인하는 연아에게 버럭 화를 내는 모습에는 연아에 대한 답답함이 담겨 있다. 그러나 송 씨에 대한 애뜻한 마음을 들켜 화가 난 만석의 마음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보상 급여’의 액수를 듣고 ‘한 달 꼬박 모아도 힘든 돈’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송 씨의 모습을 보았을 때 송 씨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모두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했던 것과 달리 부모의 곁을 떠난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 상황을 통해 점점 소외되는 삶을 살아가는 노인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독거노인 보상 급여를 타기 위해 동사무소에 방문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까 주저하며 부담을 느끼는 송 씨의 모습에서 주변인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돌보며 살아가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⑤ 가족이 모두 모여 가족사진을 찍던 모습과는 달리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았던 군봉의 곁에 자식들이 없는 상황에서 '다시 둘만 남았네.'라는 군봉의 대사를 통해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의 심리를 읽을 수 있다.

[35~40] 언어

35 품사의 특성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불이) 붙다’는 불이 안 붙은 상태에서 붙은 상태로 순간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순간성, +완성성]을 지닌 순간 동사이다. ‘(글을) 읽다’는 이론적으로 동작이 끝없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순간성, -완성성]을 지닌 과정 동사이다. ‘(집을) 짓다’는 집이 완성되어야 ‘짓다’라는 사건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순간성, +완성성]을 지닌 완성 동사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과 ㉡이 적절하지 않다.
- ② ㉢~㉤이 모두 적절하지 않다.
- ④ ㉥과 ㉦이 적절하지 않다.
- ⑤ ㉧과 ㉨이 적절하지 않다.

36 동작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만들다’는 [-순간성, +완성성]을 지닌 완성 동사이다. 따라서 ‘-고 있다’를 완료상으로 해석할 수 없고 진행상으로 해석해야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보다’는 [-순간성, -완성성]을 지닌 과정 동사이다. [-완성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완료상을 나타내는 ‘-아 있다’와 결합할 수 없다.
- ② ‘익다’는 [-순간성, +완성성]을 지닌 완성 동사이다. [+완성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어 있다’가 결합된 경우 완료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 ③ ‘일어나다’는 [+순간성, +완성성]을 지닌 순간 동사이기 때문에 진행상을 나타내는 ‘-고 있다’와 어울리지 않는다. 이 문장은 정확한 시간을 나타내는 ‘8시에’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형’이 일어나는 동작이 천천히 발생하여 시간의 폭이 충분히 넓어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진행상으로 해석할 수 없다.
- ④ ‘붙잡다’는 [+순간성, +완성성]을 지닌 순간 동사이다. 순간 동사는 동작이 일어나는 시간의 폭이 너무 짧기 때문에 순간 동사와 결합된 ‘-고 있다’는 진행상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완료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QR코드 앱을 사용해 추가 정보를 확인하세요.

수능특강 연계 기출

수능특강 지문과 유사도가 높은 기출문제로
2022학년도 수능을 예측한다

37 음운과 음절의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요리[요리]’의 첫째 음절에는 중성인 ‘ㅇ’만 있으므로 ㉠에 해당하고, 둘째 음절은 ‘초성+중성’이므로 ㉡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어둡[어둡]’의 첫째 음절에는 중성인 ‘ㄴ’만 있으므로 ㉠에 해당하고, 둘째 음절은 ‘초성+중성+종성’이므로 ㉢에 해당한다.
- ② ‘맑아[말가]’의 첫째 음절은 ‘초성+중성+종성’이므로 ㉢에 해당하고, 둘째 음절은 ‘초성+중성’이므로 ㉡에 해당한다.
- ③ ‘걸음[거름]’의 첫째 음절은 ‘초성+중성’이므로 ㉡에 해당하고, 둘째 음절은 ‘초성+중성+종성’이므로 ㉢에 해당한다.
- ⑤ ‘깨끗[깨넉]’의 첫째 음절은 ‘초성+중성+종성’이므로 ㉢에 해당하고, 둘째 음절도 ‘초성+중성+종성’이므로 ㉢에 해당한다.

38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에서 ‘만나서’는 동사 어간 ‘만나-’에 연결 어미 ‘-아서’가 결합된 것으로, 어간의 마지막 음절 모음과 어미의 첫음절 모음이 ‘ㅏ’로 동일하여 어간의 ‘ㅏ’가 탈락한 것이다. 따라서 ‘만나서’가 어간 ‘만나-’와 어미 ‘-서’가 결합한 단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에서 ‘서’는 동사 어간 ‘서-’에 연결 어미 ‘-어’가 결합된 것으로, 어간의 모음과 어미가 ‘ㅣ’로 동일하여 어간의 ‘ㅣ’가 탈락한 것이다. 따라서 ‘서’가 어간 ‘서-’와 어미 ‘-어’가 결합한 단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② ㉡에서 ‘갔다’는 동사 어간 ‘가-’에 선어말 어미 ‘-았-’과 종결 어미 ‘-다’가 결합된 것으로, 어간의 모음과 선어말 어미의 모음이 ‘ㅏ’로 동일하여 어간의 ‘ㅏ’가 탈락한 것이다. 따라서 ‘갔다’가 어간 ‘가-’에 어미 ‘-았-’과 ‘-다’가 결합한 단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④ ㉢에서 ‘차’는 동사 어간 ‘차-’에 종결 어미 ‘-아’가 결합된 것으로, 어간의 모음과 어미가 ‘ㅏ’로 동일하여 어간의 ‘ㅏ’가 탈락한 것이다. 따라서 ‘차’가 어간 ‘차-’에 어미 ‘-아’가 결합한 단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⑤ ㉣에서 ‘건넜다’는 동사 어간 ‘건너-’에 선어말 어미 ‘-었-’과 종결 어미 ‘-다’가 결합된 것으로, 어간의 마지막 음절 모음과 선어말 어미의 모음이 ‘ㅣ’로 동일하여 어간의 ‘ㅣ’가 탈락한 것이다. 따라서 ‘건넜다’가 어간 ‘건너-’에 어미 ‘-었-’과 ‘-다’가 결합한 단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39 중세 국어의 이해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중세 국어 ‘다락’은 끝소리가 자음인 명사이므로 서술격 조사로 ‘이라’와 결합하여 ‘다라기라’로 표기해야 한다. 중세 국어 ‘스시’는 끝소리가 ‘이’로 끝나는 명사이므로 서술격 조사로 ‘Ø라’와 결합하여 ‘스시라’로 표기해야 한다. 중세 국어 ‘부터’는 끝소리가 모음 ‘이’나 반모음 ‘ㅣ’가 아닌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이므로 서술격 조사로 ‘ㅣ라’와 결합하여 ‘부테라’로 표기해야 하는데 여기에 선어말 어미 ‘-시-’, ‘-니-’ 등이 더 결합할 경우 ‘부테시니라’로 표기해야 한다.

40 단어의 의미 관계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 ‘동물’ - ‘포유류’, ㉡ ‘장미’ - ‘백장미’, ㉢ ‘계절’ - ‘여름’, ㉣ ‘팽’ - ‘장끼’ 등은 모두 상하 관계이다. “포유류”는 “동물”이다., “백장미”는 “장미”이다., “여름”은 “계절”이다., “장끼”는 “팽”이다. 등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 ‘자동차’ - ‘엔진’의 관계는 “엔진은 ‘자동차’이다.”라고 할 수 없으므로 상하 관계가 아니라 전체 부분 관계이다.

[41~45] 매체

41 매체 언어의 복합 양식성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요리에 얽힌 일화로 볼 수 있는 내용은 블로그에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의 제목 바로 아래에 완성된 요리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고, '만드는 과정 동영상 보기' 바로 위에 동영상이 제시되어 있는데, '만드는 과정 동영상'이라는 동영상 제목으로부터 이 동영상이 조리 과정을 보여 준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 ② (나)를 보면 '무나물'이라는 요리 이름을 블로그 글의 제목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제목의 글자 크기가 본문보다 크고 글자 모양도 본문과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나)를 보면 조리법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맘때 무는 시원하고 ~ 반찬 재료로는 제격이죠.'에서 음식 재료의 장점을 소개하고 있고, '반찬으로 먹어도 좋지만 밥에 비벼 먹으면 맛이 최고!'에서 맛있게 먹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나)의 '다른 무 요리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을 보면, 한 번의 클릭을 통해 다른 요리에 대한 정보가 담긴 글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2 매체 언어의 표현 방식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보기>에 따르면, 접속 조사 '이랑/랑'의 사용, 조사나 어미의 생략은 말하기에서 빈번하게 발견되는 표현 방식의 예이다. '들기름이랑 깨소금'에는 접속 조사 '이랑'이 사용되었고 목적격 조사 '을'이 생략되어 있으므로 이 표현을 '들기름과 깨소금'으로 바꾸면 말하기의 표현에서 더 멀어진다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보기>에 따르면, 말할 때 목소리에 묻어나는 느낌을 블로그에서는 기호나 문장 부호를 활용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는 기호를, '~'는 문장 부호를 각각 활용하여 목소리에 묻어나는 느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보기>를 보면, '해요체'의 사용은 말하기에서 빈번하게 발견되는 표현 방식의 예이며, 블로그의 표현은 말하기의 표현과 닮아 있는 경우가 많아 말을 건네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된다고 했다. '제격이죠'는 '해요체'를 사용한 표현이므로 말을 건네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 ④ <보기>에 따르면, 의성어나 의태어의 사용은 말하기에서 빈

번하게 발견되는 표현 방식의 예이다. '똑딱'과 '술술'은 의태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현이 많아지면 블로그의 표현이 전체적으로 말하기의 표현과 더 많이 비슷해질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 ⑤ <보기>를 보면, 블로그에서는 끊어 발화하기와 비슷한 효과를 얻기 위해 시각적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고 했다. 한 문장을 의도적으로 나누어 두서너 줄로 배치한 것은 문장의 시각적 형태를 달라지게 하므로 그러한 시각적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끊어 발화하기처럼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43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가)는 인쇄 매체이고 (나)는 인터넷 매체이다. (나)를 보면 기사 목록이 시간 순서에 따라 정렬되어 있고 최신 기사일수록 상단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터넷 매체는 갱신이 비교적 쉬우므로 그때그때 시간 순서에 따라 기사를 정렬하여 게시하기가 쉽다. 반면 종이 신문은 인쇄 매체여서 일단 인쇄된 후에는 갱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는 기사별로 게재 시각이 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가)는 종이 신문이어서 기사가 게재된 시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실제로 (가)에 기사 게재 시각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② (가)는 내용을 함축하여 전달하는 표제와 부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나)는 표제만 사용하고 있다.
- ③ (가)와 (나) 모두 시각 자료의 의미가 글의 의미와 결부되어 해석된다.
- ⑤ (가)는 종이 신문이므로 기사의 본문을 다 보여 주고 있다. 오히려 (나)가 기사의 본문을 일부만 노출한 상태에서 독자가 자세히 읽고 싶은 기사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44 관점과 가치를 고려한 매체 자료 수용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보기>에 따르면, 편집자는 자신의 관점에 따라 지면에 들어갈 기사와 지면에서 배제될 기사를 선택하고 지면에서 각 기사가 차지할 위치를 결정하여 이에 따라 기사를 배열한다. (가)에서 ‘폭우’ 대신 ‘물 폭탄’을 사용한 것은 단어의 사용과 표현 차원의 선택이므로, 편집자가 기사의 선택과 배열을 행한 결과라고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보기>에 따르면, 편집자가 지면에 들어갈 기사와 지면에서 배제될 기사를 선택하므로, 편집자가 달라진다면 (가)에는 다른 기사가 들어올 수도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 ③ <보기>에 따르면, 기자는 자신의 관점에 따라 어떤 주제로 기사를 쓸 것인지를 선택한다.
- ④ <보기>에 따르면, 편집자는 자신의 관점에 따라 지면에서 각 기사가 차지할 위치를 결정하여 이에 따라 기사를 배열한다. 따라서 기사의 배열 순서에는 편집자의 관점이 반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보기>에 따르면, 기자는 자신의 관점에 따라 누구와 인터뷰할 것인지를 선택한다.

서 올리다 보니 오탈자나 비문이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포털 사이트의 뉴스 검색 화면에 나타나는 목록이 각 언론사에서 제공한 기사들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나)에서 기사 본문으로 이동했을 때 오탈자가 보인다면, 이를 ‘더 신속하게 읽히려는 욕망’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는 것은 가능하다.

45 매체 자료의 주체적 수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보기>에 따르면, ‘선별 시스템’은 내용과 표현이 충실한 기사만을 내보내는 시스템을 뜻한다. 따라서 (나)에 표제만 있고 본문이 없는 기사가 향후에도 올라오지 않으려면 ‘선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보기>에 따르면, 포털 사이트의 뉴스 검색 화면에서 독자는 목록 중에서 읽고 싶은 기사를 선택하면 된다. 독자의 이러한 행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특징은 (나)도 공통으로 지니고 있다.
- ② <보기>에 따르면, ‘기사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는 화면에 나오는 수많은 기사가 서로 비슷한 내용인 경우이다. (나)는 한 신문사의 기사 목록 화면이고 서로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한 화면에 제시되지도 않았으므로 ‘기사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나)에서는 ‘한 기사를 조금씩 수정하여 별개의 기사처럼 여러 번’ 올린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 ⑤ <보기>에 따르면, 포털 사이트의 뉴스 검색 화면에서 오탈자나 비문이 포함된 기사는 ‘더 신속하게 읽히려는 욕망’과 관련되어 있다. 즉 더 신속하게 읽히려고 급하게 기사를 작성해

01 ⑤	02 ③	03 ③	04 ④	05 ⑤
06 ②	07 ③	08 ②	09 ⑤	10 ④
11 ②	12 ⑤	13 ⑤	14 ④	15 ③
16 ①	17 ①	18 ④	19 ②	20 ①
21 ④	22 ②	23 ④	24 ⑤	25 ①
26 ⑤	27 ④	28 ①	29 ⑤	30 ④
31 ②	32 ⑤	33 ③	34 ④	35 ②
36 ④	37 ⑤	38 ④	39 ④	40 ④
41 ④	42 ⑤	43 ④	44 ④	45 ③

[01~04] 현대 소설

이청준, 「소문의 벽」

해제 이 작품은 작가의 정직한 자기 진술을 억압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작품에서 박준은 전깃불의 공포에 포획된 채 불 안에 시달리는 인물이다. 박준은 가장 진실한 자기 진술로서의 소설 쓰기를 하지만, 소설을 쓰는 과정에서도 전깃불의 감시를 받게 됨을 자각하게 되고, 결국 박준의 불안은 더욱 증폭된다. 전깃불의 공포로 인한 박준의 불안은 진술 불안으로 이어지고 박준은 스스로 정신 병원에 입원한다. 박준은 결국 자기를 세상에서 소외시키는 방식으로 작가로서 자기 진술을 억압하는 세상에 대해 저항한다.

주제 작가의 정직한 자기 진술을 용인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저항
전체 줄거리

이 작품은 잡지사 편집장인 '나'가 미친 사람 행세를 하는 소설가 박준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박준의 진술 공포증의 원인을 추적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나'는 잡지 수락을 거절당한 박준의 소설 두 편과 미발표된 소설 한 편을 읽게 되고, 이를 통해 박준의 의식과 소설관을 이해하게 된다. 박준을 미치게 하는 현실의 억압이 무엇인가를 살피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 '나'는 박준을 이해하게 된다. 결국 '나'는 작가나 편집인에게 현실은 진실한 자기 진술을 억압하는 것으로 작동할 수 있지만, 작가는 정직한 자기 진술을 멈출 수 없다는 인식에 도달한다. 이후 '나'는 정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박준을 찾아가지만, 박준은 이미 정신 병원을 떠난 후였다. 박준은 자기 스스로 광인 행세를 하여 스스로를 현실에서 소외시킨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박준은 작가의 정직한 자기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에 저항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옳답인 이유

⑤ 이 작품은 서술자인 '나'가 작중 인물인 '안 형'의 의식과 작중

상황, 그리고 자기 진술을 억압받은 박준의 의식을 직접 서술하는 1인칭 시점을 채택하여 독자에게 작중 인물들의 의식과 작중 상황을 전달하고 있다.

오답이 옳답인 이유

- ① 대화를 통해 '나'와 '안 형'의 성격은 드러나 있지만,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나'와 '안 형'의 성격을 부각하는 장면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② 서술자인 '나'가 직접 자신이 겪은 사건을 서술하는 시점을 채택하고 있는 작품이지,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으로 사건을 서술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는 않다.
- ③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나 시대상의 변화를 보여 주는 장면은 제시되지 않는다.
- ④ 서술자인 '나'와 편집자인 '안 형'이 박준의 소설을 놓고 갈등하고 있는 특정 상황은 드러나고 있지만, 풍자적 어조를 사용하여 인물이 맞닥뜨린 상황에 대한 인물의 체념적 태도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02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그 사람들에게는 박준의 소설이 또 어떤 다른 방식으로 완성되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안 형은 끝끝내 다른 사람의 해석 방법은 용납하지 않으려 하거든요.”에서 알 수 있듯이 '나'는 박준이 자신의 방식대로 작품을 완성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안 형'의 시각에 비판적이다.

오답이 옳답인 이유

- ① “되지도 않은 작품을 곧잘 칭찬하고 나서는 자들이 또 틀림없이 준동을 시작할 테니 말입니다.”에서 알 수 있듯이, '안 형'은 박준의 소설에 대해 칭찬하는 평론가들을 경계하고 있다.
- ②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전 그 소설이 어떤 식으로 완성되어 있느냐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은 별로 관심을 두어 보지 않았어요. 제겐 소재 해석만이 문제였죠.”에서 알 수 있듯이, '안 형'은 박준의 소설에 대해 소재의 해석 차원에만 주안을 두고 평가하고 있다.
- ④ “작가가 어떤 소재를 만나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은 그 작가가 자기의 시대 양심에 얼마나 투철해 있느냐 하는 문제가 결정지어 주는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죠.”에서 알 수 있듯이, '안 형'은 작품의 성패를 '시대의 양심'을 위한 작가의 투철성 여부와 관련하여 판단하고 있다.
- ⑤ “박준의 소설이 그런 식으로 쓰여졌다고 해서 그 소설이 전혀 우리 시대를 외면해 버렸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에서 알 수 있듯이, ‘나’는 박준의 소설에 대한 ‘안 형’의 견해에 동의하고 있지 않다.

03 작품의 맥락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박준의 전짓불 이야기는 정직한 자기 진술을 간섭받은 작가의 ‘무참한 파국’의 과정을 그린 것이란 점에서 보면, 편집자들의 편견을 이겨 내고 작품을 완성할 수 있는 작가의 창작 방법론의 제시와는 거리가 먼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그는 자기의 내면에 용틀임 치는 진술욕과 그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전짓불 사이에서 심한 갈등과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를 보면, 박준의 마지막 소설은 전짓불 때문에 생긴 불안과 그로 인한 파국적 상황을 형상화한 작품임을 미루어 알 수 있다.
- ② 박준의 소설 쓰기는 ‘정직한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필사적으로 수행된 것임을 미루어 볼 때, 적절한 추론으로 볼 수 있다.
- ④ 박준은 작가란 ‘정체가 보이지 않는 전짓불의 공포를 견디면서도 끝끝내 자기의 진술을 계속해 나갈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운명을 짊어진 사람들’이란 사실을 자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작가의 운명을 억압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박준은 그만한 각오조차도 지켜 내’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던 작가로 서술되어 있다.
- ⑤ ‘그들의 입에서 입으로 건너다니는 정체불명의 소문들이 그것을 지켜 내지 못하게 한 것이다.’라는 서술 내용을 보면, 전짓불 뒤에서 정체 모를 소문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은 박준을 억압한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04 서술자의 태도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이 글에서 ‘나’는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직접 전달하는 1인칭 서술자라는 점에서 ‘안 형’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렇게 되면 안 형의 시대관이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었다.’라는 서술 내용을 보아, ‘나’는 ‘안 형’의 시대관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또는 그것을 똑같이 받아들이고 있는 경우라 해도 ~ 그 소설이 전혀 우리 시대를 외면해 버렸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 않

을까요?”에서 ‘나’는 작가 고유의 창작 방법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있기 때문에 박준의 소설이 보여 주고 있는 창작 방법을 존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나’는 ‘박준’의 정직한 자기 진술을 억압한 사람들로 ‘안 형’과 같은 ‘편집이 심한’ 편집자들을 들고 있다.

- ② ‘박준을 괴롭히고 있는 전짓불은 비단 박준 그 한 사람만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진술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것이 비록 자발적이든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든, 또는 일부러든 무의식중이든 조금씩은 그 전짓불 빛 비슷한 것을 눈앞에 받아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터. 누구나 자기의 전짓불은 가지고 있게 마련이다.’를 보면, ‘나’는 현실 속의 박준과 박준의 마지막 소설을 통해 창작 행위의 의미를 성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그는 그의 소설 속에서 한 작가가 얼마나 가혹하게 자기 진술을 간섭받고 있으며 그 때문에 결국은 얼마나 무참한 파국을 겪게 되는가를 극명하게 증언해 준 것이다.’라는 내용을 보면, ‘나’는 작가의 정직한 자기 진술을 간섭받고 있는 현실을 형상화하고 있는 박준의 마지막 소설을 통해 박준의 개인적 고뇌를 이해하고 있다.
- ⑤ 이 글의 [A] 부분에서 현실 속의 박준과 그의 마지막 소설 속의 작가는 모두 작가의 자기 진술을 억압받고 있다.

‘전자레인지의 작동 원리’

해제 식품을 조리하는 가열 장치로서 전자레인은 음식의 겉을 가열하여 내부까지 열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을 동시에 고루 가열할 수 있다. 이는 전자레인지의 마그네트론에서 나오는 약 2,500MHz의 마이크로파가 극성 물질인 물 분자에 전기적 힘의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 지어 설명할 수 있다. 전자레인지의 마이크로파가 물 분자를 맹렬히 회전시키고, 그 운동 에너지는 물 분자와 또 다른 물 분자, 물 분자와 음식물을 구성하는 입자끼리의 충돌 과정에서 열에너지로 바뀌어 음식물의 겉과 속을 고루 가열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자기파를 이용한 장치인 전자레인지가 작동할 때 근처에 있다 보면 그 전자기파가 인체에 해로운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전자레인지의 앞 유리에는 작은 크기로 구멍이 나 있는 금속 그물이 붙어 있는데, 그 금속 그물이 전자레인지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전자기파를 바깥과 차단하여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주제 가열 장치로서 전자레인지의 특징과 작동 원리

구성

- 1문단: 조리 장치로서 전자레인지가 지닌 장점
- 2문단: 전자기파 중 마이크로파의 특징
- 3문단: 물 분자의 특성과 전자기파의 작용
- 4문단: 마이크로파를 발생시키는 장치인 마그네트론
- 5문단: 일반 가정용 전자레인지에서 물이 끓는 원리
- 6문단: 물질의 표면에서 흡수되는 정도에 따른 마이크로파의 침투 거리
- 7문단: 전자레인지 앞 유리에 부착된 금속 그물의 역할

05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이 글은 물 분자 및 전자기파의 특성, 마이크로파를 발생시키는 장치인 마그네트론의 작동 과정을 통해 전자레인지에서 식품이 조리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식품의 표면에 열을 가하여 열전도에 의해 내부까지 데우는 가열 방식과 비교하여 전자레인지가 지닌 장점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은 있으나, 새로운 가열 방식 모델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② 전자레인지의 특정 부품으로서 마그네트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마그네트론에 적용된 이론의 발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 ③ 전자레인지의 구성 요소인 마그네트론의 구조와 마이크로파

발생 원리에 대해 설명하며 전자레인지로 물을 가열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여러 종류의 가열 방식과 관련된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 ④ 전자레인지를 작동하는 과정에서의 안전상 유의점을 언급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고, 전자레인지가 식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도 찾아볼 수 없다. 단지 전자레인지에는 앞 유리에 촘촘한 구멍이 난 금속 그물이 붙어 있는데, 그것이 금속 벽의 역할을 하여 마그네트론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의 대부분이 다시 내부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인체에 부정적 영향을 상당히 줄여 준다고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06 세부 내용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5문단에서 전자레인지의 마그네트론을 통해 발생하는 마이크로파가 대략 2,500MHz의 진동수를 지닌다는 것은 전기장의 방향이 1초에 대략 25억 번 바뀐다는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3문단에 따르면 물 분자는 마이크로파의 전기장과 평행하게 되도록 회전 운동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전자가 물 분자와의 접촉을 통해 물 분자를 회전시킨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2문단에 따르면 전자기파의 파장과 진동수의 곱이 항상 광속과 같으므로, 둘 중 한 값을 알면 다른 한 값을 구할 수 있다.
- ③ 5문단에 따르면 전자레인지의 마이크로파가 물 분자를 회전시키는데 그 이후 물 분자끼리 충돌하는 과정을 통해 회전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여 온도가 올라가고 이를 통해 물을 끓는 점까지 도달시킨다.
- ④ 3문단에 따르면 물 분자는 수소 원자 두 개가 산소 원자 한 개에 104.5°의 각을 이루며 결합된 형태로, 물 분자 중 수소 원자 쪽은 양의 전하를, 산소 원자 쪽은 음의 전하를 띤다.
- ⑤ 4문단에 따르면 가열된 음식 막대에서 전자가 방출되고 방출된 전자는 양극 원통 튜브를 향해 가게 되는데, 양극 원통 튜브의 위아래에 위치한 자석으로 인해 형성된 자기장은 전자의 경로를 휘도록 만든다고 했다.

07 세부 내용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액체 상태의 물 분자들은 그 방향과 위치가 유동적이어서 마이크로파의 영향을 받고, 회전 운동을 통해 열에너지를 만든다. 그러므로 냉동된 음식을 전자레인지로 조리하기 전에 표

면에 물을 적서 주면 마이크로파가 음식물에 조사되면서 표면의 물 분자에 전기적 힘의 영향을 미치고 내부로 수월하게 침투하므로 음식을 더 빨리 녹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전자레인지의 도파로는 마그네트론에서 발생한 마이크로파를 음식물이 놓이는 곳까지 전달하는 기능을 하므로 마이크로파가 투과되는 유리가 아니라 반사되는 금속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전자레인지 내부 벽면 역시 마이크로파를 가두기 위해 금속으로 제작된다.
- ②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하면 수용성 영양소의 파괴를 최소화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대로 보존된다고 할 수는 없다.
- ④ 마그네트론의 음극 막대에서 방출된 전자가 음극과 양극 사이의 공간에서 회전하는 과정을 통해 마이크로파가 만들어지므로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가 양극에 닿아 마이크로파가 발생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⑤ 전자레인지의 앞 유리에 부착된 금속 그물은 전자기파인 마이크로파를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하므로 안전상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금속 그물의 부착 여부를 소비자의 선택 사항으로 둘 수 없다.

08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2문단에서 마이크로파는 공기나 유리, 종이 등을 그대로 투과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을 사용하면 음식을 포장한 종이에 마이크로파가 흡수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3문단과 5문단을 통해 진동수가 클수록 물 분자의 회전이 많아지면서 물이 빠르게 데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진동수가 더 큰 2,500MHz의 마이크로파를 이용하는 가정용 전자레인지가 ㉠보다 물 분자를 더 빠르게 회전시킨다.
- ③ 2문단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파장과 진동수의 곱은 광속과 같으므로 파장과 진동수는 서로 반비례한다. 따라서 2,500MHz의 마이크로파가 지닌 파장은 915MHz의 마이크로파보다 더 짧다. 그러므로 2,500MHz의 마이크로파가 사용된 가정용 전자레인지의 경우, ㉠보다 금속 그물이 더 촘촘해야 한다.
- ④ ㉠의 파장은 가정용 전자레인지의 파장보다 길고, 진동수는 더 작다. 그것은 그 마이크로파의 에너지가 음식물 표면에 가까운 물 분자에 흡수되는 정도가 더 작다는 것을 뜻한다.
- ⑤ ㉠은 진동수 2,500MHz의 가정용 전자레인지에 비해 진동수가 작다. 따라서 흡수되는 정도가 작고 더 깊이 침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형 식품의 조리에 적합하다.

09 내용의 인과 관계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전자레인지로 고구마를 조리할 경우 고구마를 굽는 방식에 비해 고구마 속 물 분자가 지나치게 빨리 끓는점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베타-아밀레이스가 활성화되는 60℃ 전후의 온도를 충분히 유지하여 주지 못하여 군고구마처럼 달게 조리할 수 없을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마이크로파는 음식물에 흡수 및 투과되는데, 음식물 중 고구마의 경우 평균적으로 3cm 두께까지 들어갈 수 있으므로, 껍질 안까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② 마이크로파의 영향을 받은 고구마의 물 분자가 회전 운동 하면서 고구마는 가열된다. 그 과정에서 물 분자가 끓는점에 도달하는 속도는 외부에서 열을 가하는 방식에 비해 훨씬 빠르기에 효소는 빨리 변성이 되고, 전분이 당분으로 바뀌는 정도는 외부에서 열을 가하는 방식에 비해 덜하다. 즉 효소의 변성이 빠른 시간 내에 유도되므로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여 고구마를 조리할 때 군고구마만큼 달게 조리하는 것은 어렵다.
- ③ 일반 가정용 전자레인지의 마이크로파는 음식물 내부의 물 분자를 1초에 대략 25억 번만큼 회전 운동시키고 그 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되어 외부에서 열을 가하는 방식보다 훨씬 빠른 시간에 물을 끓는점까지 도달시킨다.
- ④ 고구마의 물 분자가 전자레인지 속 마이크로파의 영향을 받아 회전 운동 에너지가 생기고, 그것이 열에너지로 전환되며 물 분자를 비롯하여 음식물이 가열된다. 그 과정에서 수분이 끓는점에 도달하는 속도는 외부에서 열을 가하는 방식에 비해 빠르므로 전분이 당분으로 바뀌는 효소의 작용이 활성화 되는 온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

[10~14] 고전 시가+고전 산문

(가) 정훈, 「탄궁가」

해제 이 작품은 곤궁한 생활을 벗어날 수 없음을 탄식하면서 결국 그것을 수용하는 자세를 노래한 가사이다. 화자의 가난한 생활상이 일상적 소재를 바탕으로 사실적으로 그려져 전달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가난 귀신(궁귀)'과의 대화 상황을 제시한 부분에서는 인식의 변화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수용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가 잘 드러난다. 참신한 발상이 돋보이며, 당대의 사회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다.

주제 가난으로 인한 고통과 이를 수용하려는 자세

구성

- 서사: 곤궁한 생활에 대한 한탄
- 본사 1: 농사를 짓기 어려운 처지
- 본사 2: 종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함.
- 본사 3: 명절이나 제사를 지내기 어려운 처지
- 결사: 가난에 대한 체념과 가난의 수용

(나) 홍성민, 「무염판속설」

해제 1591년 홍성민이 정철의 당인으로 몰려 함경도 부령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작품이다. 평소 상업을 천하게 여겼던 글쓴이는 외딴 유배지에서 굶주림에 시달리자 부득이 아이종을 시켜 소금과 곡식을 매매하는 장사꾼 노릇을 했다. 이로 인해 굶주림은 면했으나 부끄러운 마음은 감출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다시 선비가 되는 것은 바랄 수 없으나, 귀양살이에서 풀려나면 농민으로 살고 싶다고 했다. 이 작품은 농업을 중시하고 상업을 천시하는 전통적인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유배 문학의 새로운 경향을 보여 주며, 변방 유배지의 풍속을 알려 주는 사료로서의 가치도 있다. 제목인 '무염판속설'은 '소금을 바꾸어 곡식을 사다.'라는 의미이다.

주제 유배 생활의 경제적 곤란과 이를 면하기 위해 장사를 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

구성

- 처음: 유배를 와서 소금과 곡식을 매매해 연명함.
- 중간: 선비의 신분으로 장사를 한 자신에 대해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을 느낌.
- 끝: 유배 생활에서 풀려나 농사를 짓기를 소망함.

10 화자의 태도 및 어조, 정서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가)의 화자는 곤궁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탄식하다가 가난을 수용하고 있다. (나)의 글쓴이도 유배지에서 굶주림을 모면하기 위해 아이종을 시켜 소금과 곡식을 매매하며 그로 인해 느끼는 부끄러움을 토로하고 있다. 즉 (가)의 화자와

(나)의 글쓴이는 모두 현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고뇌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화자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나)의 글쓴이도 임금의 배려를 통해 귀양살이에서 풀려나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는 것이지 자신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은 아니다.
- ② (나)의 글쓴이가 정치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가)의 '환곡 장리는 무엇으로 장만하며 / 부역 세금은 어찌하여 차려 낼꼬'는 백성을 보살피지 않는 정치에 대한 우회적 비판으로 볼 수 있다.
- ③ (가)에 안희나 원헌 같은 공자의 제자들이 언급되었지만 이는 화자의 가난을 부각하기 위한 비교 대상일 뿐, 화자가 본받으려는 대상은 아니다.
- ⑤ (나)의 '나는 젊었을 적 성현의 책을 읽으며 오직 도를 추구했다. 옛일이 아니면 감히 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사이다.'를 통해 (나)의 글쓴이가 현재 학문에 힘쓰지 못하는 상황임은 알 수 있다. 하지만 (가)에 학문에 힘쓰지 못하는 상황이나 그로 인해 좌절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1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A]에 반어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세태를 비판한다고 할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안표가 자주 빈들 나같이 비었으며 / 원헌의 가난인들 나같이 극심할까'에서 안희와 원헌의 고사를 인용하여 자신의 가난한 처지를 나타내고 있다.
- ③ '원헌의 가난인들 나같이 극심할까', '축고 주린 식구 이리하여 어이 살리', '부역 세금은 어찌하여 차려 낼꼬' 등에서 의문의 방식으로 자신의 괴로움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동편 이웃 쟁기 얻고 서편 이웃 호미 얻고' 등에서 대구적 표현을 사용하여 운율감을 조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이봐 아이들아 아무쪼록 힘을 써라'에서 아이들(종들)이라는 대상에게 말하는 방식으로 열심히 일해 달라는 화자 자신이 바라는 내용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뒤에 이어지는 '빈천도 내 분수니 서러워해 무엇하리'로 볼

때, 화자는 가난을 자기의 분수, 즉 운명이라고 체념하며 수용하려는 것이지, 가난을 수용하는 데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난 귀신’을 원수로 여기며 이별할 것을 고민하는 것으로 볼 때 화자가 처음에는 가난을 벗어나야 할 고통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 ② ‘가난 귀신’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희로애락을 함께했다는 것은 가난으로 인한 화자의 고통이 어린 시절부터 오래 지속되어 왔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뒤에 이어지는 ‘무정한 세상은 다 나를 버리거든 / 네 혼자 신의 있어 나를 아니 버리거든’을 통해 화자가 가난만이 항상 자신과 함께한다고 생각하며 가난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화자는 자신이 ‘가난 귀신’에게 위협을 하고 잔꾀를 부리는 등 어떤 수단을 써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움을 깨닫고 있다.

13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 (나)에는 아이종을 시켜 곡식을 사서 오랑캐의 소금과 바꾸고, 다시 북관에서 소금을 곡식으로 바꾸는 물물 교환의 방식이 나타나 있다.
- ㉡ (나)의 글쓴이는 백성을 사농상고(士農商賈)로 나누어 선비, 농부, 장사꾼의 순서로 우열을 가리고 있다. 그는 유배지에서 굶주림을 모면하기 위해 장사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 ‘몸이 굴복하면 마음도 굴복하는 법, 이 몸으로 장사를 일삼으니 내가 부끄럽고 내가 우습고 내가 불쌍하고 내가 안타까웠다.’라고 토로하고 있다. 이것은 신분에 대한 고정 관념으로 인해 유배 생활의 경제적 곤란을 모면하기 위한 자신의 선택을 부끄러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 (나)의 ‘성상의 도량이 하늘과 같으니, 만약 개미처럼 미천한 내가 시골의 농부가 되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면, 손에 쟁기를 들고 밭 갈기를 일삼아 위로는 제사를 지내고 다음으로 조세를 바치며 아래로 연명할 수 있을 것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나)의 ‘배에서 소리가 나고 아이종이 성을 내었다.’를 통해 굶주림으로 인해 아이종이 상전인 글쓴이 앞에서 무례한 행동을 한 것은 알 수 있다. 하지만 유배지의 주민이 글쓴이에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굶주림을 모면하는 방법을 알려 준 것으로 볼 때 유배지의 인심이 나쁘다고 단정할 수 없으

며, 유배지의 인심에 아이종이 영향을 받았다는 내용도 나타나지 않는다.

- ㉤ (나)에서 글쓴이가 임금의 안위를 걱정하며 임금을 그리워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14 구절의 의미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은 장사를 통해 굶주림을 모면하고 목숨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다는 의미이다.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화자 자신이 끼니도 제대로 잇지 못하고, 갓 하나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매우 가난한 처지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종자 씨앗을 가지러 집 안에 들어갔더니 울며 씨를 쥐가 반 넘게 먹어 못 쓰게 되었다는 것은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종자가 부족한 상황임을 드러낸 것이다.
- ③ 겨울이 따뜻하다고 해도 가난으로 인해 입을 옷이 부족하여 몸을 가리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푸른 하늘에 오르는 것’은 출세를, ‘구렁이에 떨어지는 것’은 몰락을 비유한 것이다.

‘리디노미네이션의 의미와 영향’

해제 리디노미네이션은 통용되는 화폐의 실질 가치는 유지한 채 액면을 특정 비율로 낮추거나 그와 더불어 새로운 화폐 단위를 지정하는 방법을 통해 실행된다. 국가 차원의 리디노미네이션은 한 국가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통해 화폐의 발행이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하여 화폐에 표시되는 금액의 숫자가 비약적으로 커져서 생기는 여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행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실행에 뒤따르는 사회적 비용 및 부작용을 미리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국가 차원의 리디노미네이션은 아니지만 일부 소매점에서 사적으로 화폐의 액면 단위를 낮추어 가격 표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중 정보 처리 이론에 따르면 실질 가치의 변화 없이 액면의 숫자 단위가 달라지는 것은 소비 활동 과정에서 금액을 지불하는 주체의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화폐 단위의 액면을 절하하여 표기하는 일부 소매점의 가격 표기 방식은 소비자가 가격 정보를 처리할 때 ‘빠른 직관’의 영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

주제 공적·사적 리디노미네이션 실행의 배경과 영향

구성

- 1문단: 리디노미네이션의 개념과 시행 목적
- 2문단: 우리나라에서의 국가적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논의
- 3문단: 국가적 리디노미네이션의 실행에 대한 부정적 측면
- 4문단: 일부 소매점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리디노미네이션 표기 사례
- 5문단: 이중 정보 처리 이론의 두 개념, ‘빠른 직관’과 ‘느린 이성’
- 6문단: 이중 정보 처리 이론의 관점에서 본 인간의 의사 결정의 특성
- 7문단: 리디노미네이션 표기 방식이 의사 결정 과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15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이 글에는 이중 정보 처리 이론을 통해 일상 속 리디노미네이션 표기가 소비자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이 글에는 모의실험을 통해 공인되지 않은 리디노미네이션 표기의 부적절성을 다루는 부분이 없고, 이중 정보 처리 이론을 바탕으로 일부 소매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격표상 리디노미네이션 표기가 일상 속 소비자의 의사 결정에 어떤 영

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 ②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1962년에 화폐 개혁이 있었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고 리디노미네이션의 장단점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 단위로 리디노미네이션이 실행된 사례를 통해 리디노미네이션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 ④ 이 글에서는 리디노미네이션의 개념을 설명하고, 리디노미네이션 표기가 소비자들의 의사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리디노미네이션의 정책적 실행 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책의 실행 전에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⑤ 이 글에서 국가 차원의 리디노미네이션이라는 정책의 도입과 실행 과정에서 여론의 흐름이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16 세부 내용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2문단에서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리디노미네이션 실행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2016년에 발표한 적이 있으나, 현재 국가 차원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을 실행하는 것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제시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1문단의 ‘리디노미네이션은 통용되는 모든 지폐나 동전에 대한 실질 가치는 그대로 둔 채 액면을 특정 비율을 적용하여 낮은 숫자로 변경하거나 그와 더불어 새로운 화폐 단위를 지정하는 방법을 통해 실행된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③ 4문단에서 국가 차원의 리디노미네이션 도입과는 별개로 일부 소매점에서 리디노미네이션 표기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를 소개하고 있다.
- ④ 6문단을 통해, 이중 정보 처리 이론에서는 인간의 정보 처리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에 인간은 빠른 직관과 느린 이성의 협응을 통해 의사 결정을 효율적으로 내리고자 하고, 일상 속 인간은 빠른 직관을 주로 활성화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6문단에 소개된 애플리와 길로비치의 연구 결과를 통해, 사람들은 여행지에서 외화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정확한 환율을 계산하여 구매를 결정하지 않고, 표기된 액면가를 확인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어렵짐작으로 구매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7 글의 의도, 목적 추론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이중 정보 처리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전체적인 인지 과정의 수고를 줄이고 정보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빠른 직관을 주로 활성화하고자 한다. 이때 처리 과정을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빠른 직관의 사고 체계 내에서 인간은 종종 부정확한 판단을 하거나 예측이 어긋나는 상황을 접하게 된다. 이중 정보 처리 이론은 기존 경제학적 인간관이 전제하는 합리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아닌 일상 속에서 종종 오류를 빚고 비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인간의 선택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인간이 빠른 직관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설명하는 이중 정보 처리 이론을 통해 인간이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 ③ 이중 정보 처리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정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빠른 직관을 주로 사용하다 보니 종종 비합리적 결과를 도출하는 존재이다. 인간을 합리적 선택과 비합리적 선택 사이에서 갈등하는 존재라고 설명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④ 인간이 느린 이성에 의해 비중 있는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를 통해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그것이 정확성을 제고하는 여러 방법에 대한 설명은 아니며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하여 설명하려는 내용도 찾을 수 없다.
- ⑤ 이중 정보 처리 이론은 인간이 효율적 의사 결정을 위해 주로 빠른 직관의 관장 아래 비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가 잦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빠른 직관과 대응되는 느린 이성의 작용에 대한 설명이 있기는 하나, 이중 정보 처리 이론에서의 느린 이성이라는 개념을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라고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18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나. (b)와 (d)는 둘 다 리디노미네이션 표기 방식의 메뉴판을 보았을 때의 의사 결정에 대한 것이지만 (d)는 주문 금액의 평균값이 가장 작고 (b)는 평균값이 가장 크다. (b)의 경우 의사 결정에서 시간의 제약이 커서 빠른 직관의 영향을 주로 받을 수밖에 없고 자릿수 역시 적어서 원래의 원화 표기 방식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고 여기게 되어 많은 금액을 지출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다. (c)와 (d)는 모두 시간 여유가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이고, (c)는 원화 표기 방식, (d)는 리디노미네이션 표기 방식의 메

뉴판을 제시받았다는 데에 차이가 있다. (c), (d) 모두 시간 여유가 많아 느린 이성이 개입하기에 용이한 편이나 (c)의 경우에는 자릿수가 많은 만큼 인지적 부담도 크기에 (d)만큼 경제적인 선택을 하지는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d)의 주문 금액 평균값이 전체 중 가장 작은 것은 느린 이성이 작용하기에 용이한 조건에서 인지적 부담도 적었기 때문에 오류가 최소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라. (d)는 리디노미네이션 표기 방식의 메뉴판을 보고 상대적으로 긴 시간의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주문을 한 경우이다. (b)와 (d)를 비교하였을 때에는 (d)의 평균값이 작다는 데서 시간 여유가 많은 경우에 느린 이성이 활성화되는 데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c)와 (d)를 비교하였을 때에는 (d)의 평균값이 작은 것에서 시간 여유가 많으면 자릿수가 적을 때 느린 이성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ㄱ. 시간적 여유가 많으면 빠른 직관의 처리 과정 중에 느린 이성이 개입하기 쉽다는 말은 적절하다. 그러나 (a)와 (b)는 표시된 자릿수가 다르지만 메뉴 선택 시간이 5초로서 같다. 시간적 여유에 따른 주문 금액의 평균값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금액 표기 방식이 같은 (a)와 (c), (b)와 (d)를 서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

19 중심 내용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2문단에서 리디노미네이션 실행의 장점으로서 화폐의 자릿수를 줄이는 것이 자국 통화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는 일이라는 의견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화폐의 자릿수와 대외적 위상이 비례한다는 말은 제시된 내용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3문단을 통해 리디노미네이션이 우리나라에서 실행된다면 상인은 기존의 19,000원짜리 물건을 19원이 아니라 20원으로 올려서 판매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물가 상승 및 불안이 야기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2문단을 통해 리디노미네이션을 실행할 경우 새로운 화폐에 대한 제작 비용과 더불어 화폐 관련 기계나 프로그램 등을 교체하고 수정하는 데 들어갈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2문단을 통해 국가 경제 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져 통용되는 화폐의 자릿수가 늘어난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여 계산과

지급상의 편의를 도모해야 하기 위해 리디노미네이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1~2문단을 통해 리디노미네이션을 실행하여 국제 무역에서 편의를 도모하고 장부 기재 및 계산과 지급상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리디노미네이션 실행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

20 단어의 의미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접두사 ‘re-’를 붙여’의 ‘붙이다’는 ‘추가 되는 것에 달리게 하거나 팔리게 하다.’의 의미로 쓰였으나, ‘정을 붙이면서’의 ‘붙이다’는 ‘어떤 감정이나 감각을 생기게 하다.’의 의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㉞와 ‘지금 상태로 두어서는’의 ‘두다’는 ‘어떤 대상을 일정한 상태로 있게 하다.’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 ③ ㉠와 ‘시집을 세상에 내놓을 예정이다.’의 ‘내놓다’는 ‘작품이나 보고서 및 상품 따위를 발표하거나 선보이다.’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 ④ ㉡와 ‘거짓이 불신을 낳아’의 ‘낳다’는 ‘어떤 결과를 이루거나 가져오다.’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 ⑤ ㉢와 ‘높은 평가를 내렸다.’의 ‘내리다’는 ‘판단, 결정을 하거나 결말을 짓다.’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21~24] 고전 소설

작자 미상, 「이춘풍전」

해제 이 작품은 주색잡기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는 인물인 ‘춘풍’을 통해 조선 후기의 부정적 세태를 비판한 소설이다. 춘풍은 가정을 들보지 않고 방탕한 생활을 하며, 기생 추월의 유혹에 넘어가 궁지에 몰리지만 남장을 하고 나타난 아내에 의해 위기를 모면한다. 서울로 돌아온 춘풍은 아내에게 거드름을 피우지만 다시 비장의 복장을 하고 온 아내로 인해 개과천선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통해 조선 후기 비윤리적이면서도 가부장적 가치관에만 빠져 있던 남성을 풍자함과 동시에 비판의 대상이었던 남성이 슬기로운 아내를 통해 개과천선하며 새로운 인물로 거듭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주제 허위적인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과 진취적인 여성을 통한 남성의 개과천선

전체 줄거리

서울에 살던 이춘풍은 가산을 탕진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으나 아내가 열심히 품팔이를 하여 돈을 모은 덕분에 세간이 넉넉해지게 된다. 그러자 춘풍은 호조 돈 이천냥을 빚내고 가산을 털어 평양으로 장사를 떠난다. 평양에서 춘풍은 기생 추월에게 빠져 돈을 모두 빼앗기고, 이 소식을 들은 춘풍의 아내는 새로 부임하는 감사를 따라 비장으로 변장하여 평양으로 간다. 그녀는 추월과 춘풍에게 벌을 준 후, 춘풍이 돈을 되찾게 도와주고 서울로 돌아간다. 서울로 돌아온 춘풍은 아내에게 돈을 벌었다고 허세를 부리지만 다시 아내가 비장 복장을 하고 나타나자 전전긍긍하며 망신을 당한다. 비장이 의복을 벗자 그제야 비장이 자신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후 춘풍은 개과천선한다.

21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춘풍이 가져온 돈’은 춘풍이 호조에서 벌린 돈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추월이 사건의 전모를 깨닫지는 않으며, 그 돈으로 인해 스스로 반성하는 것도 아니다. 목숨을 잃을 것 같은 상황에서 추월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한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공문’은 호조에서 춘풍을 잡아 죽이라는 내용을 담아 내린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비장의 역할을 하는 춘풍의 아내가 춘풍을 잡아들이게 된다.
- ② ‘의복’은 회계 비장의 복장으로, 춘풍의 아내가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기 위해 입고 있던 것이다.
- ③ ‘현 사발’은 춘풍이 추월에게 돈을 탕진한 후 추월의 집에서 사환으로 일하면서 받은 수모를 드러내는 소재 중 하나이다.



QR코드 앱을 사용해 추가 정보를 확인하세요.

FINAL 실전모의고사

가장 많은 수험생이 선택한 최다 분량, 최다 문항
EBS 대표 FULL 모의고사 시리즈

- ⑤ 춘풍의 아내가 비장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잘못을 범한 인물인 춘풍과 추월을 ‘형틀’에 묶어 매를 때려 응징한 것을 볼 때, ‘형틀’이 춘풍과 추월을 응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2 대화의 특징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비장은 춘풍이 평양에 있는 추월의 집에서 뺨박받던 때를 언급하며, 평양에서 서울로 돌아와 거드름을 피우던 춘풍에게 음식을 해 오도록 하는 등 상대방을 압박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비장이 내세우는 명분이 나타나지 않고, 춘풍을 위로하고 있지도 않다.
- ③ 비장이 자신의 경험을 언급한 부분은 없으며,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조언하는 부분도 나타나지 않는다.
- ④ 박 승지라는 인물을 언급하지만 그 핑계를 대고 있지 않으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지도 않다.
- ⑤ 비장이 과거의 상황은 언급하지만 앞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으며, 상대방이 하려는 일을 만류하지도 않는다.

23 사건의 전개 양상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에서는 춘풍의 아내가 ‘비장’으로 변장하여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에서는 ‘비장’의 의복을 벗고 자신이 춘풍의 아내임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은 춘풍이 추월과 놀며 돈을 탕진한 공간이며, 춘풍의 아내가 회계 비장으로 와서 춘풍이 추월에게 탕진한 돈을 되찾는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에서 탕진한 돈을 되찾는 것이라 볼 수 없다.
- ② ㉠에서 춘풍의 아내는 평양으로 떠났던 춘풍을 재회하여 추월에게 잃은 돈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한 후에 ㉡으로 돌아와 춘풍에게 자신이 비장이었음을 밝히고 화목하게 살아가게 된다. 따라서 ㉡은 춘풍의 아내와 춘풍이 이별하는 공간이라 볼 수 없다.
- ③ ㉠은 춘풍이 추월을 만나서 돈을 탕진하는 공간이므로, 춘풍과 추월의 관계가 끊어진 공간이 아니라 연결된 공간이다.
- ⑤ ㉠은 춘풍이 비장에게 굴욕을 당하는 공간이지만, ㉡에서 춘풍이 비장에게 설욕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다.

24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비장’이라는 공직자의 권위를 바탕으로 춘풍의 아내가 추월에게 육체적 체벌을 가하는 것은 자신의 남편을 곤경에 빠뜨리고 돈을 뺏어 간 존재를 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추월을 풀어 준 것은 돈을 돌려받기 위한 것이지, 추월이 춘풍을 성장으로 이끄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하여 춘풍의 아내가 추월을 배려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호조에서 빌린 돈을 추월과 노느라 탕진한 춘풍은 <보기>의 책임감이 부족한, 방탕한 남성의 전형으로 볼 수 있다.
- ② <보기>에서 방탕한 남성은 자신을 시련에 빠뜨린 후 인정 없이 하대하는 인물을 만나 현실을 인식한다고 했다. 추월은 춘풍의 돈을 탕진하게 한 후 시련을 준 인물로, 춘풍에게 각박한 현실을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춘풍의 아내가 비장으로 변장하여 춘풍의 문제를 직접 해결한다는 점에서 춘풍의 아내는 <보기>에 나온 적극적인 여성상을 보여 준 인물로 볼 수 있다.
- ④ 춘풍은 비장이 자신의 아내임을 알게 된 후, 이전과는 달리 화목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보기>의 집안의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부족한, 방탕한 남성에서 책임감 있는 가장으로 변화한 것임을 미루어 알 수 있다.



QR코드 앱을 사용해 추가 정보를 확인하세요.

만점마무리 봉투모의고사

선배들이 증명한 봉투모의고사의 실전 훈련 효과
수능과 동일한 구성과 난도, OMR마킹 연습까지

(가) '선 원근법의 원리와 한계'

해제 알베르티는 소실점과 소실점을 향해 수렴되는 선들을 통해 평면에 공간적 깊이가 나타나도록 표현하는 방식인 선 원근법을 정립했다. 선 원근법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완벽하게 재현해 내는 원리로서 이해되었으나, 3차원의 현실을 2차원의 평면에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선 원근법을 통한 재현은 실제의 시각 경험과는 상응하지 않는 면이 있다.

주제 알베르티가 정립한 선 원근법의 원리

구성

- 1문단: 회화의 공간 재현 원리로서의 선 원근법
- 2문단: 고대 그리스의 광학 이론과 기하학적 가정에 기반을 두고 정립된 선 원근법
- 3문단: 알베르티가 정립한 선 원근법의 내용
- 4문단: 선 원근법의 한계

(나) '브루넬레스코의 선 원근법 원리 실연'

해제 브루넬레스코는 선 원근법에 따라 성 요한 세례당과 주변 풍경을 그린 후 그림 복판에 작은 구멍을 뚫고 거울을 이용하여 바라보는 실험을 통해 자신의 그림과 실제 풍경이 서로 윤곽선, 형태, 비례 관계가 빈틈없이 일치함을 당대인들에게 보여 주고자 했다. 브루넬레스코는 자신이 지정한 위치와 높이에서 사람들이 한쪽 눈으로 거울에 비친 그림을 보도록 했다. 사람들은 선 원근법으로 그려진 그림과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실제로 겹쳐지는 것을 봄으로써 선 원근법의 원리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주제 브루넬레스코의 선 원근법 원리 실연 방법과 결과

구성

- 1문단: 선 원근법 원리 실연을 위한 브루넬레스코의 계획
- 2문단: 선 원근법 원리 실연을 위한 관찰자의 관찰 지점
- 3문단: 선 원근법 원리 실연의 방법
- 4문단: 브루넬레스코의 선 원근법 원리 실연의 결과와 마네티의 기록

25 중심 내용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가)의 2문단에서 알베르티는 고대 그리스의 광학 이론과 기하학적 가정을 근거로 선 원근법을 이론적으로 정립한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나)의 브루넬레스코는 선 원근법에 따라 그려진 그림이 실제와 겹쳐진다는 것을 실연을 통해 보여 준 인물이므로 선 원근법의 원리를 실제 현실에 적용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가)의 알베르티는 고대 그리스의 광학 이론과 기하학적 가정

을 토대로 선 원근법을 정립했기에 선 원근법을 독자적으로 주장한 것은 아니다. (나)의 브루넬레스코는 선 원근법의 원리를 실연하여 당대인들이 시각적 환영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왔는데 이는 선 원근법의 적절성을 여러 사람과 따지기 위험이 아니라 그 원리와 내용을 실제로 여러 사람에게 확인 시키기 위함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 ③ (가)의 알베르티는 예로부터 이어져 오던 이론과 추상적인 가정을 통해 선 원근법을 정립한 것이므로, 선 원근법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은 아니다.
- ④ (가)의 알베르티는 선 원근법을 이론적으로 정립했지만 그가 당대인들에게 선 원근법을 가르쳤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나)의 브루넬레스코가 선 원근법의 실연 조건을 알베르티에게 배웠다는 것은 (가)와 (나)에서 확인할 수 없다.
- ⑤ (가)의 알베르티는 선 원근법을 의심 없이 수용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이론에 근거하여 선 원근법의 원리를 정립했다. (나)의 브루넬레스코는 선 원근법에 따라 그린 그림을 이용하여 선 원근법의 원리를 당대인들에게 실연해 보인 인물이다. 그가 선 원근법에 반영된 이론을 맹신하는 것을 경계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26 세부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가)의 2문단에서 알베르티가 시각 광선을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은 고대 그리스의 광학 이론과 기하학적 가정을 근거로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알베르티의 시각 광선 분류가 르네상스 시기의 과학적 발견을 토대로 한 가정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브루넬레스코가 성 요한 세례당을 그리는 작업을 수행한 자리인 기초 시각 시점에서의 시선 방향과 눈높이를 관찰자가 똑같이 유지할 수 있을 때 그림의 모습과 실물이 정확하게 비례하여 겹쳐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
- ② 알베르티는 시각 피라미드를 수직으로 관통하는 한 지점에 유리창과 같은 투과막을 세워 놓고 한쪽 눈의 기초 시각 시점을 통해 그 투과막에 들어온 것을 평면에 그대로 그리면 실제 세계를 완벽히 그림으로 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③ 실연에 참여한 사람들은 브루넬레스코의 지시에 따라 거울에 비친 그림을 보았고, 그것이 실물과 절묘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브루넬레스코가 실연을 위해 정방형의 그림을 그릴 때 거울에 비친 그림을 사람들에게 보여 줄 것임을 고려하여 자신이 본 그대로 그리지 않고 좌우를 반전

시켜 그렸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 ④ 브루넬레스코의 선 원근법 원리 실연과 알베르티에 의해 정립된 선 원근법은 서로 동일한 원리를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 브루넬레스코의 실연에서 참여자가 선 원근법의 효과를 제대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기초 지각 시점으로서 자신의 한쪽 눈과 그림의 중심에 뚫린 구멍, 거울의 중심, 소실점을 잇는 가상의 직선이 거울면에 직각으로 닿도록 높이를 맞추어야 한다.

27 세부 내용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가)의 4문단에 언급된 다빈치가 선 원근법의 결함을 깨닫고 멀리 있는 사물을 보다 흐릿하게 그리는 공기 원근법을 개발했다는 내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선 원근법을 이론적으로 정립한 알베르티에 대해 이야기할 뿐, 선 원근법을 최초로 회화에 적용한 인물이 누군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 ② (가)에서 선 원근법보다 입체를 더 현실감 있게 보여 주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③ 선 원근법이 후대의 미술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 ⑤ 4문단에서 선 원근법에 입각하여 그려진 그림은 일상적 시각 경험과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으나, 두 가지의 유사도를 비교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28 중심 내용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선 원근법은 소실점과 소실점을 향해 뻗어 나가는 직선들로 평면에 공간적 깊이가 드러나도록 표현하는 방식이다. 선 원근법에서는 회화면을 구성할 때 기초 지각 시점, 중심점, 소실점이 하나의 중심 광선상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렇게 선 원근법의 원리에 충실히 따랐다면 화가가 회화에 나타내고자 하는 환영의 공간은 소실점을 꼭짓점으로 하고 밑면이 회화면인 작은 피라미드가 된다. 그리고 화가가 회화에 나타내고자 하는 공간의 깊이는 회화면의 중심점부터 소실점까지의 거리가 된다.

29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보기>의 시작점은 선 원근법의 기초 지각 시점과 거의 같은 의미이므로 <보기>와 선 원근법은 모두 한쪽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초 지각 시점의 높이에 따라 소실점의 높이가 바뀐다고 할 수는 있지만, 선 원근법으로 구성된 회화에서 기초 지각 시점의 높이가 변화함에 따라 화면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보기>에서 시작점과 세 공 사이에 있는 선분(AB)은 선 원근법에서 시각 피라미드를 관통하는 한 지점에 세워 놓은 투과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회화면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보기>에 나타난 선분의 길이를 비교하면 $AB=EF > CD$ 가 된다고 했다. 선 원근법에 따라 <보기>의 세 공을 그린 경우에는 직선상 선분의 길이대로, 기초 지각 시점에서 멀리 있는 두 공의 지름이 중앙의 가까운 공의 지름보다 크게 그려질 것이다.
- ③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보인다는 직관적 지식을 고려하면, 시작점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중앙의 공을 가장 큰 것으로 파악하게 될 것이다.
- ④ 선 원근법에서는 기초 지각 시점으로부터 사물까지의 거리를 고려하므로 거리가 멀수록 길이는 짧게 그려진다. 하지만 <보기>를 통해 사물을 지각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각도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30 단어의 의미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의 기본형인 ‘맞다’는 ‘어떤 행동, 의견, 상황 따위가 다른 것과 서로 어긋나지 아니하고 같거나 어울리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나의 의견이 그의 생각과 맞을 것이라고 확신한다.’의 ‘맞다’가 문맥상 ㉠과 그 의미가 가장 유사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문제에 대한 답이 틀리지 아니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② ‘(앞 사람의 말에 동의하는 데 쓰여) ‘그렇다’ 또는 ‘옳다’의 뜻을 나타내는 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③ ‘어떤 대상이 누구의 소유임이 틀림이 없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⑤ ‘크기, 규격 따위가 다른 것의 크기, 규격 따위와 어울리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31~34] 현대 수필+현대시

(가) 김기림, 「길」

해제 이 작품은 길을 바라보며 길 위에서 잃어버린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그리워하며 슬픔 속에서 보냈던 지난날들에 대한 회상을 담고 있다. 글쓴이는 버드나무 아래에서 여인 어머니와 떠난 첫사랑을 떠올리며 슬픔 속에서 보낸 지난날들에 대한 그리움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기품 있는 서정의 경지를 보여 주고 있어 그간 산문시로 분류되기도 했으나, 작품이 최초로 실린 『조광』에는 수필로 발표되었고, 최근의 여러 연구에서도 수필로 분류하고 있다.

주제 길 위에 어린 추억과 떠나 버린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

구성

- 1문단: 어머니를 여인 언덕길
- 2문단: 조약돌처럼 잃어버린 첫사랑
- 3문단: 슬픔을 달래려 찾은 강가
- 4문단: 상실의 슬픔 속에서 보낸 지난날
- 5문단: 지난 시절을 떠올리며 그리움에 젖는 오늘

(나) 문정희, 「울포의 기억」

해제 이 작품은 울포의 바닷가에서 화자가 빨발을 본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형상화하고 있다. 어머니와 함께 바다에 간 화자는 빨발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의 역동적인 모습, 노동 현장에서 힘겹게 일하는 사람들의 성실한 모습을 떠올리며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주제 빨발을 본 경험을 통해 느끼는 삶의 의미

구성

- 1~6행: 빨발에서 보았던 것들을 떠올림.
- 7~10행: 빨발에 사는 생명체들과 빨발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색
- 11~17행: 빨발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경건함을 느낌.

3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나)에서는 1~2행과 11~12행의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 ~ 위해서가 아니었다’에서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의미를 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는 반어적 표현이 활용되고 있지 않음 뿐만 아니라 (가)가 현실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설명도 적절하지 않다.
 ③ (가)와 (나)는 모두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시선을 이동하면서 시상이 전개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면서 대상을 포착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감정 이입의 대상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가)는 세월의 흐름에 따른 글쓴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을 뿐 풍경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나)는 ‘빨발’이라는 특정한 공간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의 이동에 따른 풍경 변화를 묘사하고 있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32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버드나무 밑’에서 글쓴이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기억의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애상적 정조로 표출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버드나무 밑’이 미래의 삶에 대한 희망을 바탕으로 대상의 부재로 인한 슬픔을 극복하려는 공간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언덕길’은 어머니의 죽음이나 첫사랑과 관련한 기억이 있는 공간이고, ‘강가’는 상실의 슬픔 때문에 방황하며 찾았던 공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모두 과거의 추억이 서려 있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② ‘언덕길’은 어머니의 죽음이나 첫사랑과의 이별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상실을 겪었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 상실의 슬픔으로 인해 방황하는 글쓴이는 ‘강가’를 찾곤 했음을 알 수 있다.
 ③ 글쓴이는 ‘그 강가에는 봄이,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 나의 나이와 함께 여러 번 다녀갔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세월이 흘러갔음을 의미하므로 ‘그 강가’는 세월이 흘러갔음을 나타내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④ 글쓴이는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 계집애, 이야기가 돌아올 것만 같아 ‘버드나무 밑’에서 멍하니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버드나무 밑’은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33 시상 전개 방식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화자는 어머니가 보여 준 바닷가의 모습을 통해 삶에 대해 사색과 성찰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자신의 삶을 ‘무위한 해조음’에 빚대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화자는 어머니가 자신을 바다로 데려간 것을 계기로 검은 빨

밭을 관찰하게 된다. 따라서 어머니가 화자를 바다로 데려간 것은 ‘빨밭’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과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관찰의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 ② ‘빨밭’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를 ‘빨밭에 위험을 무릅쓰고 퍼덕 거리는 것들’이라 표현한 것은 빨밭이 생명체들이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살아가는, 생명력 넘치는 공간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 ④ 화자는 빨밭에서 먹이를 건지는 사람들을 ‘성자처럼’이라 표현하고 있다. 이는 그들의 노동을 숭고하게 여기는 마음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빨밭에서 관찰한 대상들을 통해 화자는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성찰은 먹이를 건지는 손을 ‘슬프고 경건’하다고 말하는 깨달음으로 이어지고 있다.

3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나)에서 푸른색의 바다는 소금기가 많은 공간이다. 생물체가 꿈틀거리는 검은 빨밭과 이 공간을 비교할 때, 화자는 ‘푸른 물’을 아름답지만 화자에게 큰 감흥을 주지 않는 공간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푸른색의 바다를 ‘무위한 해조음’이 있는 공간이라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푸른색의 색채 이미지는 생명력이 충만한 공간으로서의 바다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글쓴이는 노을의 자줏빛에 함북 젓어서 돌아오곤 했다고 말하고 있다. 해 질 무렵 노을의 색깔은 부재하는 대상, 즉 어머니와 첫사랑의 소녀에 대한 그리움과 글쓴이의 쓸쓸한 감정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한다.
- ② ‘어두운 내 마음’이라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때의 어둠은 물리적 실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글쓴이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추상적 의미로 볼 수 있다.
- ③ ‘어둠이 기어 와서’는 해가 지고 저녁이 되는 상황을 나타내므로 시간의 경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 ⑤ (나)에서 ‘검은’ 색은 생명체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터전인 빨밭의 색깔로 표현되고 있다.

[35~39] 언어

35 합성어의 형성과 사잇소리 현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4문단의 내용에 따르면 ‘책가방[책까방]’에서 ‘ㄱ’이 ‘ㄲ’으로 바뀐 것은 앞 음절의 끝소리가 ‘ㄱ’이기 때문이다. 앞 음절의 끝소리가 ‘ㄱ, ㄷ, ㅂ’일 때, 그 뒤에서 평음이 경음으로 바뀌는 것은 예외가 없는 규칙이고 사잇소리 현상도 아니다. 또한 3문단에 따르면 사잇소리 현상이 잘 일어나는 것은 앞의 말이 뒤의 말에 대해 장소의 의미를 지닐 때이지 뒤의 말이 앞의 말에 대해 장소의 의미를 지닐 때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3문단에서 앞의 말과 뒤의 말이 대등한 관계인 경우에는 사잇소리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적절하게 추론된 것이다.
- ③ 3문단에서 앞의 말이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면 사잇소리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고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면 사잇소리 현상이 잘 일어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게 추론된 것이다.
- ④ 마지막 문단에서 합성어의 한 요소가 외래어이면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피자+집’은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피자집’으로 적지 않고 ‘피자집’으로 적는다.
- ⑤ ‘전세방’과 ‘전셋집’에서 ‘전세’는 한자어로서 공통되는데, ‘방’은 한자어이고 ‘집’은 고유어이다. 마지막 문단에서 고유어가 하나라도 있으면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날 때 사이시옷을 쓴다고 했으므로, ‘전셋집’에만 사이시옷이 쓰이게 된다.

36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1문단의 내용과 <보기>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잇소리 현상은 교체(뒤 요소의 첫소리가 평음에서 경음으로 바뀜)와 첨가(‘ㄷ’ 소리 첨가 혹은 ‘ㄴ’이나 ‘ㄴㄴ’ 소리 첨가)의 두 가지 유형의 음운 변동을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홀이불[혼이불]’에서는 없던 음운인 ‘ㄴ’이 첨가되고 ‘ㅌ’이 ‘ㄷ’으로 교체된 다음에 그 ‘ㄷ’이 ‘ㄴ’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끓는다[궁는다]’에서는 ‘ㄹ’이 탈락하고, ‘ㄱ’이 ‘ㅇ’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 ② ‘갈히다[가치다]’에서는 ‘ㄷ’과 ‘ㅎ’이 합쳐져 ‘ㅌ’으로 축약되고 ‘ㅌ’이 구개음화로 인해 ‘ㄷ’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 ③ ‘앞사람[압싸람]’에서는 ‘ㅍ’이 ‘ㅂ’으로 교체되고, ‘ㅅ’이 ‘ㅆ’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교체만 있다.

- ⑤ ‘흙바람[흑빠람]’에서는 ‘ㄹ’이 탈락하고, ‘ㅂ’이 ‘ㅃ’으로 교체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37 문장의 짜임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에서 ‘공원에서’는 부사어인데 ‘주다’라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아니다. 즉 ‘공원에서’는 서술어의 의미 성립을 위해 반드시 나타날 필요는 없으므로, 필수적 부사어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은 명사절 ‘그가 우리를 속였음’에 ‘이’가 붙은 말이 안은문장(전체 문장)의 주어이고 ‘분명하다’가 서술어이다.
- ② ㉢에서 ‘옥토로’를 생략하면 생략하기 전의 문장과는 의미가 달라진다. 곧 원래의 문장은 ‘황무지’가 ‘옥토’로 바뀌었다는 뜻인데, ‘옥토로’를 생략하면 없던 ‘황무지’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된다. 어떤 성분을 생략해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그 성분을 생략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경우의 ‘만들다’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 ③ ‘형이 종이비행기를 접어서 (형이 종이비행기를) 날렸다.’라고 생략된 성분을 파악한 것은 맞지만, ‘-어서’로 연결되었으므로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이 아니라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다.
- ④ ‘예쁜’은 한 단어로 되어 있어 절로 보이지 않지만 ‘새가 예쁘다’를 관형어로 만든 것이므로 관형사절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홑문장이 아니라 겹문장(관형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38 용언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파랑-’에 어미 ‘-으니’가 결합하면 ‘파라니’가 되는 것을 고려할 때 ‘하얗-’에 ‘-으니’가 결합하면 ‘하야니’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하얗니’로 적어야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잠그-’에 어미 ‘-아’가 결합하면 ‘잠가’가 되는 것을 고려할 때 ‘담그-’에 ‘-아’가 결합하면 ‘담가’가 되어야 한다.
- ② ‘모르-’에 ‘-아’가 결합하면 ‘몰라’가 되는 것을 고려할 때 ‘가르-’에 ‘-아지다’가 결합하면 ‘갈라지다’가 되어야 한다.
- ③ ‘이르-’에 어미 ‘-어’가 결합하면 ‘이르러’가 되는 것을 고려할 때 ‘푸르-’에 ‘-어’가 결합하면 ‘푸르러’가 되어야 한다.
- ⑤ ‘짓-’에 어미 ‘-어’가 결합하면 ‘지어’가 되는 것을 고려할 때 ‘잇-’에 ‘-어서’가 결합하면 ‘이어서’가 되어야 한다.

39 중세 국어의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의 ‘노미’는 명사 ‘놈’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된 것으로 중세 국어에서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에는 주격 조사 ‘이’가 결합했다. 따라서 ‘ㅣ’는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에 결합하는 주격 조사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의 ‘나랏’은 명사 ‘나라’에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된 것으로 ‘우리나라의’라는 현대어 풀이를 고려할 때, 중세 국어에서 사물을 나타내는 명사에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ㅅ’은 현대 국어의 ‘의’에 해당하는 관형격 조사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② ㉢의 ‘아니홀썩’은 어간 ‘아니ㅎ-’에 연결 어미 ‘-ㄹ썩’이 결합된 것으로 ‘아니하여서’라는 현대어 풀이를 고려할 때, 중세 국어에서 ‘-ㄹ썩’에 대응되는 현대 국어는 ‘-여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세 국어에서 ‘-ㄹ썩’은 까답이나 근거를 나타내는 어미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③ ㉣의 ‘어린’은 어간 ‘어리-’에 어미 ‘-ㄴ’이 결합된 것으로 ‘어리석은’이라는 현대어 풀이를 고려할 때, 중세 국어에서 ‘-ㄴ’이 현대 국어의 관형사형 어미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ㄴ’은 앞말이 뒤에 오는 말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게 하는 어미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⑤ ㉤의 ‘이룰’은 대명사 ‘이’에 목적격 조사 ‘ㄹ’이 결합된 것으로 중세 국어에서 목적격 조사는 선행하는 명사가 모음으로 끝나면 ‘ㄹ/를’이 오고, 자음으로 끝나면 ‘을/을’이 왔다. 따라서 ‘ㄹ’은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에 결합하는 목적격 조사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40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인터넷 매체는 음성, 문자, 소리, 그림, 동영상과 같은 여러 양식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정보를 생산하는 복합 양식성을 지니고 있으나, 이런 특징 때문에 ㉠의 정보가 ㉡, ㉢에 비해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누구든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 개방적 특성 때문에 수용자가 정보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따져 보아야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신문 매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한된 지면을 통해 제공한다. 특히 날씨와 같은 정보는 할애된 지면이 좁아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과 같이 상세한 설명 없이 표제와 그림 등을 활용하여 간략하게 전달하고 있다.
- ② 텔레비전 매체는 ㉢과 같이 기자의 말과 현장 화면을 함께 제시하여 시청자가 더위를 실재감 있게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③ ㉡은 날씨 정보를 '36면'에 제공하고 있으며 ㉢은 날씨를 '다음 소식'으로 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과 ㉢은 날씨를 포함한 시의성 있는 정보를 대량으로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보 제공자는 각각 신문사와 방송사로, 유통이 ㉠과 달리 일방향적이다. 따라서 신문 매체와 텔레비전 매체는 폐쇄적인 정보 제공자가 대중을 상대로 당시의 사정이나 요구에 맞는 대량의 정보를 일방적으로 쉽게 전달할 수 있으므로 ㉠에 비해 영향력과 파급력이 크다.
- ⑤ 인터넷 매체는 ㉠에서 보듯이 날씨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개방적 특성을 지니며, 또한 누구나 정보를 얻고 공감 또는 댓글을 통해 소통할 수 있으므로 쌍방향적으로 유통된다.

41 매체 자료의 주체적 수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가)의 기사는 한국으로 여행 가고 싶다는 외국인이 설문 응답자의 95%를 차지함에도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여행 갈 의사가 없는 5%의 이유만을 부각하여 표제와 본문을 작성했다. 정보를 공정하게 다루고 있지 않은 기사의 편파적 관점으로 인해 맨 위의 최근 댓글에서 독자가 우리나라를 외국인들이 오고 싶어 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이를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는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기사의

사실성과 정확성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다만 한국으로 여행 가고 싶다는 외국인 95%의 이유와 여행 갈 의사가 없는 5%의 이유를 공정하게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므로 기사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

- ② (가)는 한국으로 여행 가고 싶다는 외국인과 여행 갈 의사가 없다는 외국인, 두 그룹에서 제시한 이유를 공정하게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상반되는 의견을 공정하게 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③ (가)의 기사는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의도적으로 일부 사실만을 부각하여 표제와 본문을 구성한 것이 문제이다. 본문이 이미 표제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자료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
- ⑤ ○○ 문화 재단에서 세계 20개국 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정보라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

42 매체 자료 수용의 관점과 가치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나)의 ㉢에서는 외국인들의 서울 재방문 의사가 높지만 방문 장소와 목적이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다시 찾을 때는 그 장소와 목적이 서울에서의 쇼핑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곳곳에서 한국만의 맛과 멋을 발견하고 즐기기 위한 것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패션이나 화장품 등이 주목을 받으면서 서울이 인기 관광지로 떠올랐다는 ㉡의 분석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을 지닌 자료들을 여러 매체에서 찾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유사한 관점의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는 한국으로 여행 가고 싶다는 외국인이 설문 응답자의 95%를 차지함에도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없이 여행 갈 의사가 없는 5%의 이유만을 부각하여 표제와 본문을 작성했다. 이에 대해 맨 아래 가장 먼저 달린 댓글의 독자는 기사의 주 내용인 우리나라로 여행 오고 싶지 않은 5%의 외국인들이 제시한 이유에 대해 수용적 태도를 보이고, 두 번째 댓글의 독자는 기사에 드러나 있지 않은 한국으로 여행 가고 싶은 이유에 대해 되묻고 있으므로 비판적으로 판단하려는 태도가 요구된다

는 의견은 적절하다.

- ② (가), (나)는 모두 한국 여행에 대한 외국인들의 의견이나 이에 대한 분석 등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가)는 한국으로 여행 갈 의사가 없는 외국인 5%가 제시한 이유에 초점을 두고 기술하고 있고, (나)의 ㉠은 서울이 아태 지역 최고 여행지로 떠오른 이유를 분석하였으며, ㉡은 외국인들의 서울 재방문 의사가 높지만 방문 목적과 장소가 편중되어 있음을 제시하며 이들이 재방문 시에는 전국 곳곳에서 한국만의 맛과 멋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매체 자료는 서로 다른 관점을 지니고 다양한 측면에서 기술될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의 타당성을 따져 가며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적절하다.
- ③ (나)의 ㉠과 ㉡에서 외국인들이 서울을 최고의 여행지로 꼽거나 다시 가고 싶은 도시로 평가한 것을 고무적인 일로 볼 수 있지만, ㉢에서 외국인들이 다시 찾은 장소와 목적이 서울에서의 쇼핑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곳곳에서 한국만의 맛과 멋을 발견하고 즐기기 위한 것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처럼 서울에서의 쇼핑과 먹거리에 집중되어 있는 관광 현실을 지적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면서 매체 자료가 지닌 의미를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은 적절하다.
- ④ (가)는 한국으로 여행 갈 의사가 없는 외국인 5%가 제시한 이유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으므로 부정적인 의견을 다루고 있다. 반면에 (나)의 ㉠은 서울이 아태 지역 최고 여행지로 떠오른 이유를 분석하고 있고, ㉡은 서울 재방문 의사가 높고 만족도가 높다는 외국인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이 재방문 시에는 전국 곳곳에서 한국만의 맛과 멋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덧붙이고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한국으로 여행 가고 싶은 외국인들이 많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개선해 나갈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매체 자료를 주체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은 적절하다.

[43~45] 매체 + 언어

43 사회적 상호 작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가)의 수용자 분석을 보면 영상을 보는 사람은 따돌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스토리보드에 없는 따돌림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한 내용을 유시시(UCC) 제작 시 추가하자는 의견이다. 이는 (나)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스토리보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를 재연한 영상과 따돌림 가해 이유, 따돌림 경험 등을 다룬 여러 통계 자료를 연달아 제시하여 따돌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자는 의견으로 (나)의 [8], [9], [10]에 반영되어 있다.
- ② (가)의 스토리보드에 제시한 통계 자료의 출처가 (나)의 [10]에 반영되어 있다. 또한 (가)의 스토리보드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화면, 즉 재연의 내용이 우리 학교나 특정 학생과 관련이 없음을 알리는 내용을 추가하자는 의견은 (나)의 [4]에 반영되어 있다.
- ③ (가)의 스토리보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터뷰 영상을 넣되, 시청자가 학교 내 따돌림 문제의 원인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피해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해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제공하자는 의견이다. 피해자 인터뷰는 (나)의 [12]에, 여러 가해자의 인터뷰는 [11], [13], [14]에 반영되어 있다.
- ⑤ (가)의 스토리보드에는 제목이 첫 화면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유시시(UCC) 제작 시 첫 화면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학생의 웅크린 모습을 화면의 한 칸에 배치하여 제시함으로써 외로움을 부각하고, 다음 화면에 ‘혼자는 싫어요’라는 제목을 제시하여 기획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자는 의견으로 (나)의 [1]과 [2]에 반영되어 있다.

44 매체 자료의 주체적 수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나)는 따돌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학생들이 해결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를 지닐 수 있도록 기획된 것으로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형식으로 구성된 이유는 설명을 통해 의도를 직접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여 시청자가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즉 재연 영상이나 통계 자료, 피해자 인터뷰와 가해자들의 인터뷰 등을 제시하고 [15]에서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라고 질문하는 것은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청자가 스스로 심각성을 인지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수용자의 관심과 신뢰를 얻지 못하고 주제에 동의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의도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의 [11]~[14] 영상을 보면,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화면을 처리하고 음성 변조 기술을 활용하여 인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개인 정보를 보호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평가이다.
- ② 청소년 일탈 사례를 재연한 영상은 (나)의 [7]에 나타나며 이는 파도림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주제에 부합하지 않는 영상을 제시함으로써 내용적 완결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는 적절하다.
- ③ (가)를 보면 기획 의도는 파도림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학생들이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를 지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의 [15]를 보면 학교와 학부모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평가이다.
- ⑤ (나)의 [1]과 [2]에서 적절한 이미지와 구도, 배경 음악을 사용하여 의도를 드러내며 영상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의 부제는 학생들의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기획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초점을 흐리고 있으므로 적절한 평가이다.

45 단어의 의미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나)의 ㉠은 ‘문어체에서, 상대방을 높여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인 ‘당신’으로 쓰인 예인데, ③ 역시 ‘하십시요체’에 상대를 높이는 이인칭 대명사의 예이다. 따라서 동일한 쓰임을 보인 예로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에서 ‘당신’은 ‘맞서 싸울 때 상대방을 낮잡아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의 사례이다.
- ② ‘이 일을 한 사람이 당신이요?’에서 ‘당신’은 ‘듣는 이를 가리키는 이인칭 대명사. ‘하오’할 자리에 쓴다.’의 사례이다.
- ④ ‘당신에게 좋은 남편이 되도록 노력하겠소.’에서 ‘당신’은 ‘부부 사이에서, 상대방을 높여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의 사례이다.
- ⑤ ‘할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장서를 소중히 다루셨다.’에서 ‘당신’은 “자기를 아주 높여 이르는 말.”의 사례이다.

실전 모의고사 3회

본문 188~212쪽

01 ①	02 ④	03 ③	04 ②	05 ⑤
06 ①	07 ③	08 ⑤	09 ④	10 ④
11 ③	12 ④	13 ④	14 ④	15 ①
16 ⑤	17 ④	18 ③	19 ②	20 ①
21 ④	22 ③	23 ⑤	24 ③	25 ③
26 ④	27 ⑤	28 ③	29 ⑤	30 ⑤
31 ①	32 ⑤	33 ①	34 ⑤	35 ②
36 ①	37 ②	38 ③	39 ④	40 ④
41 ①	42 ①	43 ④	44 ⑤	45 ②

[01~04] 현대시

(가) 윤동주, 「또 다른 고향」

해제 이 작품에는 일제 강점기라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지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젊은 시인의 고뇌가 담겨 있다. 화자는 피폐한 현실 속에서 느끼는 자아 분열의 고통과 불안을 극복하고 이상 세계를 지향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의 분열과 갈등, 그리고 이들의 화합을 추구하는 모습을 제시하면서 보다 나은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화자의 바람이 드러난다.

주제 이상 세계에 대한 동경과 자아 분열의 극복 의지
구성

- 1~2연: 화자의 귀향과 암담한 현실 인식
- 3연: 자아 분열과 갈등
- 4~5연: 현실적 자아를 일깨우는 소리
- 6연: 자아 분열의 극복 의지와 이상향에 대한 동경

(나) 함민복, 「사과를 먹으며」

해제 이 작품은 사과를 먹는 일상적인 경험을 확장하면서 사과를 존재하게 한 자연의 이치와, 생성과 소멸의 순환 원리에 대한 깨달음을 제시한다. 사과를 존재하게 한 자연, 사과를 키우기 위한 인간의 노력과 역사 등 사과를 존재하게 한 모든 것으로 사과를 확장하면서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사과를 먹는 행위가 사과를 존재하게 한 우주를 먹는 것이며 순환하는 생명의 원리에 참여하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주제 생명 순환의 원리에 대한 깨달음

구성

- 1~2행: 사과를 먹는 행위
- 3~9행: 사과와 함께한 자연물을 먹는 행위
- 10~12행: 사과를 먹으며 느끼는 인간의 노력
- 13~19행: 사과를 먹으며 느끼는 자연의 순환 과정
- 20~24행: 생명의 순환 원리에 대한 인식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가)에서는 ‘가자’가 포함된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여 자아 분열을 가져온 암담한 현실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과 같은 이상향을 지향하는 시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나)에서는 ‘먹는다’가 포함된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면서 사과를 먹는 행위가 결국 생명 순환의 원리와 연결되는 시적 상황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가)에서는 대화의 방식이 아니라 독백적 어조로 시상이 전개되며 자아 분열의 고통과 이를 벗어나기 위한 의지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화자의 태도 변화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나)에서는 대화의 방식뿐만 아니라 화자의 태도가 변화된 부분도 드러나지 않는다.
- ③ (가)에서는 ‘어둔 방’을 통해 어둠의 이미지는 제시되나 이와 대조되는 밝음의 이미지는 나타나지 않으며, (나)에서는 ‘햇살’과 같은 밝음의 이미지는 드러나나 이와 대조되는 어둠의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가)와 (나)에서는 모두 시적 대상의 외양을 묘사하는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다.
- ⑤ (가)에서는 ‘~ 우는 것이냐’와 같은 의문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자아가 분열된 상황으로 인한 화자의 혼란한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나)에서는 의문문의 형식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02 시어 및 시구의 비교와 대조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C]에서는 사과가 열리는 과정과 연관된 대상으로 사과나무가 있다. [D]에도 ‘흙으로 빚어진 사과’와 같이 사과가 열리는 과정과 연관된 대상으로 ‘흙’이 나오며, 사과가 열리는 과정과 단절된 대상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에서는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들을 제시하고, 이들을 먹는다는 표현을 통해 햇살, 장맛비, 소슬바람, 눈송이와 같은 자연의 요소들이 사과나무와 사과에 영향을 주었음을 표현하고 있다.
- ② [A]에는 계절의 흐름이라는 자연적 요소가 담겨 있고, [B]에는 사과 농사를 짓는 노동과 사과를 연구한 식물학자의 지적 탐구가 드러난다. 이를 통해 [B]는 자연적 요소가 아닌 인간의 노력을 표현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 ③ [C]에서는 사과나무의 가지, 뿌리 등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사과나무의 구성 요소가 사과와 연결되면서 사과가 만들어졌음을 표현하고 있으며, 특히 사과나무의 나이테를 통해 사과에 담긴 사과나무의 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 ⑤ [A]~[C]와 달리 [D]에서는 자신의 존재 기반인 흙에서 나온 사과가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는 표현을 통해 자연의 순환 과정 및 질서를 강조하고 있다.

03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가)에서 화자는 일제 강점기와 같은 특수한 상황 속에서 내적 갈등에 휩싸여 ‘눈물짓는’ 대상을 화자 자신과 ‘백골’, ‘아름다운 혼’ 등과 연결하면서 누가 우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연속적으로 던지며 자아 분열의 혼란스러움을 표현한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화자는 현실의 ‘고향’이 아닌 이상향으로서의 ‘또 다른 고향’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 즉 자아 분열을 인식하고 누가 우는 것인지를 인지하고자 하는 것은 자아 분열을 극복하고자 하는 자기 성찰의 의지로 연결되는 태도이므로, 성찰이 깨달음으로 연결될 수 없다는 태도를 드러낸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보기>에서 문학 창작이 삶의 체험을 개성적 시각을 통해 새로운 의미로 구성한다고 진술한 바와 같이, 일상적 공간인 ‘방’이 ‘우주’로 연결되는 것은 통념을 깨는 표현으로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상에 기반한 작가의 갈등과 성찰의 과정을 개성적 표현으로 드러낸 것임을 알 수 있다.
- ② 화자가 ‘어둔 방’이 있는 ‘고향’이라는 현실적 공간에 돌아왔지만 이곳에서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이라는 이상적 공간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일제 강점기라는 고통스러운 현실과, 그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작가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보기>에서 작가가 일상의 경험에서 얻은 가치 있는 깨달음을 형상화한다고 한 것과 같이 (나)에서는 사과를 먹는다는 일상적 의미를 확장하여 사과나무 및 사과와 연관된 다양한 사물을 연결함으로써 생명 순환의 원리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⑤ 인간이 사과를 먹는 일반적인 상황을 전복시킨 ‘사과가 나를 먹는다.’라는 낯선 표현을 통해 인간이 죽어 흙으로 돌아가고 사과는 그 흙을 통해 성장하여 다시 인간에게 돌아간다는 인식을 드러냄으로써 결국 인간과 자연물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존재라는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04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가)의 '우주'는 '어둔 방'이라는 화자가 처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 의미하며, (나)의 '우주'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기까지 관여한 존재들의 총체를 표현한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의 '우주'는 사과나무가 성숙하여 사과를 맺기까지 존재할 수 있도록 한 존재들의 총체로, 시적 대상인 사과의 성숙함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가)의 '우주'는 부정적 현실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제시되었을 뿐, 화자의 자부심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 ③ (가)의 '우주'는 '어둔 방'과 연결되어 화자가 다른 세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있으므로 다른 대상과 단절된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 ④ (가)의 '우주'는 '어둔 방'이라는 부정적 공간과 연결된 새로운 세계로 제시되며, (나)의 '우주'도 사과의 탄생에 관여한 존재들의 총체로, 부정적 공간과는 관계가 없다.
- ⑤ (가)의 '우주'는 화자가 괴로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이기는 하지만 괴로운 현실과 그로 인한 내적 갈등을 낙관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를 보여 주지 않는다. (나)의 '우주'는 사과가 탄생할 수 있도록 한 모든 존재들의 총체를 드러내는 것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와는 관계가 없다.



QR코드 앱을 사용해 추가 정보를 확인하세요.

수능완성 사용설명서

바쁜 수험생을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
수능완성의 지문 분석 능력 향상

[05~10] 사회

'시민 참여와 시빅 테크(Civic Tech)'

해제 이 글은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과 함께하는 디지털 환경의 형성, 공공 기관을 중심으로 한 보유 데이터의 개방 움직임을 배경으로 등장한 시빅 테크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빅 테크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참여 의제를 설정하며, 자발적으로 모여들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데 정보 통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공익을 실현하려는 새로운 시민 참여 운동이다. 현재 시빅 테크는 정부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혁신을 촉진하려는 '열린 정부 운동'과 지역 사회 활동이나 문제의 해결과 관련된 분야로서 '커뮤니티 활동'으로 발현되고 있다. 시빅 테크는 사회의 공공 가치 회복에 기여하고, 시민이 사회의 중심 주체로 부상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시민과 정부 간 소통에도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 통신 기술 접근이 보편적이지 않다는 문제점은 참여자의 다양성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시빅 테크가 공익 실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현실화하려면 이러한 한계를 분석하여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주제 새로운 시민 참여로서의 시빅 테크의 개념과 특징

구성

- 1문단: 시빅 테크의 등장 배경과 시빅 테크의 개념
- 2문단: 시민이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가지도록 하는 시빅 테크
- 3문단: 시빅 테크의 핵심 수단인 지능 정보 기술의 종류와 특징
- 4문단: 시빅 테크가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두 가지 분야
- 5문단: 시빅 테크의 의의와 해결 과제

05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1, 2문단에서 시빅 테크의 등장 배경과 특징을 제시하고 있으며, 3문단에서 시빅 테크의 핵심 수단인 지능 정보 기술의 종류와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이 글은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최근 부상하고 있는 시빅 테크의 개념 및 특성을 설명하는 글로, 시빅 테크에 대한 통념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 ② 5문단에서 시빅 테크의 장단점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지는 않다.
- ③ 이 글은 시빅 테크를 설명하는 두 가지 입장이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각각의 구체적 사례 역시 제시하고 있지 않다.
- ④ 1문단에서 시빅 테크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나, 시빅 테크의 변천 과정을 나열하고 있지는 않다.

06 세부 내용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2문단에서 공공 데이터의 개방과 정보 통신망의 구축에 따라 시민들이 사회 문제를 상시적으로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사회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독점하며 진행하던 일방적이고 하향적인 정책 관리 방법이 시민 주도의 방법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했다. 즉 공공 데이터의 개방으로 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시민들의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1문단에서 제4차 산업 혁명으로 사회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공공 문제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져 이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점점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 ③ 4문단에서 열린 정부 운동은 정부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혁신을 촉진하려는 시빅 테크의 한 분야이며, 열린 정부 운동으로는 공공 데이터를 더 활용하기 좋은 형식으로 공개하는 작업이나 바람직한 공공 데이터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공공 기관 컨설팅 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④ 2문단에 따르면, 공공 데이터는 공공 기관에서 생성,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제공된 것을 말한다. 따라서 행정 기관 및 공적 기관은 공공 데이터를 국민들에게 제공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3문단에서 새로운 시민 참여로서의 시빅 테크는 전통적인 시민 참여와 달리, 시민 단체 및 지역 공동체 등과 같은 전통적인 매개 집단이나 조직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수많은 개인이 서로 직접 연결되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식과 대안을 함께 만들고 공유할 수 있게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07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보기>에서 마을의 문제 상황과 ‘소화전 입양하기’ 앱을 누리소통망에 게시한 것은 마을 주민들이 문제 상황을 파악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소화전 관리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는 시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커뮤니티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열린 정부 운동’ 분야인 바람직한 공공 데이터 개발의 유도에 따른 결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1문단에서 시빅 테크는 시민이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 문제나 사회 문제의 해결책을 직접 모색하고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했다. <보기>에서는 소화전을 찾지 못해 불을 끄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주민 몇몇이 ‘소화전 입양하기’ 앱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소화전을 관리하도록 했다.

- ② 4문단에서 커뮤니티 활동은 시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자금 모금, 정보 공유, 시민운동 조직, 자원 공유, 토론 및 포럼 등을 벌이는 것이라고 했다. <보기>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소화전 입양하기’ 앱을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화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화전의 위치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커뮤니티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④ 5문단에서 시빅 테크는 사회의 공공 가치 회복에 기여하고, 시민이 사회의 중심 주체로 부상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에 크게 기여한다고 했다. <보기>에서 ‘소화전 입양하기’ 앱을 통해 소화전을 입양한 시민이 주인 의식을 갖고 소화전 위에 쌓인 눈을 치움으로써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 ⑤ 2문단에서 시빅 테크는 공공 데이터의 개방을 배경으로 등장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보기>에서도 ‘소화전 입양하기’ 앱에 필요한 소화전의 위치 정보는 ○○시 누리집에 게시된 데이터를 활용했다고 했다.

08 생략된 내용 추론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5문단에서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기를 보유하지 못하거나 활용 능력이 미흡한 사람들은 시빅 테크 참여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느끼거나 무관심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 학습지의 <자료>에서도 디지털 기기를 접하기 어렵고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이 차별을 당하는 현상을 제시하고 있다. ⑤는 이를 토대로 사회 문제에 대한 의제를 수립하고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기기의 활용 격차에 따른 소외 문제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제시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디지털 활용 능력을 키워 줄 수 있는 교육과 디지털 기기의 접근이 쉬워지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제공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5문단에서 시빅 테크는 시민의 요구를 좀 더 쉽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확장된다는

점에서 시민과 정부 간 소통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시민과 정부 간 소통을 불안정하게 한다는 점은 시빅 테크가 지닌 한계점이 아니며 학습지의 <자료>의 내용과도 맞지 않는다.

- ② 시빅 테크가 디지털 공동체를 앞당긴다고 언급한 것은 시빅 테크의 한계점을 밝힌 것이 아니다. 또한 디지털 공동체를 위한 설비 구축과 기기 보급은 디지털 기기 사용 능력이 미흡한 사람들의 정치 참여를 제한한다는 시빅 테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③ 시빅 테크가 시민의 정치적 참여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 수립 및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의 정치적 요구를 담아낼 수 있다고 한 것은 시빅 테크의 장점을 언급한 것이지 한계점을 밝힌 것이 아니다.
- ④ 디지털 기기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정치적 참여에 제한이 있다는 시빅 테크의 한계점은 밝히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기기의 오남용을 감시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디지털 기기의 접근이 어렵고, 디지털 기기의 활용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의 정치적 참여를 확대하는 대안이 되지는 못한다.

09 세부 내용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3문단에서 IoT는 사람, 사물, 서비스 등의 분산된 환경 요소가 상호 협력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사물 공간 연결 인프라로써 사람의 개입 없이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한다고 했다. 지속적으로 수집된 정보를 사람, 사물 등의 환경 요소로 분산하여 처리한다고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3문단에서 시민들은 인공 지능 기술을 통해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했다.
- ② 3문단에서 지능 정보 기술은 시민의 전문 지식과 정보 접근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시민이 사회 참여를 위한 효과적 도구를 제작하고 올바른 의견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했다.
- ③ 3문단에서 빅 데이터를 바탕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선제적 대응을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 ⑤ 3문단에서 인공 지능 기술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및 콘텐츠를 사용자 맞춤형으로 가공하여 제공한다고 했다.

10 단어의 의미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㉔는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앞질러 대안을 준비한다는 의미이므로, 다양한 대안을 비교한다는 내용으로 바뀌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㉔는 '일 따위를 맡아서 능히 해내다.'라는 의미이므로, 문맥상 '처리하고 해결하기에는'으로 바뀌 쓸 수 있다.
- ② ㉔는 '어떤 현상이 관심의 대상이 되거나 어떤 사람이 훨씬 좋은 위치로 올라서다.'라는 의미이므로, 문맥상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로 바뀌 쓸 수 있다.
- ③ ㉔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과 방법을 세우다.'라는 의미이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과 방법을 세움으로써'로 바뀌 쓸 수 있다.
- ⑤ ㉔는 '해결해야 할 문제 및 과제가 많다.'라는 의미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QR코드 앱을 사용해 추가 정보를 확인하세요.

수능완성 사용설명서

바쁜 수험생을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
수능완성의 지문 분석 능력 향상

[11~14] 극

이강백, 「파수꾼」

해제 이 작품은 우화적인 기법을 적용하여 권력층의 위선을 간접적으로 폭로하고 있는 희곡으로, 거짓으로 공포감을 조성하여 마을을 통제하는 촌장의 행동에 당대의 정치 상황을 빗대어 드러내었다. 이 작품에서 파수꾼 '가'와 '나'는 망루에서 "이리 떼가 몰려온다!"라고 외치며 양철북을 두드리고, 이리 떼가 없다는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파수꾼 '다'마저 촌장의 회유와 계략에 말려들어 양철북을 두드리게 된다. 진실을 밝히려 했지만 결국 현실에 무릎 꿇는 파수꾼 '다'의 모습은 독자에게 연민과 함께 현실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불러일으킨다.

주제 진실을 위한 열망과 진실이 통하지 않는 사회의 비극

전체 줄거리

철책 너머에 이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파수꾼 '다'의 편지를 받고 촌장이 망루로 찾아온다. 촌장은 파수꾼 '다'의 말대로 이리 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파수꾼 '다'는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려 한다. 그러나 촌장은 다양한 이유를 내세워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일을 연기하도록 파수꾼 '다'를 회유한다. 결국 파수꾼 '다'는 촌장에게 회유를 당하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촌장의 의도에 따라 거짓말을 하게 된 파수꾼 '다'는 결국 망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

11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촌장은 '수천 개의 쓸모없는 텃들을 보살피고 양철북을 요란하게 두들겼'던 '충직한 파수꾼'에겐 '미안'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뒤이어 촌장은 '그의 일생이 그저 헛되다고만 할 순 없'다고 말하며 고귀한 희생을 한 것으로 의미 부여를 한다. 이를 통해 촌장이 진실을 알지 못한 파수꾼의 일생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촌장의 지시대로 텃을 감시하는 파수꾼 '나'는 이리를 잡지 못해 그 껍질을 촌장에게 선사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편치 않은 마음을 드러낸다.
- ② 파수꾼 '나'는 촌장에게 자신이 파수꾼 '다'의 담요를 제대로 덮어 주지 않아서 파수꾼 '다'가 아픈 것이라고 말한 후, 파수꾼 '다'에게 너를 좋아한다고 말하며 그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다.
- ④ 파수꾼 '다'는 파수꾼이 되는 연습을 할 때 마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은 자신의 눈을 이야기하며 망루 위의 파수꾼이 되길 바라 지원했는데, 정작 망루 위에 한 번도 올라가지 못했다.

다고 말하고 있다.

- ⑤ 속았다는 생각에 분노하며 망루를 향해 몰려온 마을 사람들을 향해 촌장은 '이 애가 그 말을 꺼낸 파수꾼'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리 떼인지 아니면 흰 구름인지, 직접 이 아이의 입을 통하여 들어' 보자고 이야기한다. 이 장면을 통해 분노한 마을 사람들이 파수꾼 '다'의 편지에 담긴 이리 떼가 없다는 내용이 진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12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마을 사람들은 이리 떼를 막기 위해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는 망루를 세우고 마을에는 가시 울타리를 두른 것이다. 따라서 '가시 울타리'는 이리 떼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을 드러내는 소재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망루'는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 세운 것으로, 이것은 마을을 향해 다가올 이리 떼를 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세운 것이다. 따라서 마을을 감시하기 위해 세운 것이 아니다.
- ② '양철북'은 망루 위의 파수꾼이 이리 떼라고 외치면 이를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두드리는 것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이리 떼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수단일 뿐 질서를 지키지 않은 마을 사람들을 위협하기 위해 사용한 소재는 아니다.
- ③ '구름'은 파수꾼 '다'가 망루 위에 올라갔다가 발견하게 된 진실이다. 권력자들은 거짓의 존재인 '이리 떼'를 통해 마을 사람들을 단결시켰기 때문에 '이리 떼'는 단결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구름'은 마을 사람들이 단결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아니다.
- ⑤ 촌장은 이리 떼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이 도끼로 망루를 부수고 자신을 죽이려고 덤빌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도끼'는 비밀을 누설한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대상에게 쏟아 낸 분노를 형상화한 소재이다.

13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㉞은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해 놀라 반문을 하는 것으로, 상대의 말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한 발자로 보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㉟은 이리 떼가 몰려갔다는 상대의 말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아직 몇 마리 남아 있는’ 것이 아니냐고 확인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파수꾼 ‘다’의 두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에서 파수꾼 ‘다’는 파수꾼이 되는 연습을 하던 과거에는 제법 용감했던 자신의 모습과 달리 파수꾼이 된 현재에는 무서움을 타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있다.
- ③ ㉡에서는 모든 것을 헛되게 만들 수 있다는 촌장의 말에 맞서 자신이 본 진실을 외치겠다는 파수꾼 ‘다’의 결심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은 파수꾼 ‘다’가 촌장의 설득에 넘어가 오늘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 대신 내일 촌장이 진실을 말하겠다는 약속에 대해 재차 확인하는 것으로, 상대가 약속을 지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드러난다.

14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파수꾼 ‘다’가 촌장의 회유에 넘어가 진실을 외치는 시간을 연기하는 모습에서 부조리한 행태가 유지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파수꾼 ‘다’가 촌장의 회유에 넘어가는 것은 촌장이 죽을 수도 있다는 압박감을 느낌과 동시에 파수꾼 ‘다’가 진실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촌장의 주장을 부정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진실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촌장에게 회유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이리 떼가 보이지 않음에도 이리 떼가 있다고 외치는 파수꾼 ‘가’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리 떼가 존재한다는 거짓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이는 거짓된 정보를 사실처럼 전달함으로써 사람들이 권력자들에게 복종하도록 하는 데에 기여한 것이다.
- ② 파수꾼 ‘가’의 외침을 무조건 진실로 받아들이는 파수꾼 ‘나’는 외침이 있을 때마다 복을 침으로써 마을 사람들이 이리 떼를 두려워하여 권력자의 통제에 복종하는 데에 일조하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 준 것이다.
- ③ 촌장이 존재하지 않는 이리 떼라는 허위를 통해 마을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의 일상을 통제하여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보여 준 것이다.
- ⑤ 존재하지도 않는 이리 떼에 대항하고자 단결한 마을 구성원들은 촌장의 마을 지배 방식에 순응하는 무비판적인 복종을 보여 주며, 거짓을 질서로 포장하여 마을을 지켜 주는 중요한 것으로 속이는 촌장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구성원들을 기만하는 모습을 보여 준 것이다.

[15~20] 과학+기술

(가)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SETI)’

해제 광활한 우주에 인간 이외에 다른 생명체가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다. 이러한 믿음에서부터 외계 지적 생명체에 대한 탐색이 시작되었으며, SETI(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 프로젝트는 외계 지적 생명체를 탐사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SETI 프로젝트는 외계 지적 생명체가 보내는 전파 신호를 지구에서 수신함으로써 외계 지적 생명체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SETI 프로젝트는 ‘세티 넷 홈(SETI@home)’ 프로젝트로 확장되어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PC를 전파 망원경이 수신한 전파 신호의 분석에 활용한다. 이 프로젝트는 아직까지 외계 지성의 흔적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전파 천문학자 프랭크 드레이크는 ‘드레이크 방정식’을 고안하여 외계 문명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나름의 답을 찾고 있다.

주제 외계 지적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과 탐사 방법

구성

- 1문단: 외계 지적 생명체에 대한 인류의 관심
- 2문단: 외계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
- 3문단: SETI 프로젝트의 목적과 탐사 대상
- 4문단: ‘세티 넷 홈’의 의미와 특징
- 5문단: 외계 문명의 존재 가능성과 ‘드레이크 방정식’

(나) ‘외계 생명체 탐사와 생명의 정의’

해제 외계 행성에는 현재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구조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외계 생명체 탐사를 위해서는 생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생물학적 관점에서의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물질대사를 하고, 자극에 반응하고 항상성을 유지하며, 발생, 성장, 생식, 유전, 적응과 진화를 하는 개체로 정의한다. 그러나 최근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보이는 지역에서 사는 생명체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는 생명체의 서식 환경의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을 수 있음을 알려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외계 생명체 탐사를 위해 생명체에 대한 보편적 정의를 다시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제 외계 생명체 탐사를 위한 생명체에 대한 새로운 정의

구성

- 1문단: 외계 행성에 대한 탐사와 생명체의 단서를 찾기 위한 노력의 철학적 의미
- 2문단: 생명에 대한 새로운 정의의 필요성
- 3문단: 생물학적 관점에서의 생명체의 정의와 가혹한 환경 속에서 생존하는 생물체의 발견
- 4문단: 생명체에 대한 보편적 정의의 어려움과, 외계 생명체 탐사 및 연구의 의의

15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가)는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 외계 지적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제시하며, 외계 지적 생명체를 탐사하는 방법의 대표적 사례로 SETI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있다. (나)는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은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탐사하기 위한 방법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나)에 따르면,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치는 인간의 근원과 본질에 대한 성찰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유추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가)는 드레이크 방정식을 통해 외계 문명의 존재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외계 문명의 존재 가능성을 수학적 방법으로 제시하고자 한 것일 뿐, 외계 지적 생명체의 유형을 구분한 것은 아니다. (나)에서도 철학적 방법을 통한 외계 생명체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외계 생명체 또는 외계 지적 생명체에 대한 관심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통시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특정 대상의 존재를 분석하는 공통된 과학 이론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16 세부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4문단에서 '세티 앳 홈(SETI@home)'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PC를 전파 망원경이 수신한 전파 신호의 분석에 활용하는데, 일반인들이 소프트웨어를 자신의 PC에 설치하면, 주인이 잠자는 시간 등 PC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PC가 자동으로 분석 프로그램을 수행한다고 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5문단에서 드레이크는 외계 문명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의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 '드레이크 방정식'을 고안했다고 했다.
- ② 1문단에서 20세기 중반에 들어와 전파 망원경이라는 혁신적인 도구 덕분에 우주 공간 속 외계 지적 생명체를 체계적으로 탐색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했다.
- ③ 3문단에서 SETI 프로젝트는 혹시라도 존재할 수 있는 매우 많은 외계 생명체 중에서 극히 일부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다.
- ④ 1문단에서 광활한 우주에 인간 이외에 다른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것이라는 관심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으며, 과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 시작한 것도 몇 세기 전의 일이라고 했다.

17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SETI 프로젝트의 탐사 대상이 외계 지적 생명체임을 밝히고 '잔디밭에서 바늘 찾기'라는 속담을 활용하여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또한 ㉠은 끊임없이 시도와 탐구가 계속될 때 외계 지적 생명체 및 문명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이와 관련하여 'SETI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여러분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외계 지적 생명체의 신호를 발견할 가능성의 희망이 이어질 것'이라는 프로젝트 동참의 의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홍보 문구로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SETI 프로젝트 탐사의 어려움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 ② SETI 프로젝트의 탐사 대상은 외계 지적 생명체인데, 우리 인간의 본질에 대한 성찰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SETI 프로젝트 탐사의 어려움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과 관련한 동참의 의의도 나타나지 않는다.
- ③ SETI 프로젝트는 외계 생명체 중에서 지성을 가진 생명체만을 탐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미생물 등의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해 동참을 호소하는 것은 SETI 프로젝트의 탐사 대상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 ⑤ SETI 프로젝트 탐사의 어려움과 ㉠과 관련한 동참의 의의 모두 언급하고 있지 않다.

18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나)의 3문단에서 높은 온도나 낮은 온도, 강한 압력, 강한 산성이나 알칼리성, 매우 건조한 지역, 강한 방사선 등의 가혹한 서식 환경에서 생존하는 미생물들이 지구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지구의 가혹한 환경에 사는 생명체들의 발견은 결국 지구 이외의 행성에서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근거가 된다고 했다. 즉 지구에서도 고온, 고압, 강한 방사선 속에서 살고 있는 생명체가 있는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2문단에서 수많은 항성과 행성 중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외계 문명에 대한 탐색은 출발했다고 제시하고 있다.
- ② (나)의 1문단에서 인간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를 통해 인간이란 존재의 근원과 본질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외계 지적 생명체를 포함한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

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 ④ (가)의 3문단에서 SETI 프로젝트는 우주 어딘가에서 외계 생명체가 보내는 전파 신호를 지구에서 수신하여 간접적으로 외계 지적 생명체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또한 전파 신호를 발신하는 외계 생명체의 경우 지구와 비슷하거나 혹은 더 발전된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도 했다.
- ⑤ (가)의 4문단에서 전파 망원경이 수신한 전파 신호 속에는 온갖 자연의 전파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으며, 여기서 인공의 전파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정보 처리 용량의 슈퍼컴퓨터가 필요하다고 했다.

19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나)의 슈뢰딩거는 생명체가 외부에서 얻은 에너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질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생명' 현상이 에너지와 물질의 유출입이 있는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기>에서 생명체는 '동적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요구한다고 했다. 또한 외부에서 유입된 분자는 생명체를 통과하여 다시 환경으로 돌아간다고 했으므로, 쉰하이머도 생명체에서 에너지와 물질의 유출입이 있다고 보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의 4문단에서 생명체가 '엔트로피 증가 법칙'을 무시한다고 본 슈뢰딩거의 주장을 언급하고 있다. <보기>에서 쉰하이머는 생명체가 '동적 평형' 상태에서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며 살아간다고 했다. '엔트로피 증가 법칙'은 자연 물질이 질서 정연한 상태에서 점점 무질서한 상태로 변화하게 되는 현상을 말하고 있으므로 일정한 형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 ③ (나)의 슈뢰딩거는 외부에서 얻은 에너지를 이용하여 생명체 자신의 질서 상태를 유지하는 개체를 생명체라고 정의했다. 반면에 <보기>의 쉰하이머는 생명체 내부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분해와 합성 사이의 균형 상태로 생명체를 정의하고자 했다.
- ④ (나)의 슈뢰딩거는 우주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에 따라 생명을 정의하려 했다. 생물학적 관점에서의 생명체에 대한 정의는 지구 생명체에 한정된 특성을 바탕으로 내려진 정의이므로 슈뢰딩거의 입장에서는 이를 우주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설명이라고 볼 수 없다.

- ⑤ (나)의 슈뢰딩거는 생명체가 엔트로피 증가 법칙을 무시한다고 주장했다. 즉 외부 에너지를 통해 질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보았다. <보기>의 쉰하이머는 생명체의 모든 조직과 세포의 내부는 분해와 합성의 순환 과정을 통해 생명체는 변화하며 새로워짐으로써 일정한 형태를 유지한다고 생각했다. 엔트로피가 증가한 상태라면, 원래의 상태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엔트로피가 증가한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20 숨겨진 전제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지구에서 가혹한 환경에 사는 생명체들이 발견된 점을 바탕으로 지구 이외의 행성에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은 생명체의 서식 환경의 범위가 일반적인 서식 환경보다 넓다는 전제가 있어서이다. 또한 지구 이외의 행성의 환경이 생명체가 서식하기에는 가혹한 환경이라는 전제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생명체의 서식 환경에 대한 인식의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가혹한 환경을 가진 외계 행성에서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높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지구에서 가혹한 환경에 사는 생명체들이 발견된 점을 바탕으로 지구 이외의 행성에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는 지구상에 서식하는 생명체의 특성을 토대로 외계 행성의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추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와는 다른 형태를 지닌 생명체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은 ㉠의 전제로 적절하지 않다.
- ③ ㉠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생명체의 서식 환경이 아닌 외계 행성에서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생명체에 대한 일관된 정의의 어려움은 ㉠의 전제로 적절하지 않다.
- ④ 외계 행성에서 지구 생명체가 지닌 일반적 특징이 소멸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지구 이외의 행성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의 내용을 이끌어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⑤ 고온, 저온, 고압, 강산성 등의 가혹한 환경에서도 살아가는 미생물들의 발견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생각보다 넓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는 지구 환경에서도 발견된 생물들을 바탕으로 외계 행성의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추측한 것이다. 지구 이외의 행성의 서식 환경이 미생물들이 살아가기에 유리하다는 내용은 ㉠의 전제로 적절하지 않다.

[21~24] 이론+고전 시가

(가) '고전 시가에 나타난 예찬과 송축'

해제 고전 시가에서 시적 대상을 예찬하거나 송축하는 태도는 많은 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성 중의 하나이다. 예찬과 송축의 대상은 주로 특정한 인물, 장소, 자연물 등으로 형상화되며, 다양한 표현 기법을 활용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나 주관적 평가를 드러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자세나 세계관을 탐지할 수 있다.

주제 고전 시가에 나타난 예찬과 송축의 형상화 방식과 감상의 의의

구성

- 1문단: 고전 시가에 나타나는 예찬과 송축의 태도와 그 대상
- 2문단: 예찬과 송축의 태도가 드러난 고전 시가의 형상화 방식 및 감상의 의의

(나) 총담사, 「찬기파랑가」

해제 이 작품은 신라 경덕왕 때의 승려 총담사가 화랑인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예찬하며 지은 10구체 향가이다. 기파랑의 모습이나 인품을 직접 묘사하는 대신 고도의 비유와 상징을 세련되게 사용하여 문학성이 높은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주술성이나 종교적 색채 없이 서정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달과 화자의 문답 방식을 통해 예찬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주제 기파랑의 고결한 자태와 고매한 인품 찬양

구성

- 1~3행: 화자가 구름 속에 나타난 달에게 물음.
- 4~8행: 달이 화자에게 기파랑의 모습과 인품에 대해 대답함.
- 9~10행: 화자가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예찬함.

(다) 정도전, 「신도가」

해제 이 작품은 조선 건국에 앞장섰던 정도전이 한양으로의 천도를 찬양하기 위해 지은 약장이다. 먼저 한양의 빼어난 모습을 찬양하고, 이어서 창업의 주역인 태조와 새 도읍의 당당한 모습을 칭송하며, 끝으로 풍수지리상 지덕이 성한 한양에 도읍을 정한 태조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있다. 이 작품에는 건국의 정당성에 대한 자부심과 새로운 국가, 군주, 도읍에 대한 기대감이 잘 나타나 있다.

주제 새로운 도읍 예찬과 왕조의 무궁한 발전 기원

구성

- 1~2행: 새로운 도읍의 빼어난 모습
- 3~5행: 태조의 창업과 도성에 대한 예찬
- 6행: 조흥구
- 7~8행: 새 도읍의 지세 예찬 및 태조의 만수무강 기원

(라) 안민영, 「매화사」

해제 조선 고종 때 안민영이 지은 전 8수의 연시조로, 작가의

개인 가집인 『금옥총부』에 수록되어 있다. 작가가 1870년 겨울에 스승인 박효관의 운애산방(雲崖山房)에서 벗과 더불어 놀 때, 박효관이 가꾼 매화가 책상 위에 피어 있는 것을 보고 지은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영매가' 혹은 '영매사'라고 불리기도 한다. 매화를 의인화하여 매화의 지조, 절개, 생명력 등을 예찬하고 있다.

주제 매화의 절개와 생명력 예찬

구성

- 제2수: 매화의 고결한 속성
- 제6수: 봄을 맞이하려는 매화의 의지
- 제8수: 매화의 높은 절개

2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라)의 <제2수> 초장에서는 매화를 '너'로 부르며 의인화하고 있다. 하지만 매화는 겨우 두세 송이만 핀 모습이므로, 이를 화려하고 풍성한 외양이라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암향부동하더라'는 그윽한 향기가 은은히 떠돈다는 의미이므로, 후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개화한 매화의 그윽한 꽃향기를 예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의 '나리시 직벽'은 냇가의 조약돌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파랑의 원만하고 강직한 인품을 조약돌이라는 소재의 속성과 관련지어 예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다)의 '잣다운더'는 '도성답구나'라는 의미로, 이를 반복하여 새로운 도읍 한양의 뛰어난 경관을 예찬하고 있다.
- ③ (다)에서는 임금이 새로운 도읍에서 만수무강을 누리기를 바라며, '만세를 누리쇼셔'라고 송축하고 있다.
- ⑤ (라)에서는 눈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매화를 '척촉', '두견화' 같은 다른 사물과 견주어 매화의 절개를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예찬하고 있다.

22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C]는 10구체 향가의 낙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아으'라는 화자의 감탄사로 시작하고, 시적 대상의 정신적 경지의 숭고함을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잣사가지 노파'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기파랑을 예찬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는 구름을 열어젖히며 달이 등장하면서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달은 화자가 질문을 하는 대상으로 자신의 소망을 비는 대상이 아니다.

- ② [B]에서 달은 하늘에서 시냇물을 내려다보며 냇물과 조약돌 등의 소재를 통해 기파랑의 고결한 인품을 따르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B]에 구체적인 공간의 이동은 나타나지 않으며, 달이 기파랑의 행적을 살펴보는 것도 나타나지 않는다.
- ④ [A]에서는 화자가 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질문을 하고 있으므로, 화자의 시선이 위를 향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C]에서 화자의 시선이 아래를 향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잣나무 가지가 높다라는 표현을 고려하면 화자의 시선은 위를 향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⑤ [C]의 경우 ‘잣나무’와 ‘서리’를 색채 대비로 볼 여지가 있으나, [B]에 선명한 색채의 대비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B]와 [C]에 이별한 비애감을 강조하는 표현도 나타나지 않는다.

23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보기>의 ‘조흥구는 흥을 돋우기 위하여 운율 조성의 보조 수법으로 넣는 구’를 통해 (다)의 6행이 조흥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보기>의 ‘[신도가]는 ‘전대절, 조흥구, 후소절’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내용을 통해 조흥구 앞의 1~5행이 전대절이고, 조흥구 뒤의 7~8행이 후소절임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에 선조들의 노고나 후손들의 근면에 대해 강조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다)의 2, 4행에서 새롭게 건설된 도성의 현재 모습에 경탄하고 있다.
- ② (다)의 3행은 개국 성왕이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는 것으로 임금의 성덕을 기리는 내용이다. 이를 <보기>의 ‘조선의 개국공신이며 새로운 도성 건설을 주도한’과 연결시키면 조선의 건국과 도성 건설에 기여한 화자의 자부심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다)의 6행 ‘아으 다룽다리’는 조흥구이다. <보기>의 ‘임금이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베푸는 잔치인 연례에서 궁중 음악에 맞추어 불렀다.’, ‘조흥구는 흥을 돋우기 위하여 운율 조성의 보조 수법으로 넣는 구로 음악적 선율을 말로 옮겨 놓은 것이다. 조흥구의 삽입은 [신도가]가 연례에 사용된 노래임을 알려 준다.’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 ④ (다)의 7행 ‘알픈 한강슈여 뒤흔 삼각산이여’를 통해 알 수 있다.

24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과 ㉡는 모두 시적 대상에게 닥친 시련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련을 기파랑이나 매화가 이겨 내는 상황이므로, 궁극적으로 ㉠과 ㉡는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이나 매화의 강인한 생명력과 의지 같은 본받을 만한 장점을 돋보이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이 기파랑에게 자연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것은 아니며, ㉡도 이미 그 자체가 자연물인 매화에게 자연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과 ㉡는 모두 시적 대상의 미래를 암시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 ④ ㉠과 ㉡ 모두 시적 대상을 방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 ⑤ ㉡는 매화에게 시련과 고통을 주는 대상으로, 이를 극복하고 꽃을 피우는 매화의 모습을 통해 매화의 생명력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 기파랑의 현실 적응력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25~29] 인문

‘명제의 진위 판단 방법’

해제 이 글은 인간의 추론 능력과 깊은 관련이 있는 언어적 표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명제는 논리학의 기본 단위가 되는 언어적 표현이다. 논리학에서는 사실과의 부합 여부를 따지지 않는 언어 세계에 관한 명제를 다루기도 한다. 이러한 명제는 명제가 맺어 주는 두 개념의 관계나 두 개의 명제로 이루어진 문장의 구조에 의해 그 진위를 판단한다. 개념의 관계나 문장 구조에 따라 명제의 진위를 판단하는 것 이외에 한 명제와 다른 명제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진위를 판단하는 방법도 있다. 명제는 논리학의 기본 단위로서 올바른 판단과 추론의 바탕이 된다. 따라서 올바른 추론과 판단을 위해서는 명제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고 그 관계를 꼼꼼히 따져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제 명제의 개념과 명제의 진위를 판단하는 방법

구성

- 1문단: 추론에서 언어적 표현의 중요성
- 2문단: 논리학의 기본 단위로서의 언어적 표현
- 3문단: 개념 관계에 의한 명제의 진위 판단
- 4문단: 문장 구조에 의한 명제의 진위 판단
- 5문단: 명제들 간의 관계에 의한 명제의 진위 판단
- 6문단: 논리적 함축 관계에 의한 명제의 진위 판단
- 7문단: 올바른 판단과 추론의 기본 요건

25 독서의 목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이 글은 논리학의 기본 단위인 명제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명제의 진위를 판단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올바른 판단이나 지식 체계 수립을 위해서는 명제의 의미를 분명히 파악해야 하며, 그 명제들의 논리적 관계를 꼼꼼하게 따져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으므로, 올바른 판단과 지식 체계의 바탕을 살펴보기 위해 명제의 개념과 진위 판단의 방법을 다룬 글을 읽으려는 사람에게 이 글을 추천하는 것은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이 글은 논리학의 기본 단위인 명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논리적 오류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② 논리학에 대한 학문적 정보와 관련하여 특정 학자의 이론을 다루고 있지 않다.
- ④ 인간의 추론 능력과 관련된 언어적 표현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인간만이 지닌 고등 사고 능력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이를 심리적으로 분석하고 있지도 않다.

- ⑤ 논리학의 기원과 발전 과정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논리적인 언어 표현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지도 않다.

26 세부 내용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2문단에서 명제는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된 문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언어의 사용에 필요한 문법적인 제약을 받는다고 했다. 이때 구체적인 언어는 자연 언어, 인공 언어 모두를 포함하므로 인공 언어도 문법적인 제약을 받게 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2문단에서 인공 언어는 사실들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연 언어만큼 다양하고 풍부한 표현을 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 ② 1문단에서 인간의 추론 능력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며,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추론뿐만 아니라 판단과 같은 다른 종류의 사고 작용도 어렵다고 했다.
- ③ 1문단에서 논리학은 인간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추론 작용을 객관적인 언어 세계에서의 관계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논리학에서 언어적 표현의 기본 단위를 2문단에서 명제라고 제시하고 있다.
- ⑤ 3문단에서 우리말로 된 문장과 영어로 된 문장이 똑같은 하나의 사실을 진술한다고 할 때 그 두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는 같다고 언급하고 있다.

27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A는 분석 명제이다. 분석 명제는 그 명제가 맺어 주는 두 개념의 관계에 의해서 진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과의 부합 여부는 분석 명제의 진위 판단과는 무관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는 ‘결혼한 남자’라는 말의 의미가 결혼하지 않은 성인 남자라는 의미의 ‘총각’이라는 말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처럼 사실과의 부합 여부와 관계없이 명제가 맺어 주는 두 개념의 관계에 의해서 진위가 파악되는 명제를 분석 명제라고 한다고 했다.
- ② B는 인공 언어로 이루어진 분석 명제이다. ‘38’은 ‘21+17’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B는 명제가 맺어 주는 두 개념의 관계에 의해 진위가 판단되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 ③ 5문단에 따르면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 아니다.’라는 명제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해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 아닌 사람들 중에 플라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다.’라는 긍정 명제의 진위를 가려내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즉 이 긍정 명제가 참이면 C는 거짓이 되고, 긍정 명제가 거짓이면 C는 참 명제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 ④ 2문단에 따르면 B는 인공 언어로 표현된 분석 명제이다. 인공 언어는 자연 언어보다 사실들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인공 언어로 표현된 B가 자연 언어로 표현된 C보다 사실들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28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과 ㉡에서 명제 p, q는 동시에 참이 될 수 없다. 즉 ㉠과 ㉡는 모두 명제 p가 참이라면, 명제 q는 거짓이 되는 명제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에서 명제 p인 ‘지금 이곳은 비가 온다.’와 명제 q인 ‘지금 이곳은 비가 오지 않는다.’는 동시에 참일 수도 동시에 거짓일 수도 없는 모순 관계에 있다. 명제 p, q가 둘 다 참일 수는 없지만 둘 다 거짓일 수 있는 관계는 반대 관계이다.
- ② ㉢를 구성하는 명제 p인 ‘우리 반 학생들은 모두 교복을 입었다.’가 거짓일 때, 명제 q인 ‘우리 반의 어느 학생들도 교복을 입지 않았다.’도 거짓일 수 있다. 우리 반 학생 중 일부만 교복을 입고 있으면 둘 다 거짓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는 반대 관계를 이루고 있다.
- ④ <보기>에 따르면, ‘현희는 진희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현희는 여자이다.’가 반드시 참이 되는 것과 같은 관계를 함축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 글의 명제 ㉣, ㉤는 논리적 함축 관계에 있다. 이때 명제 ㉣는 명제 ㉤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가 참일 때, ㉤는 반드시 참이 된다. 따라서 ㉣의 진릿값이 참일 때 ㉤의 진릿값은 항상 거짓이 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⑤ <보기>에서 명제 p가 명제 q를 함축한다는 것은 ‘p가 참일 때 q가 반드시 참’이라는 의미라고 했다. 따라서 ㉣가 ㉤를 함축한다는 것은 ㉣가 참일 때, ㉤가 반드시 참이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6문단에서 논리적 함축 관계는 한 명제나 몇 개의 명제들이 참일 때 그것이 함축하는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지만, 주어진 명제나 명제들이 참이 아닐 때는 그것이 함축하는 명제의 진릿값에 대한 확인을 해 주지 못한다고 했다.

29 독서 계획과 활동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대용 표현은 앞에서 언급된 말, 혹은 뒤에서 언급될 말을 대신하는 표현이다. 대용 표현이 어떤 내용을 대신한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면 글의 흐름과 핵심을 놓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다. ㉠은 앞에 제시된 ‘한 명제의 진릿값이 다른 명제들의 진릿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또 다른 예’를 대신한 대용 표현이다. 따라서 ㉠ 뒤에 제시된 내용 중에서 대체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이 글은 인간의 추론 능력을 언어적으로 표현한 명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글의 서두에서 추론과 관련된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의 다음에 나오는 개념에 대한 설명을 확인하면서 글을 읽는 것은 글의 화제를 파악하는 적절한 독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 ② ㉡의 앞뒤 문장은 자연 언어와 다른, 인공 언어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의 앞뒤에 나오는 정보를 대비하여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인공 언어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③ 논리학에서는 사실과의 부합 여부를 따지지 않는 언어 세계에 관한 명제를 다루기도 한다고 언급한 내용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 다음에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 다음에 나오는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파악해 보는 것은 적절하다.
- ④ ㉣은 앞서 설명한 내용을 요약하여 핵심을 정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앞에 제시된 내용의 핵심을 파악해 보는 것은 적절한 독서 방안이다.

[30~34] 고전 소설+현대 소설

(가) 작자 미상, 「숙영낭자전」

해제 이 작품은 숙영 낭자와 백선군의 사랑을 그린 것으로 남녀가 자유롭게 연애를 하고 사랑을 통해 결혼하는 모습을 그린 애정 서사이다. 한편 이 작품은 당시의 결혼 제도와 가부장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작품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이 작품에서는 사랑을 통해 결혼하고 평등한 부부 관계를 이룸으로써 남녀의 사랑보다는 가문을 더 중시하는 유교적 결혼 규범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드러낸다.

주제 유교적 결혼 규범을 뛰어넘은 사랑의 성취

전체 줄거리

경상도 안동 땅에 살고 있는 양반 백상군과 부인 정 씨는 어렵게 외아들 '선군'을 얻는다. 부부는 아들의 배필을 얻기 위해 널리 구혼을 하나 마땅히 구할 수 없어 근심이였다. 한편 선군의 꿈에 나타난 숙영은 자신이 선군과 천생의 연분임을 알리어 둘은 부부의 연을 맺고 자식 둘을 낳고 행복하게 8년의 세월을 보낸다. 그러던 중 부모의 명으로 선군은 과거를 보러 서울로 떠나고 이 사이 숙영은 시비 매월의 간계로 간통의 누명을 쓰고 억울해하다가 자결을 한다. 이후 숙영의 누명이 벗겨지고, 옥황상제의 명으로 숙영이 환생하여 과거에 급제한 선군과 더불어 다복하게 살다가 승천한다.

(나) 오정희, 「전갈」

해제 이 작품은 일상의 권태에서 벗어나려는 40대 부부의 내면을 통해 일상과 결혼의 의미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보여 준다. 요컨대 나날의 삶을 무력하게 하고, 삶의 환상조차 허락하지 않는 근대적 일상과 그러한 일상 속에 놓인 부부의 삶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권태로운 일상에 매몰되어 삶의 활력을 잃어버린 현실에 대한 반성적 성찰

전체 줄거리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아들 둘을 두고 무난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40대 부부이다. 그렇게 무난하게 일상을 영위하던 어느 날, 남편은 승진을 전제로 한 아프리카 오지 근무를 자원한다. 이를 두고 그녀는 남편이 자신과 같이 그동안의 권태로운 일상에 지쳐 떠난 것이라 생각한다. 이후 1년간의 오지 근무를 마치고 남편이 귀국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는데, 그녀는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심경에 휩싸인다.

30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가)의 “다만 죽어 모르고자 합니다.”라는 서술 내용을 보면

숙영은 자신의 정절을 죽음으로 입증하고자 함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시아버지 백 공이 크게 의심을 품고 침소로 돌아왔다.’라는 서술 내용을 보면, 시아버지인 백 공은 숙영에 대한 의심을 풀고 자신의 침소로 돌아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② (가)의 “닥쳐라! 내 귀로 직접 듣고 내 눈으로 직접 본 일인데, 네가 끝끝내 나를 속이려고 하니 어찌 통해치 아니하라.”라는 서술 내용을 보면, 숙영의 생각과 달리 시아버지인 백 공은 숙영의 방을 찾은 남자가 아들인 선군임을 알지 못하고 화를 내고 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 ③ (가)의 “이러다가 천금 귀체가 객중에서 병을 얻으면 어찌스럽니까?”라는 서술 내용을 보면, 숙영은 정희에 연연하여 선군이 자신의 ‘귀체’, 곧 자신의 ‘신변’을 돌보지 않아 탈이 날 것을 염려하고 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 ④ (가)의 “이런 더러운 말씀을 들으면서도 영천수가 떨어져 귀를 씻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습니다.”라는 서술 내용을 보면, 숙영은 자신이 누명을 쓰게 된 사실을 분해하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누명을 쓴 것은 아님을 미루어 알 수 있다.

31 작품의 맥락 이해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가)의 ‘숙영이 옆에 있는 듯하되 보이는 듯 보이지 않고, 소리가 들리는 듯하되 귀를 기울이면 들리지 않았다.’라는 서술 내용을 보면, 선군은 과거 시험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숙영과의 헤어짐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가)의 ‘결국 울적한 정희를 금하지 못해서 또다시 표연히 집으로 돌아와 몰래 숙영의 방으로 들어가니’라는 서술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선군이 재차 숙영의 방을 찾는 행위에서 숙영에 대한 그리운 마음 때문에 어찌할 바 모르는 선군의 심리를 짐작할 수 있다.
- ③ (가)의 “이런 더러운 말씀을 들으면서도 영천수가 떨어져 귀를 씻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습니다.”라는 서술 내용을 보면, 억울한 누명을 쓴 숙영의 한스러운 심정을 짐작할 수 있다.
- ④ (나)의 서술 내용을 보면, 여자는 남편이 없는 현실을 ‘쓸쓸’하다고 표현하고, 여자의 감정이 ‘그것은 거짓이 아니었다.’라고 서술된 것으로 보아, 여자는 남편이 부재하는 현실에서 쓸쓸함을 느끼고 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 ⑤ ‘그러는 동안 마음의 외로움이나 불안은 조금씩 스러졌다.’라는 서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여자는 일상에서 겪는 내면의 외로움이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의 빈 광장’을 돌아다닌다. 이로 볼 때, 여자가 ‘아파트의 빈 광장’을 돌아다니는 행위는 일상에서 겪게 된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32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A]의 ‘그러나 숙영과의 이별이 슬퍼서 한 걸음에 돌아서고 두 걸음에 돌아보며 연연한 정을 금하지 못하므로’라는 서술 내용을 보면 선군이 이별에 연연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난다. 그리고 [B]의 “그러니 낭군은 제게 연연하지 마시고 ~ 과거를 보아 부모님이 바라시는 바를 저버리지 마시고”라는 서술 내용을 보면 남편인 선군이 과거를 보아 부모의 바람을 이루는 것이 자신과 다시 재회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길임을 상기시켜 선군의 마음을 돌리려는 숙영의 사려 깊은 행위가 드러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의 ‘숙영도 중문 밖까지 나와서 먼 길에 몸조심하라고 재삼 당부하면서 슬픔을 금치 못하였다.’라는 서술 내용을 보면 선군과의 이별로 인한 숙영의 슬픈 마음이 드러나지만, [B]의 “낭군은 전후 사리를 현명하게 헤아려서 속히 상경하십시오.”라는 서술 내용을 보면 숙영은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군에게 냉정하게 현실을 인식할 것임을 요구하고 있다.
- ② [B]의 “제가 화를 당할 것은 뻔하니”라는 서술 내용을 보면 숙영은 선군의 행위가 자신에게 미칠 영향을 경계하고 있지만, [A]의 숙영에게서는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
- ③ [A]의 ‘주막에 들러서 저녁상을 받고도 오직 숙영 생각만 간절해서 음식을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하여’라는 서술 내용을 보면 선군은 숙영과의 이별에 여전히 연연해하고 있다. [B]의 “생각건대 낭군께서 ~ 속히 상경하십시오.”라는 서술 내용을 보면 숙영이 주어진 상황을 현명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단호한 결단을 내리고 있다.
- ④ [A]의 “식사를 그렇게 안 하시면, 앞으로 천 리 길을 어떻게 하시렵니까?”라는 서술 내용을 보면 선군은 자신의 안위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숙영만을 생각하고 있다. 이에 비해, [B]의 “그 사실을 아신다면 결단코 제가 화를 당할 것은 뻔하니”라는 서술 내용을 볼 때, 숙영은 자신의 안위에 관심을 두고 있음이 드러난다.

33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나)의 ‘뚜렷하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서술 내용을 보면, 여자는 남편이 아프리카 오지로 떠난 이후에도 여전히 전과 다르지 않은 일상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로 보면, 남편과의 이별 뒤에도 여자의 일상은 획기적으로 변화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세월의 부피와 경륜이, 시간이 아이들을 자라게 하고 젊은이를 늙게 하듯이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교훈을 그 여자에게 가르쳤으나 그것은 구원도 위안도 되지 못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마흔 살이란, 자기의 시절이 지나고 있다는 초조감과 함께 인생이 그에게 새로운 계기와 자극을 요구하는 나이였지만 또한 무엇을 새로이 시작하기에는 늦은 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서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여자는 자신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늦었지만, 어떤 식으로든 삶의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나이에 이르렀음을 자각하고 있다.
- ④ ‘아마추어엽사인 그는 아프리카의 신생국에 냉장고, 세탁기 따위를 팔러 가면서 말라리아와 독충의 위협보다 분명 더럽혀지지 않은 초지와 밀림, 야생의 동물들을 떠올렸을 것이다.’에서 승진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로도 아프리카 오지 근무를 지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⑤ ‘남편과 떨어져 있게 될 1년간의 시간은 아마 그 여자의 전 생애와 맞먹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고독이 만성적인 권태와 무위한 환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리라는 기대와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3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가)의 ‘동별당’은 선군과 숙영의 자유로운 사랑이 이루어지는 공간임과 동시에 그러한 사랑으로 인하여 두 사람이 위기를 맞는 공간이고, (나)의 ‘남편의 방’은 가족을 위협하는 전갈을 발견하는 공간이란 점에서 두 부부의 사랑이 반성적으로 성찰되는 공간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서 과거 길에 올랐다가 ‘또다시 표연히 집으로 돌아와 몰래 숙영의 방’을 찾은 선군에게 숙영이 ‘놀라고 꾸짖어 말’하는 것에서 선군의 행위가 미숙한 것임을 미루어 알 수 있다.

- ② (가)에서 숙영이 언급하고 있는 ‘육례’에 따라 혼사를 함은 유교 규범에 따라 부모님이 정한 배필과 혼례를 올리는 것이다. 그런데 숙영과 선군의 혼례는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로 볼 때 두 사랑의 애정 성취는 기존의 유교적 결혼 제도로부터 벗어나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 ③ (나)에서 남편은 오지 근무를 자처하고, 여자는 무력감에 휩싸여 있어 두 부부에게 일상 그 자체가 권태인 것으로 보아, 두 부부가 결혼 생활의 위기를 경험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 ④ (나)에서 ‘여자’가 ‘남편과 떨어져 있게 될’ 시간을 자신의 ‘전생애와 맞먹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여자’가 결혼 생활의 의미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5~39] 언어

35 국어의 변천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1문단에서 중세 국어 어두의 ‘ㅁ’은 ‘ㅂ’과 ‘ㅅ’이 각각 발음되는 것을 적은 표기라고 했으므로, [ㅁ] 발음 하나만을 적은 표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1문단에서 중세 국어의 음절 말에서는 현대 국어에 쓰이는 7가지 자음 이외에 ‘ㅅ’도 발음될 수 있었다고 했으므로 음절 말에서 ‘ㅅ’과 ‘ㄷ’의 발음이 달랐음을 추론할 수 있다.
- ③ 1문단에서 이중 모음의 표기는 두 단모음의 표기를 결합한 것이고 단모음과 이중 모음의 결합인 삼중 모음의 표기 방식도 이중 모음과 같다고 했다. ‘내’와 ‘내’는 글자 모양이 각각 ‘ㄴ + ㅣ + ㅣ’와 ‘ㄴ + ㅣ + ㅣ’이므로 삼중 모음이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 ④ 2문단에서 중세 국어에 없었던 구개음화 현상이 근대 국어 시기에 광범위하게 나타났다고 했으므로, 중세 국어에서 ‘발 + 이’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아 ‘바티[바티]’로 발음되었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 ⑤ 2문단에서 현대 국어 단어들의 형태소 내부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근대 국어 시기까지 그 단어들의 ‘ㄷ, ㅌ’ 뒤에 오는 모음이 ‘ㅣ’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현대 국어의 ‘잔디’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잔디’의 ‘ㅣ’가 근대 국어 시기에는 ‘ㅣ’가 아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참고로, ‘잔디’는 형태소 내부에서도 구개음화가 일어나던 근대 국어 시기에 ‘잔디’가 아닌 ‘잔디’였고 형태소 내부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현상이 끝난 이후에 ‘잔디’로 바뀌었다. 따라서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36 근대 국어의 특징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ㅁ’은 양순음이고 ‘ㄴ’은 평순 모음, ‘ㄴ’은 원순 모음이므로 이 변화는 ㉠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양순음 ‘ㅍ’이 연구개음 ‘ㄱ’으로 변한 것은 ㉠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중세 국어에 존재했던 ‘ㅅ’이 소멸한 것은 ㉠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구개음인 ‘ㅈ’ 아래에서 평순 모음인 ‘ㅏ’가 평순 모음인 ‘ㅣ’로 변한 것은 ㉠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ㄱ’가 ‘ㄴ’로 변한 것은 평순 모음이 원순 모음으로 변한 것이다. 그러나 그 변화가 양순음이 아니라 치조음 ‘ㄴ’ 아래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37 부정 표현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단지 많이 먹는 상황에서도 배가 부르지 않다는 단순한 사실만을 전달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의 ‘안 부정문’은 의지 부정이 아닌 단순 부정 또는 중립 부정으로 보아야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은 단순히 태풍이 오지 않았다는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문장이다. 이를 단순 부정 또는 중립 부정이라고 한다.
- ③ ㉢은 이 문장의 발화자가 기대하는 수준(살림이 넉넉함)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을 나타내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서술어가 형용사일 때 ‘못 부정문’은 대개 사용할 수 없으나 이러한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못 부정문’을 긴 부정문인 ‘-지 못하다’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 ④ ㉣은 ‘못 부정문’이 주체의 능력이 부족하여 어떤 행위를 할 수 없었음을 나타내는 문장이다. 형이 시간 내에 문제를 풀기에는 능력이 부족했음을 나타낸다.
- ⑤ ㉤은 주체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외부의 상황 때문에 주체가 어떤 행위를 하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문장이다. 점심을 먹지 못하고 돌아온 것은 식당이 문을 닫은 상황 때문이지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38 품사의 분류 기준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그가 제시간에 도착했다는 지를 모르겠다.’에서 ‘-는지’는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 의미로 쓰였으므로 ‘도착했는지’와 같이 붙여 써야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그를 만난 지도 꽤 오래되었다.’에서 의존 명사 ‘지’는 ‘(그를) 만난’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말로 쓰였으므로 ‘만난 지도’와 같이 띄어 써야 한다.
- ② ‘벌써 집 떠난 지가 삼 년이 지났다.’에서 의존 명사 ‘지’는 ‘(집) 떠난’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말로 쓰였으므로 ‘떠난 지가’와 같이 띄어 써야 한다.
- ④ ‘강아지가 집을 나간 지 한참 후에 돌아왔다.’에서 의존 명사 ‘지’는 ‘(집을) 나간’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말

로 쓰였으므로 ‘나간 지’와 같이 띄어 써야 한다.

- 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지도 이미 하루가 지났다.’에서 의존 명사 ‘지’는 ‘(지켜보고)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말로 쓰였으므로 ‘있는 지도’와 같이 띄어 써야 한다.

39 중세 국어의 문법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이 쓰인 것은 문장의 객체인 목적어 ‘세존’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용왕’은 문장의 주체이다. 따라서 객체인 ‘용왕’을 높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쓰인 것은 문장의 주체인 주어 ‘태자’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주체인 ‘태자’를 높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②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으시-’가 쓰인 것은 문장의 주어인 ‘(부처의) 눈’을 높여 ‘부처’를 간접적으로 높이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주체인 ‘부처’의 신체를 높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③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이 쓰인 것은 문장의 객체인 목적어 ‘스승’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객체인 ‘스승’을 높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⑤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이 쓰인 것은 문장의 객체인 부사어 ‘부처’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객체인 ‘부처’를 높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40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종이 신문도 기사의 주요 정보를 사진이나 도표, 그래프 등의 시각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표제와 부제를 통해 본문의 내용을 예상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관련 뉴스’에 현재 읽고 있는 기사와 관련된 다른 기사가 제시되어 있어 추가로 기사를 읽을 수 있다.
- ② 기사 본문의 하단에 있는 댓글 기능을 이용하여 기사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적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읽고 이와 관련된 자신의 의견을 적을 수 있다.
- ③ 기사 제목 상단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여, 기사 내용을 인쇄할 수 있고 기사가 게시된 곳으로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다.
- ⑤ “2019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클릭)과 같이 하이퍼링크 기능을 통해 기사와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41 매체 자료 수용의 관점과 가치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가)와 <보기>는 동일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기사이다. 하지만 (가)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특히 유아동 위험군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는 분석을 한 반면, <보기>는 유아동과 성인, 60대에서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보기>를 통해 기사 생산자에 따라 같은 현상을 다르게 분석할 수 있으므로 생산자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가)는 ‘유아동을 대상으로 체험형 예방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보기>는 예방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을 뿐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 ③ (가)와 <보기>는 왜곡된 방식으로 정보를 해석하고 있지 않다.
- ④, ⑤ (가)와 <보기>는 인터넷 신문이라는 점에서 매체의 유형이 동일하다.

42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나)는 스마트폰이 새끼줄에 묶여 있는 시각 자료와 ‘밥 한

번, 스마트폰 한 번?’이라는 제목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자린고비 설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나)가 수용자의 배경지식에 기대어 스마트폰 사용을 줄일 것을 설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가)와 (나)는 모두 시각 자료가 나타내는 바가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판단하며 읽는 것이 중요하다.
- ③ (나)와 달리 (가)는 기사 본문의 ‘우리 사회의 ~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에 언급된 문구를 제목으로 활용하여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늘어난 문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④ (가)와 달리 (나)는 ‘스마트폰 사용만큼은 구두쇠가 되어도 좋습니다.’와 같이 비유적 표현의 문구를 활용하여 정보에 집중하게 하고 있다.
- ⑤ (가)와 달리 (나)는 ‘당신도 스마트폰을 보고 있지는 않나요?’와 같이 수용자를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자는 생산자의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43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의문문은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한 질문을 목적으로 하는 종결 표현이다. ㉠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묻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의도를 드러낸 간접 발화이다. 그러나 타지 사람이 길을 몰라 광화문까지 어떻게 가는지 묻는 것은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이므로 직접 발화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대화에서 ‘이런 문제를 누가 못 풀겠어?’라는 의문문은 문제를 누가 못 풀 것인지를 알기 위해 질문하는 발화가 아니라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발화로서 수사 의문문에 해당한다.
- ② ‘아이가 도대체 몇 살이에요?’라고 묻는 것은 아이의 나이를 알기 위해 질문하는 발화라기보다는 아이를 조용히 하도록 제지해 달라는 요청 발화에 해당한다. 정말 나이를 알기 위해 묻는 질문이라면 이 상황 맥락에서 ‘도대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어렵다. A의 의도가 잘 전달되어 아이의 어머니가 사과했기 때문에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 ③ ‘-자’는 청유형의 어미이다. 청유형은 화자와 청자가 어떤 행위를 함께하기를 요구하는 종결 표현인데, 이 문장에서는 아들이 할 행위인 ‘참다’를 청유문으로 표현했으므로 간접 발화이다. 직접 발화라면 ‘조금만 더 참아.’와 같은 명령문을 사용했을 것이다.

- ⑤ 평서문은 어떤 사실을 진술하는 종결 표현이다. 그런데 빨래를 널었는데 비가 갑자기 오는 상황에서 A의 발화를 들은 B가 빨래를 걷겠다고 하는 것에서, A의 발화는 비가 온다는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빨래를 걷으라는 요청의 의도를 지닌 발화임을 알 수 있다.

[44~45] 매체

44 매체 언어의 복합 양식성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광고에서 펼쳐지는 상황의 시간적 흐름은 순행적으로 구성되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장면 ②와 장면 ⑥을 통해 대조가 되는 장면이 배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광고 전반부에서 호랑이가 모녀에게 달려드는 상황은 작은 반려동물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공포일 수 있다는 의미가 후반부에서 밝혀지고 있다.
 ③ 긴장감이 느껴지는 배경 음악과 여러 소리 등의 음향의 사용, 호랑이에서 강아지로 변하는 장면을 교차 편집하는 시각적 효과가 광고에 복합적으로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장면 ⑧을 통해 반려동물과 외출 시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 반려동물에게 목줄을 채워야 함을 알리는 것이 광고의 목적임을 알 수 있다.

45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공익 광고와 <보기>에는 겁에 질린 모녀의 시선에 비친 장면인 호랑이의 모습이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이것 외에 겁에 질린 모녀의 시선에 비친 장면이 공익 광고에 더 추가되는 않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보기>의 장면 ①과 장면 ③에 사용된 배경 음악에는 변화가 없으나 공익 광고의 장면 ④에는 장면 ①에 사용된 배경 음악보다 긴장감이 더욱 고조된 배경 음악이 사용되었다.
 ③ 강아지가 귀엽게 짖는 소리가 <보기>에는 없으나 공익 광고의 장면 ⑥에는 추가되었다.
 ④ <보기>와 달리 공익 광고의 장면 ⑦에는 ‘우리 개는 순한데…….’라는 대사가 소리로 추가되어 반려동물에 대한 입장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지 못하는 남자의 태도를 드러내었다.
 ⑤ <보기>에는 내레이션이 자막으로 화면에 제시되지 않았으나, 공익 광고에는 자막으로 화면에 제시되었다. 또한 장면 ⑧과 같이 공익 광고의 주제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내레이션이 수정되었다.

01 ③	02 ⑤	03 ④	04 ②	05 ①
06 ②	07 ⑤	08 ⑤	09 ④	10 ①
11 ⑤	12 ③	13 ②	14 ④	15 ⑤
16 ③	17 ③	18 ①	19 ①	20 ⑤
21 ①	22 ③	23 ④	24 ④	25 ③
26 ②	27 ④	28 ④	29 ⑤	30 ①
31 ③	32 ⑤	33 ⑤	34 ④	35 ②
36 ①	37 ③	38 ②	39 ⑤	40 ⑤
41 ⑤	42 ③	43 ⑤	44 ④	45 ③

[01~05] 현대시+고전 수필

(가)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해제 이 작품은 슬픔에 대한 성찰과 이기적인 삶에 대한 반성,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는 슬픔이 필요하다는 역설적 인식을 노래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기쁨'은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한 존재이고, '슬픔'은 소외된 사람을 돌보고 사랑하는 존재로 제시되는데, 이를 통해 자신의 행복이나 기쁨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세태를 비판하고 더불어 사는 삶의 자세를 회복해야 한다고 노래한다.

주제 이기적인 삶에 대한 반성과 이웃에 대한 관심 촉구

구성

- 1~6행: 이기적인 '너'에게 슬픔을 주고자 함.
- 7~14행: 무관심한 '너'에게 기다림을 주고자 함.
- 15~19행: 슬픔의 힘을 이야기하며 '너'와 함께 견고자 함.

(나) 유치환, 「생명의 서·일장」

해제 이 작품은 생명의 본질을 찾기 위한 강인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자신이 현실적으로 지니고 있는 지식이나 감정으로는 생명의 본질을 깨우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인해 허무와 회의감에 빠진 화자는 현실의 자아를 버리고 본질적 자아를 찾기 위해 아라비아 사막으로 떠난다. 아라비아 사막은 일체가 사라진 죽음의 공간으로 화자는 이곳에서 현실의 모든 것을 잊고 본질적인 생명을 찾고자 하며, 만약 찾지 못한다면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고 표현할 만큼 결연한 의지를 드러낸다. 자신을 버려야만 참된 자아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나 죽음의 공간에 가셔야 비로소 생명의 본질을 찾을 수 있다는 역설적 관점이 드러난다.

주제 본질적 자아를 갈구하는 결연한 의지

구성

- 1연: 삶의 본질에 대한 회의(懷疑)
- 2연: 죽음과 고뇌뿐인 열사의 사막
- 3연: 생명의 본질과 본질적 자아를 찾겠다는 의지

(다) 정약용, 「수오재기」

해제 이 작품은 전통적인 한문 문학 양식인 '기(記)'로, 글쓴이의 큰형님이 '수오재'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사연을 적고, '나'를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이를 통해 삶의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다. 글쓴이는 '나'를 현실적 자아와 본질적 자아로 구분한 후 간직하고 지켜야 할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미혹에 빠진 것에 대한 후회를 드러내면서 본질적인 자아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다.

주제 본질적 자아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

구성

- 기: '수오재'라는 이름에 대한 의문
- 승: '나'를 지켜야 하는 이유
- 전: 본질적 자아를 소홀히 한 삶에 대한 반성
- 결: '수오재기'를 쓰게 된 내력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에서는 '주겠다', '멈추겠다', '견겠다', '걸어가겠다'와 같이 의지를 드러내는 어미 '-겠-'을 사용하여 타인을 외면하는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쫓이리라'와 같이 의지를 드러내는 어미 '-리-'를 사용하여 생명의 본질을 찾지 못하는 부정적인 현실을 바꾸지 못하면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서는 '함박눈'과 같이 색채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시어가 제시되지만 다른 색채와 대비되는 부분은 없으며, (나)에서는 '백일'이라는 시어에서 색채가 제시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를 다른 색채와 대비하고 있지는 않다.
- ② (가)에서는 '함박눈'이나 '봄눈'과 같은 계절을 나타내는 시어들이 나오지만 이에 따라 화자의 태도가 변화하고 있지는 않다. (나)에는 계절의 변화를 드러내는 시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 ④ (가)에서는 '슬픔'이나 '기쁨'과 같은 추상적 개념을 의인화하고 이를 화자와 청자로 설정하여 이기적인 삶에 대한 반성을 가져오겠다는 화자의 내면이 드러나지만, (나)에서는 의인화된 대상을 청자로 설정하지 않았다.
- ⑤ (가)와 (나)에는 모두 설의적 표현을 사용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02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함박눈'이 이기적인 사람들에게는 즐거움과 기쁨일 수 있지

만 소외당한 힘든 이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나’는 ‘이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을 멈추고’ ‘추워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추워 떠는’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공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쁨을 ‘함박눈’으로 표현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는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고 선언하며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던 ‘너’에게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고 이야기한다. 이것은 이기적이고 타인을 배려할 줄 몰랐던 사람들에게 소외당한 자들의 슬픔에 공감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가라는 선언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기적인 삶을 공감과 배려의 삶으로 변화시키고자 함을 알 수 있다.
- ② ‘나’는 ‘어둠 속에서 자신을 부를 때에도 무심했고, ‘할머니’나 ‘동사자’와 같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무관심하고 자신만의 기쁨을 추구했던 ‘너’를 비판하고 있다.
- ③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고 이야기한다. 그 기다림은 무관심하고 이기적이었던 ‘너’가 깨달음을 얻고 변화할 때까지, ‘기다림의 슬픔까지’ 함께 걸어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너’에게 ‘기다림’을 주어 ‘너’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 ④ ‘너’는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 굴값을 깎으면서’ 기쁨을 느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너’에게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고 하며 미처 알지 못했던 ‘할머니’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다)의 ‘수오재’라는 이름에 대한 탐구는 ‘몸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크다.’라는 맹자의 통념을 부정한 것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랑을 선호하고 슬픔은 피하고 싶은 감정이라는 통념을 부정한 것으로 이러한 통념의 부정은 낯섦을 준다고 <보기>에서 설명했다.
- ② ‘무관심한 너의 사랑’은 ‘무관심’이라는 부정적 태도와 ‘사랑’이라는 긍정적 정서 사이에 존재하는 의미 사이의 거리감을 상상력을 발휘하여 이기적인 사랑만을 하는 ‘기쁨’에 대한 비판을 담은 역설적 의미를 생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부정적 정서인 ‘슬픔’이 무언가를 변화시키는 동력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슬픔의 힘’에 어떤 힘이 담겨 있는지를 성찰하게 한다. 그리고 슬픔이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하는 기쁨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새로운 깨달음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역설적 의미를 담음과 동시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함으로써 삶에 대한 진정한 인식을 촉구한다.
- ⑤ ‘나와 굳게 맺어져 있어 서로 떨어질 수 없’기에 지킬 필요가 없다는 ‘나’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 ‘나’와 ‘천하 만물’에 대한 글쓴이의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나’는 ‘지켜야 할 것’으로 변화된다. 이러한 변화는 글쓴이가 본질적 자아를 잃고 흐트러져 가는 자신을 바른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본질적 자아에 해당하는 ‘나’만은 반드시 찾아 지켜야 한다는 창의적인 의미를 생성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는 독자에게 삶에 대한 성찰을 유도할 수 있게 된다.

04 구절의 의미 이해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은 화자가 본질적 자아를 찾기 위해 떠나게 된 ‘아라비아 사막’으로, 고행을 통해 생명의 본질을 깨닫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공간이다. 따라서 화자가 시련과 고난으로부터 벗어난 공간이 아닌 시련과 고난을 극한으로 경험하고 있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은 삶의 허무에 빠져 있는 화자가 생명의 본질을 깨닫기 위해 가는 시련의 공간으로 볼 수 있다.
- ③ ㉢은 화자가 ‘아라비아 사막’이라는 고독의 공간에서 본질적 자아를 찾기 위해 고행을 할 때 운명처럼 대면하여 화자에게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보여 줄 존재이다.
- ④ ㉣은 달아나기를 잘하고 쉽게 떠나가는 특징을 지닌 본질적 자아에게 꼭 지켜야만 하는 대상이다.
- ⑤ ㉤은 글쓴이가 미친 듯이 바쁜 삶을 사는 것과 연관된 것으로 이런 삶이 이어지다가 귀양을 떠나서야 비로소 ‘나’를 다시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미친 듯이 바쁜 삶을 사는 상황은 지켜야 할 ‘나’를 잃어버린 상태의 삶을 보여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0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빛장과 자물쇠로 잠’그는 것은 ‘나’를 잃지 않기 위해 굳게 지

키는 것이다. <보기>에서 ‘학문의 도’는 ‘단연코 놓쳐 버린 마음을 구하는 데 있다’고 했으므로, ‘빚장과 자물쇠로 잠’그는 행위는 ‘학문의 도’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지, ‘학문의 도’를 등한시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장기’는 글쓴이가 ‘나’를 잃고 귀양을 와 사색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게 된 곳이다. 깨달음을 얻기 전의 글쓴이는 ‘나’를 잃은 상황에 해당하므로, <보기>에서 ‘집주인’이 없어 황폐해진 집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 ③ ‘단정하게 수오재에 앉’아 있는 ‘큰형님’은 ‘나’를 잃은 적이 없는 상태이다. <보기>의 ‘밝게 분변하고 독실히 행’하지 못하는 것은 ‘나’를 잃었을 때의 상황이므로 ‘나’를 잃은 적이 없는 ‘큰형님’은 ‘밝게 분변하고 독실히 행’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 ④ 글쓴이는 ‘조정에 나아가 검은 사모관대에 비단 도포를 입고, 십이 년 동안이나 미친 듯이 대낮에 커다란 길을 뛰어다’닌 삶을 살다가 귀양을 가게 된다. 따라서 글쓴이가 ‘미친 듯이 대낮에 커다란 길을 뛰어다’닌 것은 ‘나’를 잃어버리는 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기>에서 ‘마음이 풀어져 버리면 ‘밝게 분변하고 독실히 행할 수’ 없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나’를 잃어버린 상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 ⑤ 글쓴이가 ‘수오재’의 의미를 깨달은 상황은 ‘나’를 찾은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보기>의 ‘문 앞에 물을 뿌리고 쓸며 집안일을 정돈’하는 ‘집주인’이 집에 있다는 것은 ‘집주인’, 즉 놓쳐 버렸던 마음이 돌아온 것으로 글쓴이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함께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06~10] 인문

(가) ‘헤겔의 변증법과 절대정신’

해제 이 글은 즉자 존재가 대자 존재로 외화되고 이들 간의 분열과 대립을 통해 즉자 대자 존재로 나아가는 과정, 곧 헤겔의 변증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존재는 ‘정립-반정립-종합’의 변증법적 종합을 통해 자기를 인식하고 절대정신에 이르게 된다. 예술은 존재의 이러한 자기실현 과정에서 존재의 자기 부정을 통한 자기 확정을 위한 수단이 된다.

주제 헤겔의 변증법과 절대정신, 예술

구성

- 1문단: 존재의 고양 과정
- 2문단: 변증법적 종합과 자기 인식
- 3문단: 절대정신과 예술

(나) ‘헤겔의 예술 형식론’

해제 이 글은 헤겔이 제시한 세 가지 예술 형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헤겔은 예술이 추구하는 개념과 그것이 표현된 실재가 구현된 양상에 따라 예술 형식을 상징적, 고전적, 낭만적 예술 형식으로 구분한다. 상징적 예술 형식은 개념과 실재가 서로 부적합한 예술로 개념은 아직 구체적이지 않으며 실재는 개념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이다. 고전적 예술 형식은 참된 개념이 그것에 가장 적합한 실재에 담긴 상태로서, 이념상이 완전히 실현되어 예술적 아름다움이 충족된 상태이다. 낭만적 예술 형식은 무한한 개념을 유한한 실재로 표현해야 하는 예술의 한계를 초월하여 개념이 자기 심화를 통해 자신 안에서 실재를 찾은 상태이다.

주제 헤겔의 상징적, 고전적, 낭만적 예술 형식

구성

- 1문단: 헤겔 미학에서 예술 형식의 구분
- 2문단: 상징적 예술 형식
- 3문단: 고전적 예술 형식
- 4문단: 낭만적 예술 형식

06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가)는 즉자 존재의 정신이 외화하여 대자 존재가 되고, 대자 존재와의 대립을 통해 즉자 대자 존재의 절대정신이 고양되는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헤겔의 예술에 대한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개념과 실재 사이의 관계에 따라 헤겔이 제시한 예술 형식을 구분하여 설명함으로써 헤겔의 예술에 대한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가)는 존재의 자기 인식 과정에 대한 설명을 통해, (나)는 개념과 실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통해 헤겔의 예술에 대한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QR코드 앱을 사용해 추가 정보를 확인하세요.

**고난도 · 신유형
수능연계완성 3/4주 특강**

1등급을 향한 고난도 문항집
신유형과 킬러 문항 완벽 대비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는 상징적, 고전적, 낭만적 예술 형식으로 구분하여 헤겔의 미적 개념을 제시하고 있으나, (가)는 헤겔의 미적 개념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지 않다. (가)에는 헤겔의 미적 개념이 존재의 자기실현 또는 절대정신과 관련되어 제시되고 있다.
- ③ (가)와 (나)에 헤겔의 예술관이 성립된 계기는 소개되고 있지 않다.
- ④ (가)는 정신의 자기 심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 정신의 질적 변화를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나)는 형상화된 실재의 양적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다.
- ⑤ (가)는 헤겔의 예술론을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나)는 헤겔의 예술론을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예술 형식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07 세부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예술이 타자의 정신을 고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을 통해 존재는 자기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헤겔의 설명이다. 헤겔에 따르면 정신의 고양은 자기 밖의 그 무엇이 아닌 자기 스스로의 내적 운동에 의해 가능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즉자 존재의 정신은 외화하여 타자가 되는 과정을 통해 자기 인식과 자기실현에 도달함으로써 즉자 대자 존재의 정신인 절대정신으로 완성된다.
- ② 즉자의 정신은 자기 인식을 위해 외화하여 타자가 된 뒤 다시 새로운 정신으로 복귀하는데, 이처럼 새롭게 고양된 정신이 절대정신이다.
- ③ 대자 존재는 즉자 존재로부터 분열된 것으로, 즉자 존재가 타자인 대자 존재와의 대립을 해결하고 자기 인식에 도달할 때 절대정신이 성립된다.
- ④ 절대정신은 즉자 대자 존재의 정신으로, 주관 속에 머물러 있어 자기가 무엇인지 모르는 즉자 존재의 주관적 정신과 객관적인 의식을 통해 자기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대자 존재의 대립과 그러한 대립의 해결을 통해 고양된 정신이다.

08 세부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나)의 1문단을 통해, 이념상은 예술성이 완전히 충족되어 아

름다움이 완전하게 실현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㉔은 개념과 실재의 조화 상태를 초월한 예술 형식일 뿐, ㉔에서도 이념상은 아름다운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의 2문단을 통해, ㉑은 개념이 구체적이지 않고 실재 역시 개념에 적합하지 않은 예술 형식으로, 예술적 아름다움이 완전히 구현되는 이념상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나)의 3문단을 통해, ㉒은 개념과 실재가 일치하여 이념상이 온전히 실현되는 예술 형식이며, 이때의 개념은 그것의 완전한 실재를 형상화하고, 실재는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나)의 4문단을 통해, ㉓은 실재의 유한성으로 인해 개념에 적합한 이념상의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㉓에 나타나는 개념과 실재의 부적합 상태는 정신을 감각적 형상을 통해 충분히 표현할 수 없다는 예술 자체의 한계 때문에 초래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나)의 2~4문단을 통해, ㉑에서는 개념과 실재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㉔에서는 무한한 개념과 유한한 실재의 차이로 인해 개념과 실재의 괴리가 나타나지만, ㉒에서는 이념상이 완전히 실현되어 참된 개념과 완전한 실재의 일치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09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가)의 3문단을 통해, 헤겔은 예술을 절대정신이 외화하여 물질적 매체에 감각적으로 형상화된 것으로 보았다는 점, 절대정신은 예술을 통해 새롭게 고양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나)의 ㉔는 낭만적 예술 형식에서 개념의 무한성이 실재의 유한성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감각적으로 형상화되지 못하고, 개념의 자기 심화를 통해 스스로 표상화되어 나타나는 상태이다. 즉 ㉔는 개념이 실재를 초월한 상태이다. 이를 종합하면, ㉔는 예술을 통해 고양된 절대정신이 더 이상 물질적 매체에 형상화된 예술을 통해서도 고양될 수 없는 상태로서, 절대정신이 고도로 구체화되어 물질적 매체의 형상성을 초월한 상태이다. 이때 절대정신은 물질적 매체가 아닌 자기 심화를 통해 자신 안에서 표상화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절대정신의 무한성이 물질적 매체의 유한성을 초월하지만 이는 감각적으로 형상화될 수 없다. 따라서 낭만적 예술 형식에

서 감각적 형상화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된다.

- ② 개념과 실재가 부적합하지만 절대정신과 그것이 외화하여 형상화된 물질적 매체가 서로 분열되어 대립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절대정신은 물질적 매체를 초월하여 자기 안에서 자기 심화를 통해 표상화된 상태로 나타난다.
- ③ 물질적 매체의 유한성으로 인해 절대정신과 물질적 매체가 더 이상 변증법적 종합을 통해 동일성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이다.
- ⑤ 고양된 절대정신을 형상화할 수 있는 물질적 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절대정신은 자기 심화를 통해 표상화된 예술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표상화된 예술을 통해 절대정신은 새롭게 고양된 정신으로 거듭날 수 있다.

10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구체자란 보편성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주체성과 특수성을 자체 속에 지니고 있다는 <보기>의 서술을 통해, 변증법적 종합에서 보편성이 특수성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성을 지니는 동시에 그 안에 특수성 또한 지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즉자 대자 존재의 정신인 절대정신은 보편성과 동시에 주체성과 특수성을 자체 속에 지니고 있는 구체자가 되어 자기를 완전히 인식할 때 성립한다. 따라서 즉자 존재가 즉자 대자 존재가 되는 과정은 정신이 구체자가 되어 절대정신으로 성립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고전적 예술 형식으로서 고대 그리스 신상은 이념상의 완전한 실재인 인간의 형상으로 표현되었다는 점과 진실한 상태에 있는 신은 그 자체로 구체자이며, 그것을 표현하는 실재도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구체자로서의 신에 대한 개념이 적합하게 표현될 수 있는 감각적 구체자의 사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상징적 예술 형식이 지닌 이중적 결함은 개념의 추상성과 개념과 실재의 불일치 문제인데, 이는 개념이 구체자가 되지 못해 개념과 실재가 상응하지 않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 ⑤ 이념상은 구체성을 매개로 개념과 실재가 완전히 일치하여 예술적 아름다움이 완전히 실현되는 상태이다. 따라서 예술의 아름다움은 구체적인 개념이 구체적인 감각적 실재로 형상화될 때 달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14] 현대 소설+이론

(가) 박완서, 「환각의 나비」

해제 이 작품은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는 문제를 두고 영주와 영탁 남매가 벌이는 갈등과 홀어머니의 아픔이 잔잔하게 드러난 소설이다. 특정 인물인 영주를 초점 화자로 내세워 자신과 함께 삶을 헤쳐 온 어머니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특히 초점 화자인 영주의 시각에 의해 포착된 어머니의 삶과 모성이 삶의 자유를 획득한 '나비'로 비유되며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 소설은 이와 같은 서술 전략을 통해 삶의 자유를 획득한 어머니의 삶과 돌봄의 윤리 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생명 본원적 가치에 대한 존중과 돌봄의 윤리 의식

전체 줄거리

젊어서 남편을 잃고 홀로 힘겹게 세 아이를 키우며 살아온 어머니는 노인이 되어 치매를 앓게 된다. 어머니는 딸인 영주네와 아들인 영탁네를 오가며 자식에게 의탁해 살지만, 옛날에 살았던 허름하고 낡은 '종암동 집'만큼 마음이 편치는 못하다. 결국 어머니는 가출을 하게 되고, '종암동 집'을 닮은 '천개사 포교원'에서 편안하게 안식을 누린다. 어머니가 찾아든 '천개사 포교원'에는 열네 살 때 흥측한 일을 당한 후 무당이 되어 식구들을 먹여 살려 온 마금이, 곧 지금의 '자연' 스님이 살고 있다. 어머니는 부역일이 서툰 자연 스님에게 애정 섞인 타박을 하며 상을 차리는데, 이때 그녀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자식을 거두는 것처럼 자연스럽다. 그런 어머니의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접하게 된 영주는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큰 나비'가 되는 '환'의 세계를 경험하며 어머니에 대한 경외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나) '노년 문학의 성격과 특징'

해제 최근 들어 노년의 삶을 다루는 작품들이 다수 창작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의 작품들은 대체로 노년의 실존적 삶의 문제를 다루며, 가족 구성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반생명적 문화의 폐해를 탐색하고 있다. 특히 초점 화자를 통해 노년의 삶을 재현하는 독특한 서술 전략을 채택하여 노년의 불안과 소외를 더욱 부각하기도 한다.

주제 노년 문학의 성격과 서술 특징

구성

- 1문단: 노년 문학의 등장과 그 성격
- 2문단: 노년 문학의 서술 특성과 그 효과

11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참다못해 영주가 먼저 울케하고 직접 담판을 해서 어머니를 모셔 가도록 했다.'를 보면, 어머니를 모시고 싶은 의사가 없는 영주의 마음이 드러난다. 또한 '느희들이 다시 모셔 가라

고 빌면 모를까'라는 서술 내용에서, 영탁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영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그리고 간 후 함흥차사인 동생을 께뻘하게 여기느라 영주의 심사는 내내 불편했다.'라는 서술 내용에서, 어머니를 모시지 않으려 하는 남동생에 대해 께뻘한 마음을 품고 있는 영주의 심기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강하게 밀어내는 시선으로 집안 식구를 대하기도 했다.'라는 서술 내용에서, 영탁이네로 가기 위해 영주네 집안 식구를 외면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어머니는 하루하루 자신의 의지라는 걸 상실해 갔으니까.'라는 서술 내용에서, 영탁이네로 간 후에도 만족할 만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어머니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어머니는 겉으로는 지능이 퇴화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발달하고 있는지도 몰랐다.'라는 서술 내용에서, '과천'이라는 '완충 지대'를 생각해 낸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의 지능에 대한 영주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2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B]에서는 인물들 사이의 심리적 갈등 양상을 드러내는 장면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A]에서는 어머니를 모시는 문제를 놓고 영주와 영탁 사이의 심리적 갈등 양상을 드러내는 장면을 제시하여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진술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에서는 과거의 사건에 대한 서술이 드러나지만, 인물의 회한은 드러나지 않고, [B]에서는 과거의 사건에 대한 서술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
- ② [A]와 [B] 모두에서 서술자가 인물의 발화 의도를 분석하여 인물의 세계관을 평가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④ [B]에는 승복을 입은 어머니와 스님이 평화롭게 지내는 모습과 천개사 포교원에 대한 묘사는 드러나지만, 현실에 대한 인물의 불만을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드러내는 장면 자체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⑤ [A]에서 어머니를 모시는 문제와 관련하여 영주와 영탁의 내적 갈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한 두 인물의 서로 다른 세계관을 보여 주는 장면은 드러나지 않으며, [B]에는 인물의 과거 경험을 회상을 통해 떠올리는 장면은 있으나 그와 관련한 인물들의 서로 다른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서사는 드러나지 않는다.

13 서술자의 태도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영주의 시선에 의해 영탁 내외와 어머니의 삶의 한 단면이 포착되고 있다는 점에서 초점 화자는 영탁이 아니라 영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어머니를 군더더기 취급하는 것에서 상호 돌봄의 윤리 의식이 상실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영탁이 순수한 마음보다는 아들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모실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점에서 영탁은 가식적인 가부장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인물임을 미루어 알 수 있다.
- ④ 어머니를 밖에 나가지 못하게 외출할 수 없는 옷으로 입혀 놓은 것에서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훼손된 반생명적 행태를 확인할 수 있다.
- ⑤ 영주가 천개사 포교원 스님과 평화롭게 살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에게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에서, 영주가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곧 환상 체험을 통해 완전하게 자유를 획득한 어머니에 대한 경외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옛날 집'은 딸 '영주'에게 '장녀로서 동지로서 어머니와 함께 해 온 수많은 세월'을 환기하는 것과 관련은 되지만, 그 세월의 고통을 환기하는 곳은 아니다. 또한 '옛날 집'은 '천개사 포교원'을 지칭하는 동일한 공간이자 삶의 자유와 친진성을 획득한 어머니를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영주에게 장소 상실을 경험하게 하는 장소가 될 수 없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둔촌동' 역시 어머니에게 마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아니었고, 결국 어머니가 떠난 곳이라는 점에서 어머니에게 안정감을 부여하는 장소가 아니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 ② '과천'은 영탁네의 억압으로부터 일시적으로나마 벗어날 수 있는 완충 지대로 형상화된 장소라는 점에서 어머니가 부여한 가치가 투영된 장소임을 미루어 알 수 있다.
- ③ '그 단지'는 어머니가 선택한 공간이기는 하지만, 결국 마음을 붙이고 '있고 싶'은 곳이 아니라 '탈출'하려는 곳이었다는 점에서 어머니의 애착이 투영된 장소가 될 수 없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 ⑤ '천개사 포교원'은 어머니가 '더할 나위 없이 화해'로운 삶을 누리는 장소이다. 이런 점에서 '천개사 포교원'은 어머니에게 마음의 평화와 안정감을 느끼게 한 장소이다.

[15~20] 사회

‘국소적 공간과 전역적 공간의 의미’

해제 지도는 인간이 공간에 관한 정보를 생산, 축적하고 전달하는 매개물이다. 혹자는 지도가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고 행위를 실천하는 틀로서 인간이 경험하는 공간을 대체하는 것으로 여기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해 인간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공간과 지도에 표현된 공간은 차이가 있다. 국소적 공간이라 부를 수 있는 전자는 특정한 높이의 시점에서 펼쳐지는 삼차원의 모습이고, 전역적 공간이라 부를 수 있는 후자는 특정한 시점에 귀속되지 않으며 평면적으로 존재한다. 지도로 표현된 전역적 공간의 모습은 인간이 실제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인간이 공간의 총체적인 모습을 파악하는 과정의 토대로 작용한다. 나아가 국소와 전역이라는 이중의 현상 방식은 공간에 대한 이해를 넘어 인간이 사회를 이해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

주제 사회를 이해하는 한 방식으로서 국소적 공간과 전역적 공간의 의미

구성

- 1문단: 지도에 표현된 공간 형태
- 2문단: 국소적 공간의 의미와 특징
- 3문단: 전역적 공간의 시점
- 4문단: 전역적 공간의 방향성과 특징
- 5문단: 인간의 공간 인식에서 국소적 공간과 전역적 공간의 관계
- 6문단: 사회를 이해하는 방식으로서의 국소와 전역

15 세부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지도상 임의의 한 점 위에서 내려다보는 무수한 상의 적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은 전역적 공간으로서 지도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는 인간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서 그 눈높이에서 상하좌우로 펼쳐지는 공간의 상인 국소적 공간의 상과 같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국소적 공간은 신체를 기준으로 하여 그 눈높이에서 펼쳐지는 공간으로 신체의 위치나 자세 변화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다.
- ② 조감도의 시점은 상공의 한 점에서 특정 지점을 내려다본 것이지만, 전역적 공간의 시점은 특정 시점을 초월한 것으로서 지도라는 평면 위에 편재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 ③ 전역적 공간이 지닌 방향성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나아가 지도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된 전역적 공간은 그것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동일한 상으로 인식된다.

- ④ 인간은 자신이 위치한 특정 지점의 시선 높이에서 주변에 펼쳐진 공간을 경험하지만, 지도에 표현된 공간은 개별 인간의 신체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전체로서의 공간이다. 지도가 나타내는 공간이 인간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공간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16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이 글에서 지도가 포괄하는 정보의 범위가 확장된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고, 확장 과정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공간에 대한 이해 또는 경험 방식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소재로서 지도의 의미를 제시하며 글을 시작하고 있다.
- ② 일반적으로 지도가 공간을 대신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지도가 나타내는 공간의 형태와 인간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공간의 형태는 차이가 있으며, 지도에 표현된 공간은 인간의 신체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④ 국소적 공간의 방향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리학자 투안의 견해를 제시하여 설득력을 높이고자 했다.
- ⑤ 인간이 공간을 인식하는 방식, 나아가 환경과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으로서 국소와 전역이라는 두 개념의 의미를 대비하며 설명을 전개했다.

17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갑이 사용한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11시 방향’은 을이 현재 서 있는 방향을 고려하여 병원의 위치를 나타낸 말로 국소적 공간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어휘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신체를 중심으로 한 국소적 공간의 방향성은 상대적인 것이기에 타인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서로 좌우, 전후와 같은 어휘를 사용하여 특정 방향을 가리킨다고 해서 그 방향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② 갑은 국소적 공간의 방향성으로 인해 빚어질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 자신이 아닌 을의 기준에서 국소적 공간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어휘를 사용하여 을이 목적지를 찾기 위해 적절히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왔다.
- ④ 을은 약도를 통해 목적지로 가기 위한 방향을 바르게 알 수

있었다. 즉 자신의 눈이 향하고 있는 쪽이 동쪽이라고 말한 것은, 전역적 공간의 방향성과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국소적 공간의 방향성을 중첩시켜 파악한 것이다.

- ⑤ 을은 약국에 다다라서 북쪽으로 가면 되는지를 갑에게 확인하고 있다. 이때 북쪽은 전역적 공간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어휘로, 을은 자신과 갑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전역적 공간의 방향성을 활용하여 가는 길을 정확히 확인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18 글의 의도, 목적 추론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전역적 공간은 인간의 실제 경험 너머에 있다. 하지만 전역적 공간은, 인간이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본래적이고 국소적인 공간보다도 안정된 경험의 토대로 기능한다. 인간이 총체적으로 전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실제 경험하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기 위한 근본이 된다는 점이 역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국소적 공간과 전역적 공간을 내부에 형성된 이미지와 외부에 존재하는 이미지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국소적 공간과 전역적 공간이라는 서로 다른 두 현상 방식을 종합하여 주변 환경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미지를 분리한다는 설명 역시 적절하지 않다.
- ③ 개인이 전역적 공간의 모습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국소적 공간의 상을 종합해야 할 필요는 없다.
- ④ 전역적 공간은 개별 인간이 자의적으로 꾸며 내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 ⑤ 인간은 전역적 공간과 국소적 공간에 대한 개념을 종합하여 주변 환경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19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족보에는 자신의 실제 경험 너머에 있는 세대 및 친족에 대한 정보까지도 가시적으로 도식화되어 제시되어 있다. 그 속에서 우리 가족의 이름을 확인한 것은 자기와 타자에 대한 자리매김의 경험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우주선에 탑승하여 우주 공간에서 본국의 영토를 바라본 우주 주인이 있다고 할 때, 그의 경험을 전역적 공간의 상을 실제

로 경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우주선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기 힘든 넓은 범위의 공간을 눈으로 바라보았더라도 그 시점은 특정한 사람에게 귀속된 것이지 모두에게 보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③ 나이를 중심으로 동호회 모든 구성원의 호칭을 정리한 것은 나이를 기준으로 언어를 통해 동호회라는 비교적 작은 조직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동호회의 구성원을 파악하는 일은 개별 인간의 국소적 경험 너머까지 그 범위가 확장될 필요는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여러 지역의 풍경 사진을 보는 것은 국소적 공간의 상을 확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국소적 공간의 시점을 넘어 총체적으로 전체를 이해하려는 사례로 볼 수 없다.
- ⑤ 간단히 그린 음식 모양은 타자와 공유될 수 있는 상이기는 하나 그것을 국소와 전역이라는 이중의 현상 방식을 통해 총체적으로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0 단어의 의미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어떤 사물을 특징지어 두드러지게 함.’은 ‘부각(浮刻)’의 사전적 의미이다. 제시된 글에서 ㉠의 ‘부가(附加)’는 ‘주된 것에 덧붙임.’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21~24] 고전 시가

송순, 「면양정가」

해제 이 작품은 작가가 고향에 내려와 면양정을 짓고 살면서 창작한 것으로, 아름다운 자연 속에 은거하는 삶의 즐거움과 임금에 대한 은혜를 노래하고 있다. 면양정 주변의 자연 풍경을 근경과 원경으로 그려 내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정경 등을 세밀하게 묘사하면서, 그 속에서 풍류를 누리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결사 부분의 '역군은이샅다'와 같은 관습적 표현을 통해 임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은 형식과 내용에서 정곡인의 「상춘곡」의 영향을 받고, 정철의 「성산별곡」에 영향을 주면서 강호가도의 전통을 이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를 갖는다.

주제 자연 속에서의 풍류와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

구성

- 서사: 제월봉의 형세와 면양정의 모습
- 본사 1: 면양정의 근경과 원경
- 본사 2: 면양정의 계절 변화에 따른 풍경
- 본사 3: 자연에서 즐기는 풍류적 삶
- 결사: 풍류 생활의 만족감과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

21 화자의 태도 및 어조, 정서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술리 너머거니 벗지라 업슬소냐 / 불늬며 특이며 혀이며 이아며 / 온가짓 소리로 취흥을 비야거니'에서 화자가 벗과 어울려 술을 마시면서 풍류를 즐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이 글에서 화자가 자신의 과거를 성찰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③ 결사 부분에서 '이태백'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이는 자신의 풍류 생활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옛사람들이 자연을 즐겼던 방법을 배우려 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④ 이 글에 화자의 빈궁한 생활상은 나타나지 않고, 임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내용도 찾을 수 없다.
 ⑤ 이 글에 화자의 체험은 나타나지만, 인간의 교만한 태도를 비판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2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은 작가가 면양정 주변의 산봉우리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이 끊어지는 듯 이어지고, 숨은 듯하다가 보이고, 멀리 가는 것처럼 하다가 가깝게 남아 있는 느낌을 인상적으로 표현한 것

이다. 면양정 주변의 산봉우리들이 세속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넓고 평평한 바위 위에 소나무와 대나무를 헤치고 정자를 앉혔다는 내용에서 면양정의 입지를, 청학이 천 리를 가려고 두 날개를 벌린 듯하다는 내용에서 면양정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청학의 비상(飛上) 이미지는 높은 차원의 작가의 이상을 투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작가는 자신이 완상하고 있는 정자 앞의 넓으면서도 길고 푸르면서도 흰 시냇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경치를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④ 자연을 즐기느라 바빠 여유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즐길 만한 것이 많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⑤ '강산풍월 거닐리고 내 백 년을 다 누리'는 생활이 이태백의 풍류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호탕정회가 이보다 더할 수 없다고 하며 자신의 풍류 생활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23 감상의 적절성 평가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어적도 흥을 계워 들릴 썩라 브닌다'로 볼 때 어부가 달밤에 피리를 부는 것은 적절하지만, 이는 겨울이 아닌 가을과 관련된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남여를 비야타고 술 아리 구분 길노 / 오며 가며 하는 적의 녹양의 우는 황앵 교태 겨워 흥늬과야'에서 알 수 있다.
 ② '백 척 난간의 긴 조으름 내여 퍼니 / 수면 양풍이야 그칠 줄 모르는가'에서 알 수 있다.
 ③ '황운은 쏘 엇지 만경의 편거지요'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⑤ '경궁요대와 옥해은산이 안저의 버러세라'를 통해 화자가 정자 주변의 눈으로 덮인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4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B]에서 과거와 미래를 대비하여 자연 친화의 주제 의식을 강조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술리 너머거니 벗지라 업슬소냐', '호탕 정회야 이에서 더홀소냐' 등은 의문의 방식으로 화자의 만족감과 자부심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다.

- ② ‘누으락 안즈락 구브락 저즈락 / 읍프락 프롬ㅎ락 노혜로 노 거니’는 눅고, 앓고, 굽히고, 젓히고, 시를 읍고, 휘파람을 불며 즐겁게 노는 화자의 행동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것이다.
- ③ ‘블느며 트이며 혀이며 이이며 / 온가짓 소리로 취흥을 비야 거니’, ‘읍프락 프롬ㅎ락’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니것도 보려 ㅎ고 저것도 드르려코 / ㅂ람도 혀려 ㅎ고 들도 마즈려코’는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자연을 즐기는 화자의 모습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5~30] 기술

‘로봇 저널리즘’

해제 로봇 저널리즘은 인간이 기사를 작성하는 절차를 알고리즘으로 구현한 뒤, 해당 알고리즘이 스스로 기사 작성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중요한 데이터를 선별하며, 기사의 작성 및 구성을 수행하도록 한다.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는 웹 사이트나 소셜 미디어 등의 알려진 출처에서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활용하는 것과 크롤링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다음으로 데이터를 선별하는 단계에서는 주제어 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선별한다. 주제어 분석은 크롤링으로 수집한 텍스트 자료에 포함된 단어들의 빈도에 따라 주제어를 추출하고 이들이 언급되는 빈도에 따라 중요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정리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사를 생산하게 되는데, 기사 작성은 기존 기사들의 패턴을 분석하여 만든 정형화된 논리 구조에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해서 기사를 생산하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이다. 현재 수준에서 로봇 저널리즘을 통한 기사의 생성은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작업이 아닌 기존 기사의 형식 구조를 모방해서 새로운 정보를 제시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로봇 저널리즘은 짧은 시간에 많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확히 기사를 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기사 작성보다 뛰어난 효율성을 보여 준다. 또한 로봇 저널리즘은 독자의 관심사뿐만 아니라 독자가 기사를 읽는 시간, 장소 등 상황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제 로봇 저널리즘의 개념과 로봇 저널리즘의 기사 작성 과정 구성

- 1문단: 로봇 저널리즘의 개념
- 2문단: 로봇 저널리즘의 데이터 수집
- 3문단: 주제어 분석을 통한 데이터 분석 방법
- 4문단: 로봇 저널리즘의 기사 작성 원리와 한계
- 5문단: 로봇 저널리즘의 장점과 전망

25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로봇 저널리즘과 관련된 주요 용어인 ‘로봇’, ‘크롤링’, ‘주제어 분석’ 등의 의미를 설명하며 로봇 저널리즘의 기사 생성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로봇 저널리즘의 탄생 배경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로봇 저널리즘의 발전 과정 역시 이 글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 ② 4문단에서 로봇 저널리즘의 기사 생산 과정에서의 한계를 제



QR코드 앱을 사용해 추가 정보를 확인하세요.

수능특강 연계 기술

수능특강 지문과 유사도가 높은 기출문제로
2022학년도 수능을 예측한다

시하고 있으나, 로봇 저널리즘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대조하고 있지는 않다.

- ④ 로봇 저널리즘과 일반 저널리즘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있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⑤ 로봇 저널리즘의 절차와 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로봇 저널리즘이 활용되고 있는 양상을 유형화하여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

26 세부 내용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2문단에서 API는 데이터를 수집하려는 웹 사이트에서 제공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신속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다고 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2문단에서 로봇 저널리즘의 데이터 수집은 크롤링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고 했다. 그리고 크롤링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류하는 것을 뜻하며, 주로 인터넷상의 웹 페이지를 수집해서 분류하고 저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 ③ 3문단에서 현재 로봇 저널리즘은 기술적 한계로 데이터를 해석하는 규칙 부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스포츠 경기, 주가 변동, 기상 예보 등의 데이터 분석에 그치고 있다고 했다.
- ④ 3문단에서 주제어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의미 있는 기사를 자동으로 생산하는 연구는 현재 인공 지능 기술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 ⑤ 1문단에서 로봇 저널리즘은 인간이 기사를 작성하는 절차를 알고리즘으로 구현한 뒤, 해당 알고리즘이 스스로 기사 작성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중요한 데이터를 선별하며, 기사의 작성 및 구성을 수행하도록 한다고 했다.

27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문서 ㉗에서 'car'와 문서 ㉜에서 'friend'의 TF 값은 각각 2, 2이다. DF 값의 역수가 문서 집합에 포함된 전체 문서의 수를 특정 단어를 포함한 문서의 수로 나눈 값인 IDF가 되므로, DF는 특정 단어가 출현한 문서의 수를 문서 집합에 포함된 전체 문서의 수로 나눈 값이라 할 수 있다. ㉗와 ㉜ 두 문서 집합 내에서 'car'는 ㉗의 문서에만, 'friend'는 ㉜의 문서에만 나타나므로, 문서 ㉗에서 'car'와 문서 ㉜에서 'friend'의 DF 값은 모두 1/2이다. 따라서 문서 ㉗에서 'car'와 문서 ㉜에서 'friend'의 TF 값은 모두 각각의 DF 값보다 큰 값을 갖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문서 ㉗에서 'car'의 TF 값은 2이다. IDF는 DF 값의 역수로, 문서 집합에 포함된 전체 문서의 수를 특정 단어를 포함한 문서의 수로 나눈 값이다. 전체 문서의 수는 2이며, 'car'를 포함한 문서의 수는 1이다. 따라서 문서 ㉗에서 'car'의 IDF 값은 2이다.
- ② 전체 문서의 수는 2, 'a'와 'is'를 포함한 문서의 수도 2이므로, 문서 ㉜에서 'a'와 'is'의 IDF는 1의 값을 가진다. 하지만 문서 ㉜에서 'a'와 'is'를 제외한 나머지 단어들은 문서 ㉜에만 나타나므로 'a'와 'is'를 제외한 나머지 단어들의 IDF는 2의 값을 가진다.
- ③ 문서 ㉜에서 'a'와 'friend'의 TF 값은 2로 동일하다. 이로 보아 'a'와 'friend'의 중요도를 TF 값으로 판단할 때, 두 단어는 동일한 중요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DF는 특정 단어가 문서 집합 내에서 얼마나 공통적으로 출현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다. 'a'와 'is'만 문서 ㉗와 문서 ㉜에서 동시에 나타나므로 'a'와 'is'의 DF 값이 가장 높다.

28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로봇 저널리즘은 ㉗에서 API 또는 크롤링을 활용해 웹 사이트나 소셜 미디어 등 알려진 출처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㉜에서 주제어 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의 중요도를 판별한다. ㉗과 ㉜에서 기존 기사들의 패턴을 분석하여 정형화된 기사 형식을 도출해 내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2문단에서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은 웹 사이트나 소셜 미디어 등의 알려진 출처에서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했다.
- ② 3문단에서 데이터 내에 담겨 있는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중요도를 판별한다고 했다.
- ③ 4문단에서 로봇 저널리즘이 자동으로 기사를 생산하는 알고리즘은 기존 기사들의 패턴을 분석하여 만든 정형화된 논리 구조에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해서 기사를 생산하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라고 했다. 따라서 기사 생성을 위해서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양한 기사 형식을 미리 만들어 두어야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하여 기사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 ⑤ 4문단에서 지금까지의 로봇 저널리즘의 경우 형식 구조를 모방하기 어려운 비정기적이고 예측이 불가능한 사건 및 이슈 발생과 관련한 기사를 작성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29 세부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4문단에서 로봇 저널리즘이 형식 구조를 모방하기 어려운 예 측이 불가능한 사건 및 이슈 발생과 관련한 기사를 작성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5문단에서 앞으로의 로봇 저널리즘은 독자의 관심사뿐만 아니라 독자가 기사를 읽는 시간, 장소 등 상황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1문단에서 로봇 저널리즘은 알고리즘에 따라 로봇이 자동으로 데이터 수집, 선별, 기사 작성까지 수행한다고 했다.
- ② 5문단에서 로봇 저널리즘은 짧은 시간에 많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확히 기사를 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기사 작성보다 뛰어난 효율성을 보여 준다고 했다.
- ③ 5문단에서 로봇 저널리즘은 전적으로 데이터에 기반하여 기사를 작성한다고 했다. 또한 로봇 저널리즘은 데이터 수집과 선별, 분석, 기사 작성의 과정이 모두 알고리즘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자 개인의 주관적 의견이 개입되는 부분은 최소화된다고 볼 수 있다.
- ④ 2문단에서 로봇 저널리즘이 데이터 수집 시에 공개된 API를 사용할 경우에는 데이터 사용에 따른 법적·윤리적 문제 발생의 소지가 적다고 했다. 하지만 크롤링을 통해 데이터를 모으거나 공개된 API를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및 개인의 권리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30 단어의 의미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의 '이르다'는 '어떤 정도나 범위에 미치다.'의 의미이다.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①의 '이르다'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의 '뜻하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다.'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②의 '뜻하다'는 '무엇을 할 마음을 먹다.'의 의미이다.
- ③ ㉢의 '모으다'는 '특별한 물건을 구하여 갖추어 가지다.'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③의 '모으다'는 '숨을 한껏 들이마시다.'의 의미이다.
- ④ ㉣의 '담기다'는 '어떤 내용이나 사상이 그림, 글, 말, 표정 따위 속에 포함되거나 반영되다.'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④의 '담기다'는 '어떤 물건이 그릇 따위에 넣어지다.'의 의미이다.
- ⑤ ㉤의 '나타나다'는 '어떤 일의 결과나 징후를 겉으로 드러내다.'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⑤의 '나타나다'는 '내면적인 심리 현상을 얼굴, 몸, 행동 따위로 드러내다.'의 의미이다.

[31~34] 고전 소설

작자 미상, 「토끼전」

해제 이 작품은 고전 소설 「토끼전」의 이본으로, 내용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결말부인 토끼의 육지 귀환 이후 새로운 이야기가 창작, 부가되어 있다는 점이다. 옥황상제를 등장시켜 토끼의 입장을 두둔하게 하는 판결을 내리는 서사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의 성장한 서민 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주제 목숨을 잃을 뻔한 토끼를 구해 주는 옥황상제의 판결

전체 줄거리

동해 용왕 광연은 불치병을 앓게 되고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토끼의 간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된다. 이에 자라를 보내 속임수로 토끼를 용궁으로 데려오나 토끼는 기지를 발휘하여 육지로 도망친다. 토끼가 육지로 귀환한 이후 토끼를 놓친 용왕이 토끼를 잡아 달라고 옥황상제에게 표문을 올리고, 이에 옥황상제는 신선들과 의논한 끝에 용왕과 토끼를 불러 각각의 입장을 밝히게 한다. 옥황상제는 억울하게 목숨을 잃을 뻔한 토끼의 말이 옳다는 판결을 내려 토끼를 고향으로 돌려보낸다.

31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옥황은 일광노 선인의 말을 듣고 표를 올린 용왕과 용궁에서 도망친 토끼를 모두 백옥경으로 소환하라는 명을 내린 것이 지 토끼가 용왕을 속인 것을 잘못이라 생각하여 토끼를 소환한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용왕은 “나의 잘못이로다.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허물하겠는가?”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토끼가 도망을 친 것에 대해 별 주부를 탓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 ② 토끼는 ‘비록 소장의 구변이나 양평의 지혜라도 이보다 낫지 못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기지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적혼공은 “신에게 십만 병력을 주시오면 만수산을 뒤져 토끼를 사로잡아 임금님께 바치겠나이다.”라며 용왕에게 자신의 뜻을 밝히고 있다.
- ⑤ 태을 선인은 토끼를 잡아 용왕의 생명을 구하자는 말을 하고 있는 반면, 일광노 선인은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32 배경의 기능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용왕과 용왕의 신하들에 의해 꾸며진 계책으로 인해 만수산

에 있던 토끼는 백옥경으로 소환되게 된다. 따라서 토끼가 백옥경에서 용궁으로 이동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용왕은 옥황에게 표를 올려 자신의 처지를 헤아려 주기를 기대했으나 옥황은 토끼를 산 채로 돌려보내라는 명을 내리게 된다. 따라서 백옥경은 용왕의 기대가 좌절되는 공간이다.
- ② 일광노 선인은 만수산과 용궁에 각각 그 임금에 그 나라 백성이니 어찌 순종할 리가 있겠느냐고 말하는데, 이를 통해 만수산과 용궁이 각각의 임금에 의해 다스려지는 곳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백옥경을 지배하는 옥황은 만수산과 용궁에 사는 토끼와 용왕을 소환하므로 백옥경을 지배하는 옥황의 영향력이 만수산과 용궁에 모두 미친다고 할 수 있다.
- ③ 토끼와 용왕은 모두 백옥경으로 소환되어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옥황에게 판단을 구하고 있다.
- ④ 만수산에 있는 토끼가 용궁으로 이동하고 용궁에 있는 별주부가 만수산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두 공간은 서로 이동이 가능한 곳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3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동해 용왕이 죽을 지경에 이르러 그 정상이 가련하다는 태을 선인의 말은 토끼의 생명을 희생시켜 용왕의 목숨을 구하자는 말이므로 이는 모든 사람의 생명이 동등하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토끼를 두둔하는 입장에서 올바른 판결을 내려 달라 청하는 일광노 선인의 조언을 받아들여 옥황은 토끼를 산 채로 돌려보내라는 명을 내린다. 따라서 옥황은 올바른 지배 계층에 대한 갈망이 반영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 ② 신분의 귀천과 관련 없이 모든 생명은 사는 것을 좋아하고 죽는 것을 싫어한다고 토끼는 항변을 하는데, 이는 생명의 동등함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서민 의식의 성장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③ 토끼의 생명을 빼앗으려 했던 용왕은 가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옥황에게 표를 올려 토끼로 인해 자신이 죽게 되었다고 하소연하고 있으므로 이는 가해자가 자신을 피해자라 주장하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④ 용왕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토끼의 간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아무런 잘못 없는 토끼를 거짓으로 현혹하여 목숨을 빼앗으려 한다. 이는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무고한 백성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4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A]에서 일광노 선인은 태을 선인의 말에 반대를 표하면서 죄 없는 토끼를 죽이지 말고 토끼의 말을 들을 것을 조언하고 있으며, [B]에서도 일광노 선인은 강자인 용왕의 말을 듣지 말고 약자인 토끼의 청을 들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A]에 나타난 일광노 선인의 생각은 [B]에서도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에서는 ‘~ 순종할 리가 있겠습니까?’, ‘~ 마음이 없겠습니까?’에서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며, [B]에서는 ‘~ 그 원망을 어찌하겠습니까?’에서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 ② [B]에서는 “병든 자를 위하여 죄 없는 자를 죽인다면 그 원망을 어찌하겠습니까?”라고 말하여 근거를 들어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또한 [A]에서도 일광노 선인은 “만수산과 용궁에 각각 그 임금에 그 나라 그 백성이니 어찌 순종할 리가 있겠습니까? 또 대소와 귀천을 막론하고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라고 말하여 근거를 들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하고 있다.
- ③ [A]와 [B]에 모두 토끼가 처한 억울한 상황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A]에서는 토끼와 용왕이 처한 상황이 균형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설명, [B]에서는 용왕을 두둔하는 입장이 제시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⑤ [B]의 “그 원망을 어찌하겠습니까?”에서 미래의 상황을 들어 옥황을 설득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A]에서 현재 상황의 시급함을 들어 옥황을 설득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5~39] 언어

35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없다’가 실질 형태소이므로 ‘값’에서 ‘ㅅ’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일어난 후 ‘ㅂ’만이 뒤 음절로 연음된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웃음’이 실질 형태소이므로 앞말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ㅅ’이 ‘ㄷ’으로 바뀐 후 뒤 음절로 연음된 것이다.
- ③ ‘-히-’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말이기 때문에 연음이 일어날 수 없다. ‘ㅂ’과 ‘ㅎ’이 만나 ‘ㅍ’으로 축약된 예이다.
- ④ ‘이’가 형식 형태소이므로 앞말에 음절이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바로 연음되어야 한다. ‘이’ 앞의 ‘ㅌ’이 연음되면서 ‘이’와 만나 구개음 ‘츠’으로 바뀌었다.
- ⑤ ‘-게’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말이기 때문에 연음이 일어날 수 없다. 앞말의 ‘ㄹ’ 뒤에서 ‘ㄱ’이 ‘ㅇ’으로 바뀐 후 ‘ㄹ’에서 ‘ㄱ’이 탈락된 것이다.

36 문장 성분별 특징 - 부사어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바로’는 명사 ‘전’을 꾸며 준다. 이 경우 부사가 명사를 꾸며 주므로 ‘바로’는 부사어가 아니라 관형어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심하다’는 형용사이지만 어간 ‘심하-’에 부사형 어미 ‘-게’가 붙은 ‘심하게’는 부사어가 된다. 이 문장에서 ‘심하게’는 형용사 ‘덥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이다.
- ③ ‘아주’가 꾸며 주는 말은 관형사 ‘새’이다. ‘아주’는 부사이면서 부사어이다.
- ④ ‘매우’가 꾸며 주는 말은 다른 부사인 ‘빨리’이다. ‘매우’는 부사이면서 부사어이다.
- ⑤ ‘과연’이 꾸며 주는 말은 문장 전체인 ‘그가 이번 시험에 합격할까?’이다. ‘과연’은 부사이면서 부사어이다.

37 높임 표현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 선물을 드리셨어.’에서는 주격 조사 ‘께서’와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문장의 주체를 높이고 있다. 또한 ‘에게’ 대신에 ‘께’를 쓰고, ‘주다’ 대신에 ‘드리다’를 써서 문장의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이 모두 실현된 예로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사장님께서 지금 현장에 계십니다.’에서는 주격 조사 ‘이’ 대신 ‘께서’를 쓰고, ‘있다’ 대신에 ‘계시다’를 써서 문장의 주체인 ‘사장님’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객체 높임은 실현되지 않았다.
- ② ‘동생은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에서는 ‘데리다’ 대신에 ‘모시다’를 써서 문장의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주체 높임은 실현되지 않았다.
- ④ ‘누나는 작은아버지께 궁금한 것을 여쭙었습니다.’에서는 ‘에게’ 대신에 ‘께’를 쓰고, ‘묻다’ 대신에 ‘여쭙다’를 써서 문장의 객체인 ‘작은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주체 높임은 실현되지 않았다.
- ⑤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씀하셨다.’에서는 주격 조사로 ‘이’ 대신 ‘께서’를, ‘말’ 대신 ‘말씀’을 쓰고,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문장의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객체 높임은 실현되지 않았다.

38 높임 표현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선생님, 따님은 잘 지내시지요?’에서는 교장이 동료 교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교사의 딸을 높이는 간접 높임이 실현되었다. 따라서 실제 나이를 고려하여 교장이 동료 교사의 딸을 높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삼촌, 이제 저녁 먹을까?’에서는 오래 같이 산 삼촌과 친밀하고 편한 관계이기 때문에 높여야 할 대상인 삼촌을 높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친밀도를 고려하여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③ ‘회장은 제 질문에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에서는 공적인 상황에서 비록 같은 반 친구 사이이지만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여 상대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사적인 상황에서라면 ‘하십시오체’가 아닌 ‘해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④ ‘학생, 이곳은 어떻게 가지요?’에서는 화자가 비록 나이는 자신보다 어리지만 처음 보는 상대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청자의 나이보다는 자신과 청자와의 친밀도를 고려하여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⑤ ‘여러분, 오늘은 보자기 놀이를 할 거예요.’에서는 수업 시간과 같은 공적인 상황에서 아이들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수업이라는 발화 상황을 고려하여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39 중세 국어의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떡-’의 모음 ‘어’는 음성 모음이므로 ‘떡-’에는 어미 ‘-아’와 ‘-어’ 가운데 음성 모음인 ‘-어’가 결합하여 ‘머거’가 된다. 또한 명사형 어미 ‘-음’과 ‘-음’ 가운데 음성 모음인 ‘-음’과 결합하여 ‘머굽’이 된다. 같은 원리로 ‘-으니’와 ‘-으니’ 가운데 음성 모음인 ‘-으니’와 결합하여 ‘머그니’가 된다. 따라서 ㉠~㉣에 들어갈 형태로는 ‘머거’, ‘머굽’, ‘머그니’가 적절하다.

[40~42] 매체

40 매체 자료의 주체적 수용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가)에는 뉴스에서 다루는 정보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판단하며 읽는 청소년의 비율이 하락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락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떠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3문단에서 종이 신문을 통해 접하는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정보를 제시하고 있고, 메신저를 통해 접하는 뉴스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과 포털을 통해 접하는 뉴스보다 신뢰도가 낮다는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종이 신문을 통해 접하는 뉴스와 메신저를 통해 접하는 뉴스에 대한 신뢰도를 서로 비교한 정보는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의문을 떠올리는 것은 적절하다.
- ② 3문단에서 청소년의 누리 소통망[SNS]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고 포털에서 제공하는 뉴스에 대한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높다는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의문을 떠올리는 것은 적절하다.
- ③ 4문단에서 세 명 중 한 명 정도의 청소년이 뉴스를 선별하여 본 후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한다는 정보를 제시하고 있으나 어떤 식으로 확인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의문을 떠올리는 것은 적절하다.
- ④ 4문단에서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뉴스를 꼼꼼히 따져 보고 분별하며 읽는 청소년의 비율은 높지 않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그 이유에 대한 정보는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의문을 떠올리는 것은 적절하다.

41 뉴 미디어의 특성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학생 1과 학생 2의 기억이 서로 달라 지난 대화 내용을 찾아보는 것이 (나)에는 등장하지 않으므로, 대화 내용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상대와 자신의 기억이 서로 다를 경우 지난 대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휴대 전화 메신저의 특성은 (나)에 활용되지 않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학생 1의 두 번째, 여섯 번째, 마지막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학생 1의 두 번째, 네 번째 발화와 학생 2의 두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학생 1과 학생 2의 각 첫 번째 발화와 마지막 발화를 통해 시

간접 간극을 두고 대화를 주고받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외의 발화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학생 1은 도서관에서, 학생 2는 집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대화 내용이 시간과 함께 기록되어 시간이 흐른 뒤라도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42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학생 2의 다섯 번째 발화를 통해 인용 자료의 출처를 통계 수치가 등장하는 첫 슬라이드에 제시하기로 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출처 표시의 위치는 네 번째 슬라이드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② 학생 2의 세 번째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학생 1의 세 번째 발화와 학생 2의 네 번째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학생 1의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발화와 학생 2의 일곱 번째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43~45] 매체 + 언어

43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소비자를 설문한 내용의 슬라이드인 세 번째, 네 번째 슬라이드에는 두 번째 슬라이드의 '14.6% 증가'와 같이 그래프 항목 간의 차이를 강조하는 문구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통계 수치가 제시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슬라이드 우측 하단에는 정보의 출처가 제시되어 있다.
- ② 첫 번째 슬라이드에 간접 광고의 개념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 ③ 첫 번째 슬라이드에 간접 광고의 개념과 관련하여 TV의 시각 이미지가, 네 번째 슬라이드에 간접 광고 제품 구매 경험과 관련하여 쇼핑 카트 및 식음료, 의류, 휴대폰 등의 시각 이미지가 제시되어 있다.
- ④ 모든 슬라이드의 상단에는 조사 내용을 포괄하는 제목이 배치되어 있다.

44 매체 자료의 주체적 수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5문단에서 매체 생산자는 간접 광고 제품 구매 경험 중 식음료가 1위인 이유는 식음료가 가격이 낮아 지출의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에서 간접 광고의 광고 전략에 대해 비판하려는 매체 생산자의 의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2문단에 간접 광고에 대한 시청자들의 인식 변화는 제시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 ② 3문단에 간접 광고의 산업 규모가 해마다 확대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분석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간접 광고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매체 생산자의 낙관적인 태도를 알 수 있다.
- ③ 6문단에 간접 광고의 순기능만이 언급되고 있으므로 블로그 매체 자료에 담긴 내용에 대해 매체 수용자의 비판적 수용 태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⑤ 3문단에 주로 텔레비전을 통해 간접 광고가 이루어지는 이유에 대한 매체 생산자의 주관적 해석이 제시되어 있다.

45 파생어의 형성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정도일까'는 명사 '정도'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된 '정도이다'의 어간 '정도이-'에 '-르까'가 결합된 것이다. '정도일까'는 명사와 서술격 조사가 결합한 구성이므로 '정도일까'가 형용사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자연스럽게'는 어근 '자연'과 접사 '-스럽다'가 결합된 파생 형용사의 활용형이다. 따라서 '자연스럽게'가 형용사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② '인식되기'는 어근 '인식'과 접사 '-되다'가 결합된 파생 동사의 활용형이다. 따라서 '인식되기'가 동사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④ '분석된다'는 어근 '분석'과 접사 '-되다'가 결합된 파생 동사의 활용형이다. 따라서 '분석된다'가 동사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⑤ '구성한다면'은 어근 '구성'과 접사 '-하다'가 결합된 파생 동사의 활용형이다. 따라서 '구성한다면'이 동사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01 ④	02 ①	03 ②	04 ④	05 ③
06 ①	07 ⑤	08 ③	09 ④	10 ④
11 ①	12 ③	13 ④	14 ②	15 ⑤
16 ④	17 ⑤	18 ④	19 ③	20 ②
21 ③	22 ④	23 ②	24 ⑤	25 ⑤
26 ④	27 ④	28 ③	29 ⑤	30 ③
31 ③	32 ②	33 ⑤	34 ①	35 ②
36 ②	37 ④	38 ③	39 ③	40 ④
41 ③	42 ③	43 ④	44 ①	45 ⑤

[01~05] 이론+고전 소설

(가) '여성 영웅 소설의 다양한 양상'

해제 17세기 이후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라 등장한 여성 영웅 소설 작품들에 담긴 다양한 양상을 다루고 있다. 여성 영웅 소설에서 여성은 환복을 통해 영웅으로 등장하여 영웅으로서의 능력을 전장에서 나타내며 공적인 영역에서 공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하지만, 여성임이 밝혀진 후 다시 여성의 복장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전통적인 여성의 제한된 역할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환복 후에도 여전히 공적인 성취를 인정받거나 오히려 남성과의 우월성 대결이 심화되어 나타나는 작품도 있고, 남성과 협력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천자 등의 주선을 통해 남성 영웅과 혼사를 이룬다는 점에서 공적 영역에서의 성취와 사적 영역에서의 성취를 이룸과 동시에 양성(兩性) 조화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는 작품도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주제 여성 영웅 소설의 다양한 양상과 그에 따른 평가
구성

- 1문단: 여성 영웅 소설의 등장 배경과 여성의 영웅적 능력
- 2문단: 여성 영웅 소설의 다양한 양상과 특징 소개
- 3문단: 여성 영웅 소설에 대한 평가

(나) 작자 미상, 「옥주호연」

해제 이 작품에는 전통적인 유교 사회에서 태어나 학문과 무예에 힘써 입신양명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남성과 달리 규방에서의 예절을 익히는 삶을 강요받는 여성 주인공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기존의 인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성에게 허락된 사적 영역에서 벗어나 남성의 전유물로 인식되는 공적 영역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낸다. 남장을 통해 이 욕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여성 주인공들은 남성 영웅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면서 영웅적 면모를 드러낸다. 비자발적인 환복이나 혼사 등을 이유로 들어 전통적인 여성의 제

한된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으나, 남성 영웅들과 조화를 이루어 공적을 세웠다는 점에서 양성 조화를 드러내며, 그들과 혼사를 이룬다는 점에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에서의 성취를 모두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제 세 자매와 세 형제의 영웅적인 삶

전체 줄거리

최문경은 만년에 우왕으로부터 세 개의 보옥을 받는 꿈을 꾸고 일시에 세 아들을 얻는다. 한편, 유원경이라는 사람도 부처로부터 구슬 세 개를 얻는 꿈을 꾸고서 세 딸을 동시에 얻었는데 공교롭게 그들 남녀는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태어난다. 세 자매는 유원경이 구수로서의 암전한 삶을 강요하자 남장을 하고 가출하였는데, 입산수도를 위해 길을 떠난 최씨 삼 형제와 알게 되어 의형제를 맺는다. 그들은 광련산의 도사에게 수학한 뒤 때마침 일어난 영웅 조광윤의 수하로 들어가 북한과 맞서 싸워 큰 공적을 세운다. 황제로 등극한 조광윤은 세 자매가 여자임을 눈치채고 그들의 공로를 치하하는 축하연에서 여섯 사람이 함께 연못에 들어가도록 명령하여, 유씨 자매가 사실은 여자임을 드러낸다. 황제의 중매로 최씨 형제와 유씨 자매는 혼인을 하고 금의환향하여 부모와도 상봉한다. 이후에도 이들은 복록을 누리다가 한낱한시에 일생을 마친다.

01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A]는 원경이 장임에게 간언하는 말을 듣고 자신들의 거짓 항복이 의심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 한 말이다. '장군을 부모 같이 바라고 투항'했는데 '의심'을 한다고 억울함을 토로함으로써 장임이 자신들을 의심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에서는 자신들이 거짓 항복을 하러 온 진실을 숨기고 있다.
 ② [A]에는 자신들을 믿지 않으니 자결이라도 하겠다는 진술이 나올 뿐,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의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A]에는 구체적인 장소가 언급되지 않는다.
 ⑤ [A]에서는 자신들을 의심하면 자결을 하겠다는 상황의 심각성은 드러내고 있지만, 이로 인해 장임이 공포를 느끼지는 않는다.

02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장임은 자주와의 결투 중 기운이 다하여 달아나다가 벽주가 쏜 활에 어깨를 맞아 말에서 떨어져 최경에게 생포를 당한다. 자주와의 대결 중 칼에 말이 거꾸러져 항복을 한 인물은 원평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원양성의 복문을 지키던 한양은 최완의 “우리는 북한의 패군이니 빨리 문을 열라.”라는 외침에 ‘그 진을 살피지 못하고 문을 캐히 열’었고 이로 인해 한양은 군사를 몰고 들어온 최완에게 목숨을 잃게 된다.
- ③ 황후는 유씨 자매들에게 “규중약녀로 만군 중에 횡행하여 공훈이 매우 크매”라고 칭찬을 했다.
- ④ 상이 “오늘 이 거조는 경의 본모습을 만조문무로 하여금 명백히 알게 한 연후에”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알 수 있다.
- ⑤ 태후는 유씨 자매들의 부모가 멀리 있어 혼인을 주관할 사람이 없으니 ‘군신은 부자일체’임을 내세워 상과 자신이 혼인을 주관할 것이라고 말했다.

03 사건의 전개 양상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거짓으로 항복하기 위해 대원수 조광윤이 자신들의 물화를 다 빼앗고 호풍령을 지키지 못하면 죽이겠다는 말을 했다고 장임에게 말했지만, 이는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꾸며 낸 이야기일 뿐 실제로 조광윤이 저지른 악행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거짓으로 항복하기 위해 원양성으로 가기 전 최완과 명주는 각각 변복을 했는데, 이는 창검과 궁시를 모르는 평범한 백성처럼 보이도록 한 것이다. 변복 후 원양성을 찾아가 장임을 만나는 장면에서 ‘장임이 그 용모와 행동거지를 보고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는 것을 통해 평범한 백성처럼 꾸미고 간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 ③ 거짓 항복을 한 최완과 명주를 장임이 의심 없이 받아들여 부장 원견은 장임에게 진위를 살피라는 간언을 했다.
- ④ 장임은 최완과 명주가 장임이 공격하면 안에서 힘을 합치겠다고 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불이 일어남을 보고 내용이라고 생각했다.
- ⑤ 최완과 명주의 속임수를 믿고 진군한 장임으로 인해 북군의 병사들은 땅굴에 빠져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유씨 자매가 태후를 알현한 후 태후가 “먼저 의복을 개착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비로소 조복을 벗고 여복으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태후를 알현하려 갈 때 입었던 ‘금포옥대’는 여복이 아닌 관리가 입는 조복이므로 전통적인 여성의

제한된 역할을 드러내는 복장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유씨 자매들과 최씨 형제들은 계락을 짜고 계락에 따라 함께 전쟁을 수행함으로써 장임의 군사를 물리치고, 항복을 받아들였다. 이를 통해 여성과 남성의 협력을 통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낸 양성 조화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전장에서 유씨 자매들은 최씨 형제들과 함께 거짓 계락을 통해 적을 속이고 적의 장수들과 겨루어 그들을 제압하는 등 최씨 형제의 활약에 뒤지지 않는 전장에서의 활약을 보여 줌으로써 여성의 뛰어난 영웅적 능력을 드러낸다.
- ③ 상이 이미 유씨 자매가 여성임을 알았기 때문에 ‘작명’을 다르게 주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비록 공적 영역에 진출이 제한된 여성이지만 남장을 한 상태로 세운 업적과 지위를 인정받고 있음이 드러난다.
- ⑤ 상과 태후는 각각 작위를 내리고 공적을 이룬 것을 칭찬함으로써 공적 영역에서의 성취를 인정하고 있으며, 유씨 자매를 최씨 형제들과 맺어 주려고 하는 것을 통해 사적 영역에서의 성취에도 다다른 모습이 드러난다.

05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보기>에는 (나)와 달리 여성 영웅인 평국이 남성인 보국을 희롱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리고 천자는 평국이 보국을 희롱한 것이 평국의 뜻이 아니라 자신이 시킨 것이라고 말하면서 평국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나)와 <보기>가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여성이 남성을 희롱한 것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보기>의 평국은 남편인 보국보다 높은 지위인 대원수의 직위를 받는다는 점에서 남성 영웅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나)와는 달리 여성의 우월성이 드러난다.
- ② <보기>의 평국이 보국과 무력을 다투는 장면에서 상대를 제압하고 승리하는 모습을 통해 (나)의 유씨 자매들처럼 여성 영웅임이 드러난다.
- ④ <보기>의 평국은 곽 도사에게 배운 술법을 통해 태풍과 안개를 일으키는 등 초월적 능력을 보이지만, (나)의 세 자매들은 뛰어난 지략을 바탕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모습을 보인다.
- ⑤ <보기>의 천자는 평국이 보국과 혼인을 한 이후, 평국에게 당한 보국을 위로하는 장면에서 “중군은 금일 원수에게 욕분을 추호라도 꺾지 말라.”라고 말한다. 이러한 천자의 말로 미루어 볼 때 평국이 여전히 대원수임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의 상도 유씨 자매들이 여성임을 알고 있음에도 특별한 작위를 내리며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을 유지시켰다는 점에서 <보기>의 천자와 (나)의 상은 모두 공적 영역에서 여성이 이룬 성취를 인정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06~11] 사회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

해제 이 글은 대중문화의 특성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블루머는 도시 노동자 집단을 대중으로 개념화 하면서 익명성, 이질성에 주목했다. 리비스주의는 대중문화는 야만스럽고 무질서하기 때문에 인간 지성의 정수인 문화가 될 수 없는 저급한 것이라고 보았다.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 이론가들은 문화 산업의 관점에서는 대중문화의 대량 상품성에, 이데올로기 차원에서는 이데올로기 조작성에 주목하면서, 대중 문화가 체제에 대한 저항 의식의 형성을 가로막는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베넷과 같이 대중문화의 역동성과 정치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정체되지 않는 재생산의 문화 형식이라는 점에서 대중문화의 가능성에 주목한다.

주제 대중문화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

구성

- 1문단: 대중에 대한 비판적 인식
- 2문단: 대중문화에 대한 리비스주의의 비판
- 3문단: 대중문화에 대한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 1
- 4문단: 대중문화에 대한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 2
- 5문단: 대중문화의 역사적 역동성
- 6문단: 베넷이 주목한 대중문화의 정치성
- 7문단: 지속적인 재생성 상태의 현실로서의 대중문화

06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이 글은 자본주의 시대 도시 노동자들의 특정한 문화 현상인 대중문화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지닌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중문화가 지닌 여러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대중문화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평가는 제시되고 있지만, 사회가 추구해야 할 문화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③ 대중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리비스주의와 프랑크푸르트학파의 공통점은 나타나지만, 견해들 사이에 인식

의 절충이 이루어진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 ④ 대중문화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긍정적 평가는 분류되어 제시되고 있지만, 구체적 사례에 대한 분석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⑤ 대중문화의 역사적 역동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등장할 대중의 행위 양식을 예상하고 있지는 않다.

07 세부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7문단을 통해, 대중문화의 정치성을 인정하는 관점에서는 대중문화가 일방적으로 위에서 강요한 문화도 아니지만 아래로부터 자발적으로 생겨난 민중 문화도 아니라고 보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베넷이 대중문화는 고급문화에 대해 하면서 등장한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1문단을 통해, 블루머는 도시화 및 산업화를 통해 나타난 도시 노동자들을 이전의 농민이나 귀족, 부르주아들과 구분되는 새로운 집단인 ‘대중’으로 규정했으며, 대중을 익명화된 개인들의 이질적 집단으로 보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1문단을 통해, 블루머는 대중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들 간에 유대 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중은 조직력을 갖지 못한다고 보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4문단을 통해,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 이론가들은 대중문화의 이데올로기 조작성으로 인해 민중의 저항 의식 형성이 가로막힌다고 보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6문단을 통해, 베넷은 대중문화를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지배 계급과 거기에 반하는 민중의 적대적 움직임들이 충돌하는 지점으로 보면서, 이러한 대중문화의 정치성에 주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08 글에 드러난 관점, 내용 비판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리비스주의는 문화 우열주의적 관점에서 대중문화를 야만과 무질서로 해석하고 문화로 인정하지 않는 보수적 입장을 보였다. <보기>에 따르면 문화는 그 나름의 공유된 느낌 구조와 정당성을 갖는다. 따라서 대중문화가 고급문화와 다르지만 그 나름의 느낌 구조를 갖는다면 대중문화 역시 고급문화와 마찬가지로 문화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고 리비스주의를 비판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대중문화가 대중 간에 공유되는 독특한 느낌 구조를 갖는다면

- 대중문화는 고급문화와 구별되는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대중문화를 공유하는 대중이 다른 문화와 자신의 문화를 구분 지으려 하지 않는다면, 대중문화는 고유의 느낌 구조를 지닌 문화라 할 수 없으며 또한 고급문화로 규정될 수도 없다.
 - ④ 대중문화의 익명성으로 인해 대중문화의 느낌 구조가 특징적인 색깔을 지닐 수 없다면 대중문화는 문화로서의 정당성을 얻을 수 없으므로 문화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고급문화의 하위문화로 분류할 수도 없다.
 - ⑤ 대중이 특정한 시대와 집단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여 소수 엘리트 집단에 대항하는 조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리비스주의의 주장에 대한 비판이 될 수는 없다. 대중은 조직력이 없다고 본 것은 블루머의 주장이며, 대중문화는 문화로서의 자격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리비스주의의 주장이다. 리비스주의의 입장에서 대중의 조직력이 문화로서의 자격 조건이 될 수 없으므로 리비스주의에 대한 적절한 비판이 될 수 없다.

09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베넷은 대중문화를 지배 계급의 의지와 민중의 저항 의식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정치적 투쟁의 공간으로 보았다. 따라서 미디어 복합 기업에 의한 이데올로기 조작이 심해질수록 이에 대항하는 민중의 적대적 움직임들은 늘어날 것이므로, 이데올로기 조작을 통한 지배 계급의 헤게모니 장악 시도와 이에 대항하는 민중들의 저항이 격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대중문화의 정치성은 강화될 것이라고 베넷은 판단할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아널드는 대중문화를 중독성 강한 약물로 보았다. 따라서 미디어 복합 기업의 일상 영역에 대한 지배력이 증가함에 따라 미디어 복합 기업에 대한 대중의 의존이 심화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 ② 아도르노는 대중문화의 외형상 차이란 규격성을 위장하기 위한 유사 개별화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미디어 복합 기업이 지배하는 일상적인 문화 영역에서 획일적인 규격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 ③ 마르크제는 대중문화가 허위의 충족감을 주고 일차원적인 사고를 확산시켜 체제에 대한 저항 의식의 형성을 가로막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미디어 복합 기업의 사업 영역이 다각화되어 대중의 일상적인 영역까지 지배된다면 대중문화가 확산되어 체제의 기존 질서에 대한 순응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 ⑤ 그람시는 사회 구성원들이 지배적 헤게모니의 영향하에 놓이면 지배 계급의 규범을 지지하는 개인적 신념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미디어 복합 기업들의 일상 영역에 대한 지배가 심화됨에 따라 지배 계급의 헤게모니는 더 공고해질 것이고, 이에 따라 더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지배 계급이 제시한 규범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10 다른 견해와의 비교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은 ㉡과 달리 대중문화의 역동성을 인정한다. 따라서 특정 대중문화의 구체적 상태가 대중문화의 대량 상품성과 이데올로기성으로 인해 절대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대중문화가 다툼과 타협이 나타나는 정치의 장이라는 주장은 ㉡에 부합하지 않는다. ㉡은 대중문화가 문화 산업과 이데올로기 조작성의 특성을 통해, 체제에 대한 저항 의식이 형성되는 것을 막는다고 본다. 즉 ㉡은 다툼과 타협이 아닌 지배의 관점에서 대중문화를 보았다.
- ② 대중문화 속에는 과거의 것과 현재의 것 그리고 새로운 것이 혼재되어 있다는 주장은 ㉡에 부합하지 않는다. ㉡은 대중문화의 문화 산업적 특성과 이데올로기 조작성에 주목하여 지배 계급의 대중에 대한 지배의 관점에서 대중문화를 비판했다. 따라서 ㉡의 관점으로 보면 대중문화 속에는 기존 지배 계급의 의도가 존재하며, 이는 대중문화가 기존의 지배 관계가 아닌 새로운 것을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③ 대중문화가 시간에 따라 변모한다는 주장은 ㉠에 부합한다. ㉠은 대중문화의 역사적 역동성에 주목하여 대중문화란 지속적인 재생성 상태의 현실이라고 주장한다.
- ⑤ ㉠은 대중문화의 역사적 역동성을 주장하지만 이를 통한 문화적 진보를 주장하지는 않는다. ㉠은 대중문화를 과거의 것과 당대의 것, 그리고 새로운 것이 혼재된 지속적인 재생성 상태의 현실이라고 주장할 뿐, 과거나 당대의 것에 비해 새로운 것이 더 진보된 것이라고는 주장하지 않는다.

11 단어의 의미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동반하다’는 ‘일을 하거나 길을 가는 따위의 행동을 할 때 함께 짝을 하다.’ 또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함께 생기기.’의 뜻을 지니므로, ‘어떤 뜻이나 행동 또는 때 따위를 서로 동일

하게 취하다.’라는 뜻을 지닌 ‘함께하다’와 문맥상 바뀌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무지하다’는 ‘아는 것이 없다.’의 뜻을 지니므로, ‘무지하고’는 ‘알지도 못하고’와 문맥상 바뀌 쓰기에 적절하다.
- ③ ‘불과하다’는 ‘그 수준을 넘지 못한 상태이다.’의 뜻을 지니므로, ‘불과하다고’는 ‘지나지 않는다고’와 문맥상 바뀌 쓰기에 적절하다.
- ④ ‘동일하다’는 ‘어떤 것과 비교하여 똑같다.’의 뜻을 지니므로, ‘동일했다’는 ‘마찬가지였다’와 문맥상 바뀌 쓰기에 적절하다.
- ⑤ ‘양산되다’는 ‘많이 만들어지다.’의 뜻을 지니므로, ‘양산된다’는 ‘쏟아진다’와 문맥상 바뀌 쓰기에 적절하다.

[12~15] 고전 시가+현대 수필

(가) 이신의, 「사우가」

해제 이 작품은 불안정한 정치 상황 속에서 일신의 영달을 위해 지조를 꺾는 속된 선비들과는 달리 시류에 영합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굳은 의지를 사우(四友)를 통해 보여 주고 있다. 화자는 소나무, 국화, 매화, 대나무를 네 벗(사우)으로 칭하며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변치 않는 속성을 통해 올곧은 선비의 기상을 나타내고 있다.

주제 사우인 소나무, 국화, 매화, 대나무의 덕성 예찬

구성

- 제1수: 풍상에도 여위지 않는 소나무
- 제2수: 매서운 서리 속에 홀로 피는 국화
- 제3수: 눈 속에 피어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매화
- 제4수: 백설 속에 푸르른 대나무

(나) 나희덕, 「풀 비린내에 대하여」

해제 이 작품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글쓰이의 생태주의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글쓰이는 고속 도로 야간 운전을 한 다음 날 자동차의 유리창과 앞 범퍼에 풀벌레들이 무수히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는다. 이러한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 글쓰이는 자동차에 많이 의존하는 삶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우리의 의식과 생활 방식을 성찰하며 생태주의적 시각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다.

주제 자동차를 사용하는 바람직한 태도와 생태주의적 성찰

구성

- 처음: 「감성적 기계」 관람과 자동차에 대한 글쓰이의 생각
- 중간: 자동차에 대한 종속과 풀 비린내에 대한 경험
- 끝: 자동차에 대한 글쓰이의 태도 정리

12 갈래의 특징과 성격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선우: <제1수>의 중심 소재인 ‘솔’, <제2수>의 중심 소재인 ‘국화’, <제3수>의 중심 소재인 ‘매화’, <제4수>의 중심 소재인 ‘대’는 모두 초장에 제시되고 있다.

서연: <제1수>의 중장을 보면 ‘풍상’이, <제2수>의 중장을 보면 ‘엄상’이, <제3수>의 중장을 보면 ‘눈’이 추운 계절을 나타내는 시어라고 할 수 있다. <제4수>에서는 초장의 ‘백설’에 추운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가 사용되고 있을 뿐 중장에서는 추운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가 직접 제시되고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영호: <제1수>의 ‘풍상’은 색채 이미지가 나타난다고 보기 힘들며, <제2수>의 ‘춘광’ 역시 색채 이미지가 직접적으로 드러난다고 보기 힘들다. 중장에서 색채 이미지를 통해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는 부분은 <제3수>의 ‘눈 속에 꽃이 피어’와 <제4수>의 ‘대숲이 푸르려세라’이다. <제3수>의 ‘눈 속에 꽃’에서 눈과 매화꽃이 흰색의 색채 이미지를 가졌으며, 이는 지조와 절개라는 속성을 강조한다. 또한 <제4수>의 ‘푸르려세라’는 푸른색의 색채 이미지로 사계절 푸름을 잃지 않는 대나무의 속성을 강조한다.

주영: <제1수>, <제4수>의 ‘-니’는 의문사 ‘어찌’, ‘어째서’와 함께 쓰인 것으로 볼 때 물음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고, <제2수>의 ‘-노라’는 주로 1인칭 주어와 함께 쓰여 ‘-니다, -는다’의 뜻을 나타내는 평서형 종결 어미이다. 그리고 <제3수>의 ‘-리’는 부정어 ‘아니’와 결합한 것으로 볼 때 해라 할 자리나 혼잣말에 쓰여, 사리로 미루어 판단하건대 어찌 그러할 것이냐고 반문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13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매화의 ‘그윽한 향기’^(a)를 귀하게 여긴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는 매화에 대한 화자의 예찬적 태도를 부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풀 비린내’^(b)는 글쓰이로 하여금 자신의 운전으로 인해 자동차에 부딪쳐 죽은 풀벌레를 떠올리게 하므로 글쓰이에게 현대 기계 문명의 폭력성을 환기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그윽한 향기’가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풀 비린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경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이를 인간과 대비되는 자연의 영속성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그윽한 향기’는 매화의 내적 아름다움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

를 통해 삶의 고독함을 느낀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폴 비린내'를 떠올리며 글쓰기가 죄책감을 느낀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③ '그윽한 향기'를 동적 이미지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폴 비린내'는 풀벌레의 죽음으로 인한 것이므로 죽음의 비극성을 부각한다고 할 수 있다.
- ⑤ '그윽한 향기'를 맡으며 화자는 매화에 동화되어 흥취를 느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글쓰이는 '폴 비린내'를 떠올리며 자동차에 종속된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기 때문에 '폴 비린내'에 문명의 이기인 자동차에 의존하는 삶을 수용하려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4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꽃은 무한호되'는 수많은 꽃 중에 매화를 심은 뜻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말이므로 이를 우주 만물의 질서가 구현된 존재로서의 꽃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온갖 꽃 간데업고' 역시 대숲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한 말이므로 이를 우주 만물의 질서가 구현되지 못한 존재로서의 꽃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설명 역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제1수>는 솔을 보며 바람과 서리(풍상)에도 여위지 않는 솔의 모습을 예찬하고 있는데, 이는 시련에 굴하지 않는 지조라는 유학적 덕목을 '솔'을 통해 이끌어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풀벌레들이 글쓰이가 운전하는 차에 부딪쳐 죽은 잔해를 발견하게 된 사건으로 인해 글쓰이는 자신의 행위가 자연물의 생명을 앗아 갈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을 반성하게 된다.
- ④ 글쓰이는 인간에게 안락한 공간인 자동차로 인해 풀벌레가 생명을 빼앗길 수 있음을 자각하며 운전을 최소화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자각에는 지구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존재가 깊이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생각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차를 소유하되 차에 종속되지 않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은 근대 문명이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반성적 성찰을 통해 얻은 결심이라 할 수 있다.

15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A]에서는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목적 없이도 차를 모는 일이 늘어 가게 된 상황을 말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편안함에 점점 익숙해져 가는 모습이 제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B]에서는 차를 유지하되 사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편안함을 경계하는 모습이 제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인식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B]에서는 글쓰이가 차를 유지하되 사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A]에는 자동차의 이중적 속성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B]에는 자동차에 대한 글쓰이의 태도가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이를 이중적 태도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A]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 이유가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B]에서는 자동차 운전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하고 있을 뿐 자동차 운전을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 ④ 글쓰이는 에민 텡스웸의 말을 인용하여 자동차가 감성적 기계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A]에서 글쓰이는 마음이 답답할 때면 무작정 차를 몰고 교외로 나가는 습관이 생겼다고 말한다. 이는 감성적 기계로서의 자동차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B]에서는 자동차를 소유함으로써 인해서 생기는 불편함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6~20] 예술

'바이오모픽 아트'

해제 이 글은 '바이오모픽 아트'라는 새로운 예술 경향의 등장 배경과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른 자연 파괴와 비인간화는 예술가들로 하여금 자연과 생명의 근원적인 표현에 눈을 돌리게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앙리 베르그송의 생명주의 사상을 철학적 배경으로 삼아 자연 속 생물체의 생성, 성장, 진화 등의 다양한 생명 현상을 조형 언어로 사용하며 자연의 유기적인 생명감을 표현하는 '바이오모픽 아트'가 등장하게 되었다. 바이오모픽 아트는 자연에서 발견되는 현상들에 기초를 둔 불규칙하고 우연한 형태를 바탕으로 무한정한 생명력과 다양성을 표현하고자 했다. 대표적인 추상 미술의 한 형식으로 손꼽히는 바이오모픽 아트는 엄격한 기하학적 추상을 탈피하여 유기적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고 그것을 예술로 승화하는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건축, 공예, 비디오 아트 등의 분야에도 영향을 끼쳐 새로운 예술 분야 개척에 일조하고 있다.

주제 바이오모픽 아트의 등장과 그 특징

구성

- 1문단: 생물 형태주의 예술가들의 등장 배경
- 2문단: 바이오모픽 아트의 형성과 개념
- 3문단: 생물 형태를 통해 자연의 생명력을 표현하고자 한 바이오모픽 아트
- 4문단: 바이오모픽 아트에 나타나는 생물 형태의 특징
- 5문단: 바이오모픽 아트의 예술적 의의

16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1문단에서 바이오모픽 아트가 등장한 철학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2~4문단에서 앙리 베르그송의 생명주의 사상을 철학적 배경으로 삼아 등장한 바이오모픽 아트가 살아있는 생물체의 형상에 근거를 두고 자연의 근원적 생명감을 표현하고자 했다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바이오모픽 아트가 새로운 예술 분야에 일조하고 있다는 긍정적 측면을 언급하고 있지만, 주요 작가들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 ② 바이오모픽 아트에 대한 여러 학자의 견해가 나타나 있지 않으며, 바이오모픽 아트가 지닌 한계를 평가하고 있지도 않다.
- ③ 바이오모픽 아트의 개념과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있지만, 바이오모픽 아트의 예술적 경향이 반영된 작품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⑤ 5문단에서 바이오모픽 아트가 ‘건축, 공예, 비디오 아트’ 등의 인접 분야에 영향을 끼쳤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바이오모픽 아트의 발전 양상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있지는 않다.

17 세부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2문단에서 자연 속 생물체가 생성, 성장, 진화하는 모습을 조형적 언어로 사용한 생물 형태주의 예술가들은 자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외관상의 표면적 형태가 아닌 유기적인 생물체의 성장 과정을 느낄 수 있는 형태를 원했고, 그 형태에 자연의 생명감을 부가하기를 원했다고 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5문단에서 바이오모픽 아트는 엄격한 기하학적 추상을 탈피하여 유기적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고 그것을 예술로 승화하는데 기여했다고 했다.
- ② 1문단에서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연 파괴와 비인간화는 예술가로 하여금 자연과 생명의 근원적인 표현에 관심을 갖

게 하여 원시 미술의 단순하고 유기적인 생명감 표현에 눈을 돌리게 했다고 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생물 형태주의 예술가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설명으로 보아, 생물 형태주의 예술가들은 원시 미술의 단순하고 유기적인 생명감 표현에 관심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2문단에서 생물 형태주의 예술가들에게 생명 현상의 가시적 이미지는 새로운 조형 언어이면서 자연의 창조와 예술 창작 사이의 유사성을 제시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했다. 이는 일반적인 의미의 생물체의 형태라는 통념을 무너뜨리고 예술가들의 상상력을 유발하여 새로운 형상의 생물 형태를 창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심어 주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바이오모픽 아트라는 새로운 예술 경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했다.
- ④ 2문단에서 자연 속 생물체가 생성, 성장, 진화하는 모습을 조형적 언어로 사용한 생물 형태주의 예술가들은 자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외관상의 표면적 형태가 아닌 유기적인 생물체의 성장 과정을 느낄 수 있는 형태를 원했다고 했다. 즉 생물 형태주의 예술가들이 유기적인 생물체의 성장 과정을 느낄 수 있는 생명 현상의 가시적인 이미지를 예술 창작의 새로운 조형 언어로서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18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5문단에 따르면, 구체적인 대상이 없이 색, 점, 선, 면 등의 순수 조형 요소로만 이미지를 표현한 미술은 기하학적 추상 미술이다. 바이오모픽 아트는 엄격한 기하학적 추상을 탈피하여 유기적 아름다움을 형상화한 미술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3문단에서 바이오모픽 아트는 예술가의 상상력 혹은 무의식적인 것에 의해서 형성된 생물 형태의 형상이 생물체를 나타내거나 생명의 신비, 비밀, 놀라움에 대한 의식을 표현하는 미술이라고 했다. <보기>의 그림은 아무런 계획이나 의도 없이 손이 가는 대로 그린 형상이 생물체의 형태를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바이오모픽 아트의 특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 ② 3문단에서 바이오모픽 아트의 작가들은 무의식적인 것에 의해서 형성된 생물 형태의 형상을 통해 생명체를 나타내거나 생명감을 표현한다고 했다. <보기>의 아르프가 낙서하듯이 어떤 형태를 그린 것은 작가의 의식을 최대한 배제하여 무의식에 의해서 형성되는 어떤 형태를 그리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다.
- ③ 4문단에서 바이오모픽 아트는 미분화된 생물체의 형태로 인

한 모호하고 다의적인 이미지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복합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고 했다. <보기>의 그림 형태가 나뭇잎처럼 보이기도 하면서 사람의 형상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은 다의적인 성격을 지닌 바이오모픽 아트의 특징을 잘 보여 주는 것이다.

- ⑤ 4문단에서 바이오모픽 아트의 생물 형태는 자연에서 발견되는 현상들에 기초를 둔 불규칙하고 우연한 형태에 근거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연의 생물 형태를 묘사하기보다는 모호하며 미완결적인 형상을 띠고 있다고 했다. <보기>의 그림은 나뭇잎 혹은 사람의 형상을 떠오르게 하지만, 나뭇잎과 사람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미완결적인 형상을 추구하는 바이오모픽 아트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19 글에 대한 정서적 반응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보기>에서 유기체들이 보여 주는 형태들은 무한정한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3문단에서도 바이오모픽 아트 예술가들은 근원적인 생물 형태에서부터 동식물의 유기적인 형태를 작품의 조형 요소로 도입하여 무한정한 생명력과 다양성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4문단에서 바이오모픽 아트는 자연에서 발견되는 현상들에 기초를 둔 불규칙하고 우연한 형태의 생물 형태가 주는 모호하고 다의적인 이미지를 통해 복합적인 의미를 형상화한다고 했다. 이런 점은 바이오모픽 아트가 추상 미술의 추상성, 상징성과 초현실주의 미술의 우연성, 비합리성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바이오모픽 아트가 나름의 질서를 찾기 위해 추상 미술의 비합리성을 도입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② 3문단에서 바이오모픽 아트 작가들은 근원적인 생물 형태에서부터 동식물의 유기적인 형태를 작품의 조형 요소로 도입하여 생물체를 형상화하거나 생명에 대한 의식을 표현했다고 했다. 또한 1문단에서 바이오모픽 아트는 과학 기술의 발달이 초래한 자연 파괴와 비인간화를 거부하고 영혼과 정신 등의 형이상학적인 기반을 지지하는 예술가들에 의해 나타난 경향이라고 했다. 따라서 유기체가 지닌 질서 있는 구조와 형태를 의식적으로 파괴하여 영혼과 정신 등의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④ 1~2문단에서 바이오모픽 아트 예술가들은 자연에 대한 기계론적인 사고를 거부하며 자연 속 생물체의 생성, 성장, 진화

등의 모습을 조형적 언어로 사용하여 생명감을 표현하려 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 ⑤ 2문단에서 바이오모픽 아트는 자연의 유기적인 생명감의 표현을 살아 있는 생물체의 형상에서 구하고자 하는 경향의 미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0 단어의 의미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의 ‘인식’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앎.’이다. ‘어떤 내용이나 사실이 옳거나 그리하다고 인정함.’은 ‘시인(是認)’의 사전적 의미이다.

[21~24] 현대시

(가) 김기택, 「다리 저는 사람」

해제 이 작품은 지하철 역사에서 우연히 마주친 다리 저는 사람의 걸음을 보면서 얻은 새로운 인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화자는 다리 저는 사람의 걸음을 요란한 걸음 정도로 생각했지만, 그의 걸음을 보면서 못 걷는 다리를 위해 온몸이 다리의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며 경직된 모습의 다른 사람과 대비되어 역동적으로 걷는 그의 걸음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주제 다리 저는 사람의 역동적인 걸음

구성

- 1~5행: 춤을 추듯 역동적으로 걸어가는 다리 저는 사람
- 6~11행: 온몸이 한쪽 다리 역할을 하는 다리 저는 사람의 걸음
- 12~14행: 경직된 자세로 서 있는 사람 사이를 걸어가는 다리 저는 사람

(나) 김혜순, 「납작납작-박수근 화백을 위하여」

해제 이 작품은 박수근 화백의 그림을 보고 쓴 시이다.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서민에 대한 동정과 연민을 표현한 시로, 박수근 화백의 그림을 본 화자가 그림과 관련하여 ‘하나님’에게 묻는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가난한 서민들이 고달픈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표출하고 있다.

주제 서민들의 고달픈 삶에 대한 연민

구성

- 1연: 그림의 작업 과정과 그림에 대한 묘사
- 2연: 의도적인 인물 형상화에 담긴 부정적 현실 비판

2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가)에서 화자는 지하철 역사를 걷어가는 다리 저는 사람을 관찰하고, 그의 활발한 걸음걸이와 못 걷는 다리 하나를 위해 온몸이 다리가 되는 모습에 주목을 하여 시상을 떠올리고 있다. (나)에서 화자는 박수근 화백의 그림을 관찰하고, 그의 그림에서 납작하게 눌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시상을 떠올리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에서는 '흰 하늘'에서 색채 이미지가 활용되고 있지만 (가)에서는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 ② (가)는 지하철 역사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공간이 화자의 정서 변화를 야기하는 공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는 화자의 정서 변화를 야기하는 특정한 공간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④ (나)에서는 구체적인 청자로 '하나님'을 설정하여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고 있지만, (가)에서는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하고 있지 않다.
- ⑤ (가)에서는 육체적으로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 간의 대조를 통해 성찰적 태도를 엿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나)에서는 대조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22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못 걷는 다리 하나를 위하여 / 온몸이 다리가 되어 흔들여 주고 있었다.'는 다리 저는 사람이 온몸을 움직여 걷는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그'의 걸음에 담긴 의미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그'에 대해 경계심을 표하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해 위축된 '그'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화자는 다리 저는 사람의 모습을 처음 보았을 때는 '춤추는 사람처럼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앉았다 일어서듯 다리를 구부렸고 / 그때마다 윗몸은 반쯤 쓰러졌다 일어' 나는 모습이 춤추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 ② 다리 저는 사람의 걷는 모습을 '요란하고 기이한 걸음'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그'의 걸음을 역동적인 것으로 묘사한 것이다. 따라서 '꽃꽂이처럼 걷는' 사람들의 경직된 모습과 대비된다고 말할 수 있다.

- ③ 다리 저는 사람의 걸음걸이가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 지하철 역사가 적막해진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는 '그'의 걸음걸이에 대한 다른 사람의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⑤ 다리를 절지 않는 사람들은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기둥이 되어 우람하게 서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기둥은 움직임이 없는 모습이므로 다리를 절지 않는 사람들의 경직성이 마지막 부분에서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2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화자는 박수근 화백의 그림 속에 표현된 '여편네'와 '아이들'의 모습에 주목하여 '쭈그린 아낙네 둘', '여편네와 아이들도 / 한 며칠 놀렀다가'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 이는 고된 현실 속에서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여편네'와 '아이들'임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를 고된 삶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이를 통해 현실 극복의 염원을 표출하는 것도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쭈그린 아낙네 둘이 / 벽 위에 납작하게 뻗어 있다.'는 박수근 화백의 평면화 기법을 나타낸 것으로, 화자는 평면화 기법으로 표현된 그림 속 인물들을 보면서 고된 현실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억눌린 삶을 떠올리고 있다.
- ③ 구체적인 청자로 조물주인 '하나님'을 설정한 후 화자가 제시한 이러한 모습이 어떤지, 그리고 마땅한지를 묻는 물음에는 서민들이 힘겹게 살아가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의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표정'이 없다는 것은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감정은 인간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이 없다는 것은 마땅히 갖고 있어야 할 것들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삶을 나타낸 것이다.
- ⑤ 단어의 뜻으로 미루어 볼 때 '서성서성'은 안정적이지 못한 삶의 모습을, '슬그머니'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위축된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4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은 경직된 자세로 서 있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는 다리 저는 사람의 동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의태어이므로 생명력을

부각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역시 세파에 휘둘리는 서민들의 고달픈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의태어이므로 대상의 고달픈 삶에 대한 애처로움을 부각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은 다리 저는 사람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강조한 표현이므로 공동체적 삶의 모습을 환기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② ㉡은 빨랫줄에 걸린 빨래들이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는 것과 같이 사람들이 세파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③ ㉢은 다리 저는 사람의 생명력에 대한 감탄이 기저에 깔려 있고, ㉠ 역시 고된 현실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묻어 있기 때문에 화자가 대상에 대해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④ ㉣이 대상의 역동성을 강조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만, ㉡이 정적 이미지를 강조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은 동적 이미지가 두드러지는 의태어이다.

[25~30] 과학+기술

(가) '빛과 색에 대한 이해'

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색을 물체에 원래부터 존재하는 실제 색깔과 겉보기 색깔, 두 종류로 구분 지었다. 데카르트는 공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물질로 채워져 있는데 직진하던 빛이 매질 속을 지나면서 반사나 굴절되면 공간을 조밀하게 채운 미세 물질의 회전 속도에 차이가 생기게 되고, 그 차이를 눈이 색으로 인지한다고 보았다. 후대의 과학자 뉴턴은 프리즘을 통과한 태양광의 모양이 기존에 알려져 있던 원 모양이 아니라 길쭉한 모양인 것을 발견하고 그 이유를 밝혀내기 위해 두 번의 실험을 직접 설계하여 태양광은 모든 색깔의 광선을 담고 있으며 태양광 안의 광선들의 굴절 각도가 다르므로 인해 색깔이 생긴다는 것을 확인했다.

주제 빛과 색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와 데카르트, 뉴턴의 이론 구성

- 1문단: 색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
- 2문단: 색에 대한 데카르트의 이론
- 3문단: 색에 대한 당대의 이론에 궁금증을 품은 뉴턴의 실험
- 4문단: 빛이 색깔에 따라 꺾이는 정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한 뉴턴

(나) '무지개의 형성 원리'

해제 무지개는 태양광이 공기 중의 물방울로 입사하면서 굴절, 반사, 굴절의 과정을 거쳐 관찰자의 눈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색이 꺾이는 정도와 관찰자의 수직 시야각의 값이 일치하는 경우에 눈에서 색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므로 관찰자가 움직이며 무지개를 본다면 실제로는 하나의 실체로서 동일한 무지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때마다 다른 무지개를 보는 것이다.

주제 무지개가 형성되는 과정과 원리

구성

- 1문단: 색에 따른 굴절률의 차이
- 2문단: 태양광이 무지개가 되는 과정
- 3문단: 무지개를 지각하는 원리

25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가)는 다양한 색깔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뉴턴의 이론을 제시하고 있고, (나)는 무지개라는 자연 현상이 우리에게 관찰되는 과정과 원리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는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던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뉴턴이 다양한 색깔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한 내용은

드러나지만, 그것은 의문을 지닌 지점이 비슷한 것일 뿐 그들이 동일한 의미의 학설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 (나)는 무지개라는 자연 현상을 설명하고 있지만, 유사한 다른 자연 현상과의 차이를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 ② (가)의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뉴턴의 학설이 서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세 사람의 학설이 서로 상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는 무지개라는 자연 현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을 뿐, 순수한 자연 현상과 인위적 조작에 의한 현상을 구분 지어 설명하고 있지 않다.
- ③ (가)는 다양한 색깔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세 학자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을 뿐 각 학자들의 이론에 나타난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다. (나)를 통해 무지개가 나타나는 조건을 추론할 수는 있지만 무지개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과적 설명은 확인할 수 없다.
- ④ (가)에서 동일한 의문에 대해 해답을 찾아 나가는 학자들의 사고의 차이는 드러난다고 할 수 있으나 그 문제 해결 방식의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무지개라는 자연 현상이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그 발생 과정에 어떠한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나열하고 있지 않다.

26 세부 내용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나)의 2문단에서 태양광이 하나의 물방울을 거치며 만들어진 무지개색의 띠를 관찰자가 온전한 형태의 무지개로 지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하나의 물방울에서 형성되는 여러 색의 띠를 그대로 육안으로 관찰한 것이 무지개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의 3문단에서 관찰자가 움직이며 무지개를 본다면 실제로는 움직일 때마다 다른 무지개를 보게 되는 것이라는 설명을 통해, 여러 사람이 동시에 무지개를 본다는 것 역시 저마다의 수직 시야각을 통해 서로 다른 물방울에서 나온 빛들을 무지개로서 관찰하는 것임을 파악할 수 있다.
- ② (나)의 2문단에서 태양광이 공기 중의 물방울로 입사하면서 굴절되고 물방울 내로 한 번 반사된 이후에 다시 물방울 밖으로 굴절되어 나오면서 퍼져 나온 색의 띠가 무지개의 일부로서 관찰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③ (가)의 2문단에서 데카르트는 직진하던 빛이 반사나 굴절을 통해 미세 물질을 회전하게 만들고 이 미세 물질의 회전을 통해 전달되는 압력을 색으로 느낀다는 가설을 세웠다고 설명

하고 있다.

- ⑤ (가)의 1문단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색을 원래 물체에 존재하는 실제 색깔과 어두울 때에는 물체에서 사라지는 겉보기 색깔로 구분 지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27 중심 내용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뉴턴은 실증적 과정 없이 사유를 통해 이론적으로 과학적 현상에 대한 설명을 정립하려 하기보다는, 실험의 계획과 수행을 통한 실증적 과정을 토대로 현상을 설명하고자 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데카르트는 프리즘을 통과한 태양광이 만든 색의 띠의 모양이 원형이라고 여겼으나, 뉴턴은 실험을 통해 색의 띠가 길쭉한 모양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두 번째 실험을 계획했다.
-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색을 겉보기 색깔과 실제 색깔, 둘로 나누었으나 뉴턴은 실험을 통해 색이 물체가 아닌 태양광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내며 색은 빛의 굴절 각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 ③ 뉴턴은 실험을 통해 태양광이 굴절을 거쳐 만드는 색의 띠는 태양광 안의 광선들이 다른 각도로 꺾이며 나타나는 것이므로 태양광의 변형으로 여러 색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 속에 모든 색깔의 빛이 들어 있다고 보았다.
- ⑤ 뉴턴은 실험을 통해 태양광에서 분산된 색의 띠를 이루는 특정 색이 언제나 같은 각도로 꺾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여러 가지 색은 태양광 안에 있는 광선들이 서로 다른 각도로 꺾여 생긴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

28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b 빛과 d 빛은 굴절률이 같지만, d 빛은 수직 시야각에서 40°를 이루는 물방울에서 퍼져 나온 것이다. 무지개를 관찰할 수 있는 시야각의 아래쪽 연장선으로서 40°의 시야각에 있는 물방울들에 의해 분산된 빛들 중 그보다 굴절이 적게 되는 빛들(c 빛 아래로 꺾이는 빛들)은 시야각 바깥으로 벗어난다. 그러므로 b 빛과 d 빛이 굴절률이 같더라도 실제로 관찰자의 눈에 지각되는 빛은 b 빛뿐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 빛과 c 빛은 굴절률이 큰 보라색 빛, b 빛과 d 빛은 굴절률

이 작은 적색 빛이고 굴절률과 감속 정도는 비례한다. 따라서 굴절률이 더 큰 a 빛의 감속 정도는 b 빛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 ② 물방울에서 반사와 굴절을 거쳐 분산된 태양광이 지면과 40~42°를 이루며 관찰자의 눈으로 입사할 때 무지개가 관찰된다. 즉 인간의 눈은 수직 시야각에서 42°를 이루는 물방울로부터 적색 빛인 b 빛을 지각하게 되고, 수직 시야각에서 40°를 이루는 물방울에서 보라색 빛인 c 빛을 지각하게 된다. 무지개의 다른 색들은 b 빛과 c 빛 사이의 물방울들을 통해 만들어진다.
- ④ 적색 빛과 보라색 빛을 비교하면 보라색 빛의 굴절률이 크므로 a 빛이 d 빛보다 굴절률이 크다.
- ⑤ 무지개를 관찰할 수 있는 시야각의 아래쪽 연장선으로서 40°의 시야각에 있는 물방울들에 의해 분산된 빛들 중 그보다 굴절이 적게 되는 빛들은 c 빛 아래로 꺾이는 빛들로서 무지개를 관찰할 수 있는 시야각 바깥으로 벗어나기에 관찰자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29 다른 견해와의 비교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아리스토텔레스는 원래 물체에 존재하는 실제 색깔이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데카르트는 미세 물질의 회전에 의한 압력을 색으로 인지한다고 여겼다. 뉴턴은 각 색이 지닌 고유한 굴절률에 의해서 색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여겼다. 즉 데카르트와 뉴턴은 물체가 고유한 색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체가 지닌 본질적 속성인 실제 색깔은 어둠 속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했지만, 겉보기 색깔은 빛이 있을 때만 색깔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빛의 작용이 없다면 만들어질 수 없는 무지개를 겉보기 색깔로 생각했다.
- ② 데카르트는 태양광이 프리즘이나 물 같은 매질 속을 지나는 과정에서 반사나 굴절을 거치며 미세 물질의 운동 변화가 생기는데 그때 회전 속도의 차이에 따라 태양광이 여러 색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 ③ 뉴턴은 프리즘을 통해 생성되는 무지개색의 띠가 길쭉한 모양으로 비치는 현상을 확인하고 무지개색 띠를 이루는 각 색깔마다 꺾이는 정도가 달라 프리즘을 통과한 태양광이 길쭉한 모양을 띠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실험에서 프리즘을 통과한 적색 빛, 청색 빛을 한 번 더 프리즘에 통과시

켜 본 후, 각 색이 본래 색을 유지하며 첫 번째 프리즘에서와 똑같은 각도만큼 꺾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④ 아리스토텔레스는 색에는 원래 물체에 존재하는 실제 색깔과 빛이 있을 때만 존재하는 겉보기 색깔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사과와 붉은 색은 사과라는 물체가 지닌 고유의 성질로 빛이 없어도 존재하는 실제 색깔이라고 했다. 데카르트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색깔이 만들어지는 이유를 하나의 원리로 설명하고자 했다. 그리고 색깔은 빛이 굴절할 때 미세 물질의 운동에 변화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았다.

30 단어의 의미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의 '수행(遂行)'은 '생각하거나 계획한 대로 일을 해냄.'의 의미이고, '암행어사를 수행하는 역졸이 관아로 들어갔다.'에서 '수행(隨行)'은 '일정한 임무를 띠고 가는 사람을 따라감.'이라는 의미로 둘은 동음이의어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 '이론(理論)'은 '사물의 이치나 지식 따위를 해명하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일반화한 명제의 체계.'의 의미로 쓰였다.
- ② ㉢ '배격(排擊)'은 '어떤 사상, 의견, 물건 따위를 물리침.'의 의미로 쓰였다.
- ④ ㉣ '지각(知覺)'은 '알아서 깨달음.', '감각 기관을 통하여 대상을 인식함.'의 의미로 쓰였다.
- ⑤ ㉤ '도달(到達)'은 '목적한 곳이나 수준에 다다름.'의 의미로 쓰였다.

[31~34] 현대 소설

황순원, 「곡예사」

해제 이 작품은 대구와 부산에서의 피난살이의 경험을 자전적 서사의 형식을 빌려 표현하고 있다. 작품에서 서술자 '나'는 작품의 서술 주체인 동시에 실제 작가 '황순원'으로 호명된 작중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체험의 진실성을 더 절절하게 전달한다. 더불어 서술자는 작중 인물의 고통스러운 삶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객관화하여 오히려 독자의 반어적 공감을 얻어 내고 있다.

주제 긍정적 삶의 자세로 피난살이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
전체 줄거리

'나'는 먼저 가족을 대구로 피난을 보낸 후, 뒤따라 도착한다. '나'의 가족은 대구에서 지인의 도움으로 변호사 덕 헛간에서 피난살이를 시작한다. 그러나 주인집 장모 노파의 엄격한 생활 규율에 고통을 받게 되고, 결국 '나'의 가족은 대구의 피난살이에서 쫓겨나게 된다. 이후 다시 아는 지인의 도움으로 부산의 변호사 덕에 방 한 칸을 얻어 피난살이를 이어 간다. 어린아이들까지 껌을 팔거나 담배를 파는 등의 경제적 행위에 내몰리는 피난살이를 이어 가던 중, 또다시 얼마 가지 못하고 방을 빼라는 주인의 요구를 듣게 된다. '나'와 아내는 백방으로 방을 구하려 하지만, 방을 얻지 못한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가족들과 함께 귀가하던 중, 자신은 물론 자식들까지 곡예단의 곡예사란 생각을 하게 되고, 부디 자식들은 어른이 되어 자신처럼 슬픈 곡예를 하지 않기를 기원하며 피난살이의 어려움을 긍정적 태도로 극복해 내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31 작품의 맥락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아내가 이 덕 식모한테 들은 말에 의하면 이 노파는 소생이라고 현재 변호사 부인인 딸 하나뿐으로, 이 딸이 이 덕 변호사 부인이 되자 따라 들어와 온갖 살림살이를 주무른다는 것이다.'를 보면, 아내는 변호사 덕의 살림살이를 노파가 좌지우지하고 살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대구가 부산보다 물가가 싸다는 것으로 해서, 크리스마스날 나는 대구로 올라갔다.'를 보면, '나'의 가족은 물가를 고려하여 피난지로 먼저 대구를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 ② '우리는 이 집에서 몇 가지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었다.'를 보면, '나'의 가족은 주인집의 수도와 변소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등 엄격한 규율 아래서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이 남아가 이제 몇 센트의 균표를 위해 그 꼬마와 같은 지랄을 해야 하는 것도 일종의 슬픈 곡예인 것이다. 그리고 동아

의 폴리스 썰 투미도 그런 곡예요, 이들이 가슴이나 잔등에서 또는 허리춤에서 담배 보루며 껌 껍을 재빨리 꺼내고 넣는 것도 훌륭한 곡예의 하나인 것이다.'를 보면, '나'의 어린 자식인 '남아'와 '동아'까지 껌이나 담배를 파는 등 돈벌이에 내몰렸음을 알 수 있다.

- ⑤ '너희가 이후에 각각 자기의 곡예단을 가지게 될 적에는 모쪼록 너희들의 어린 피어로들과 더불어 이런 무대와 곡예를 되풀이하지 말기를 바란다.'를 보면, '나'는 아이들의 미래의 삶이 현재 자신보다 더 나아지기를 소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에서 서술자 '나'는 피난살이의 고통을 넉넉하게 수용하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데, 빨래를 금지한 주인집 장모 노파의 규율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할 만함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몰아서 하면 그만이라며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나'의 이러한 태도는 이어 나오는 '사람이 하룻밤 물 몇 모금 못 먹었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었다.'라는 서술 내용과도 조응하고 있다. 이로 볼 때 주어진 상황에 대한 '나'의 부정적 인식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의 가족이 피난살이를 하는 공간이 '한구석에 끼어 있는 헛간'으로 서술되어 있지만, '이런 방이나마 얻어 들게 된 게 여간 고맙지가 않은 것이었다.'와 같은 서술을 보면 ㉠에는 초라한 거주 공간이나마 얻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서술자 '나'의 인식이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에서는 '나'의 가족이 주인덕 변소를 쓸 수 없게 되자, 아내가 이미 뜰 한구석 다복솔 뒤에 거적짚 변소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아내가 적극적으로 상황에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변호사 덕 장모 노파가 큰 온돌방을 독차지하고 조반상도 가장 먼저 받는다라는 내용, '장모 노파의 손에서' 집안의 살림이 '우러나는 것 같았다.'라는 내용, 노파가 집안의 '온갖 살림살이를 주무른다는 것'이라는 내용을 통해 '이 덕'의 위계가 분명함을 알 수 있다.
- ⑤ '나'는 '동아'가 '변호사 덕이 있는 골목에 다다'라 노래를 '뚝 그친' 이유를 인지하게 된다. 따라서 ㉢에서 '나'는 가족의 곡예를 '부끄럽기 짝이 없'다는 식의 껌양 어법을 통해 불가피한 상황을 정리하려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3 작품의 맥락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A]에서 '나'의 가족은 '저녁에 ~ 금지라는 것이다.'에서 보듯 생활의 제약 속에서 피난 생활을 한다. [B]에서도 '나'의 가족은 독창을 하던 동아의 노래가 세를 들어 사는 변호사 댁 근처에 와서 그치는 장면으로 미루어 알 수 있듯이 여전히 피난살이의 삶의 조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의 대구가 '나'의 가족에게 '무뎠히 차가웠'던 열악한 삶의 공간이었다면, [B]의 부산 역시 '동아의 노래가 마지막 대목 다 가서 푹 그친다. 이미 우리는 그 변호사 댁이 있는 골목에 다다른 것이었다.'에서 보듯, 피난살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 ② [A]에서 아이들이 대구 피난지에서 '날만 새면 손발이 얼면서도 밖으로만' 나간 것으로 보아 적응을 하지 못해 방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B]의 경우에도 아이들은 부산에 와서 경제 행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피난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방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A]에서는 '나'가 '방이나마 얻어 들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으며, [B]에서는 '나'가 '염려 말라고 아내의 손을 꼭 잡아 주'는 행동을 통해 어려운 피난살이를 긍정적으로 극복해 내려는 '나'의 긍정적 성격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이 [A]와 [B]에서는 모두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여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 ④ [A]의 '안뜰'은 '저녁에 어슬해지면 절대로 안뜰에 들어와 물을 길어 가서는 안 되고, 아침에도 자기네가 한 바가지라도 먼저 길은 뒤에야 물에 손을 대야 한다는 것'과 같은 피난 생활의 규율이 적용되는 공간이란 점에서 피난살이의 고달픔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과는 거리가 멀다.

3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나'가 자신이 겪고 있는 열악한 현실을 '그만'이라는 태도로 수용하는 것은 단순한 '체념'의 태도가 아닌, 자신의 열악한 현실을 긍정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독자에게는 '나'의 열악한 현실이 더 부각되게 하는 효과를 이끌어 낸다. 즉 서술자 '나'의 이러한 태도는 절망적 현실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기보다는 현실을 너그러이 긍정함으로써 오히려 서술자 '나'의 긍정

적 삶의 태도를 실감 나게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서술자인 '나'가 겪고 있는 열악한 현실을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었다.'라고 인식하는 것에서 인물의 긍정적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 ③ '나'가 용변도 제대로 볼 수 없는 현실을 그대로 담담하게 수용하는 것에서 독자에게는 오히려 '나'의 열악한 현실이 강조되고, 이를 통해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게 된다.
- ④ 서술자인 '나'의 '인생이란 하다못해 요 맛 정도라도 안일하게 늙어 가야 할 종류의 것인지도 몰랐다.'라는 인식이 오히려 현실의 열악한 삶을 부각하는 효과를 불러일으켜 결과적으로 '나'가 처한 열악한 피난지에서의 삶이 더 실감 나게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서술자인 '나'가 자신의 가족을 '황순원 곡예단'이라 호명하는 것에서 이 작품이 자전적 서사의 서술 전략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5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에서는 ‘ㅂ’이 탈락하여 음운의 개수가 하나 줄었다. 그다음에 앞의 ‘ㄹ’ 때문에 ‘ㄴ’이 ‘ㄹ’로 유음화가 되었다. ㉡에서는 ‘ㄴ’이 첨가되어 음운의 개수가 하나 늘었다. ‘ㅍ’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때문에 ‘ㅂ’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뒤의 ‘ㄴ’ 때문에 ‘ㅁ’으로 비음화가 되었다. ㉢에서는 ‘역’ 앞에 ‘ㄴ’이 첨가되어 음운의 개수가 하나 늘었다. ‘ㄴ’은 앞의 ‘ㄹ’ 때문에 유음화를 겪어 ‘ㄹ’로 바뀌었다. ㉣에서는 ‘ㅂ’과 ‘ㅎ’이 합쳐져 ‘ㅃ’으로 축약되는 과정에서 음운의 개수가 하나 줄었다. 그러므로 ㉠~㉣의 공통점은 전체 음운 개수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첨가는 ㉡과 ㉢에서만 일어났다.
- ③ 앞 자음의 영향을 받아 뒤 자음이 유음이나 비음으로 바뀐 예는 ㉠과 ㉢에서 볼 수 있다.
- ④ 음절의 끝소리 자음이 다른 자음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은 ㉡에서 볼 수 있다. ‘앞’의 ‘ㅍ’은 음절의 끝소리이므로 ‘ㅂ’으로 바뀐다.
- ⑤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중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음운 변동이 두 번 일어난 예는 ㉡에서 볼 수 있다. ‘앞’의 ‘ㅍ’은 음절의 끝소리이므로 ‘ㅂ’으로 바뀌고, 이 ‘ㅂ’은 뒤의 ‘ㄴ’의 영향을 받아 다시 ‘ㅁ’으로 바뀌었으므로 교체가 두 번 일어났다.

36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에서 ‘-는데’는 앞 절이 뒤 절의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 상황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조건·가정’의 의미를 지닌 대표적 연결 어미는 ‘-(으)면’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에서 ‘-다가’는 앞 절의 사건이 중단되고 뒤 절의 사건이 일어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 ③ ㉢에서 ‘-더라도’는 앞 절의 내용을 일단 인정하는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 ④ ㉣에서 ‘-느라고’는 앞 절의 사건이 뒤 절의 사건을 일으킨 원인임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 ⑤ ㉤에서 ‘-려고’는 앞 절의 내용이 주어의 지시 대상인 ‘그’가 가진 목적이나 의도임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37 품사의 특성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대명사나 수사는 조사와 결합이 가능한 반면, 관형사는 조사와 결합하지 못하므로 3, 4문단에서 조사와의 결합 가능성으로 관형사를 대명사나 수사와 구별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체언은 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는’ 특징을 통해 수사나 대명사를 관형사와 구별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수사와 수 관형사가 형태가 유사하다는 점은 이 두 품사를 구별하기 어렵게 하는 특징이지 구별할 수 있게 하는 특징이 아니다.
- ② 1문단에서 관형사는 어떤 조사와도 결합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관형사가 보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진술이다.
- ③ 관형사는 관형어로 기능한다는 특징은 관형사의 중요한 특징이지만, 수사나 대명사 역시 관형어로 기능할 수 있어 관형어 기능 여부가 관형사를 수사나 대명사와 구별하는 특징은 아니다.
- ⑤ 관형사는 수식언어로 체언을 수식하지만, 일부 대명사 역시 체언을 수식할 수 있어 수식 여부는 관형사와 대명사를 구분하는 특징이 아니다.

38 품사의 분류 기준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셋에’, ‘여덟이다’, ‘그는’에서 ‘셋’과 ‘여덟’, ‘그’는 각각 조사 ‘에’, ‘이다’, ‘는’과 결합하고 있으므로 체언임을 알 수 있다. ‘셋’과 ‘여덟’은 수사이고, ‘그’는 대명사이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학교’ 등과 같이 조사와 결합 가능한 대명사이다. 이에 비해 ‘저 사람’의 ‘저’, ‘네 마리’의 ‘네’, ‘이 아파트’에서 ‘이’는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하고 조사와 결합이 불가능한 관형사이다. ‘저 사람’의 ‘저’와 ‘이 아파트’의 ‘이’는 지시 관형사이고 ‘네 마리’에서 ‘네’는 수 관형사이다. 따라서 ‘저’, ‘네’, ‘이’가 관형사에 해당한다.

39 음운의 변천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ㅁ디>마디>마디’는 첫음절이 아닌 ‘·’는 ‘ㅡ’로, 단어의 첫음절 ‘·’는 ‘ㅏ’로 변한 것이므로 (라)의 변화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플>풀’은 ‘ㅍ’ 뒤에서 ‘ㄴ’이 ‘ㄷ’로 변한 것이므로 (다)를 꺾은 것이다. 따라서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다.
- ② ‘스시>사이’는 ‘ㅌ’이 소실되고, 첫음절의 ‘ㅇ’이 ‘ㅌ’로 변화를 겪은 것이므로 (나), (마)를 꺾은 것이다. 따라서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다.
- ④ ‘브티다>부치다’는 ‘ㅂ’ 뒤에서 ‘ㄴ’이 ‘ㄷ’로 변하고, ‘ㅌ’이 ‘ㅍ’ 앞에서 ‘ㅌ’으로 변한 것이므로 (다), (라)를 꺾은 것이다. 따라서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다.
- ⑤ ‘마슴>마음’은 단어의 첫음절 ‘ㅌ’은 ‘ㅌ’로, 첫음절이 아닌 ‘ㅌ’은 ‘ㄴ’로 변하고, ‘ㅌ’도 쓰이지 않게 되는 변화를 겪은 것이므로 (가), (나), (마)를 꺾은 것이다. 따라서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다.

[40~41] 매체

40 매체 언어의 복합 양식성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나)의 사진 자료에는 스마트폰을 잡고 있으면서도 스마트폰에 잡혀 있는 사람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고 ‘잡고 있습니까? 잡혀 있습니까?’라는 문자 언어도 이와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사진 자료와 문자 언어가 상반된 의미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는 칫솔 통에는 칫솔이 함께 있는데 가족은 그렇지 못함을 연결하여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는 칫솔 통의 칫솔이 만나는 상황과 가족이 함께 모이지 못하는 현실을 대조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나)는 ‘손으로 움키고 놓지 않다.’라는 ‘잡다’의 의미와 ‘붙들리다.’라는 ‘잡히다’의 의미를 대조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주제를 나타내는 문구는 굵고 큰 글씨로, 주제에 대한 부연 설명은 작은 글씨로 나타내어 글자 모양 및 크기를 통해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41 매체 자료 수용의 관점과 가치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스마트폰 중독 현상이 공익 광고의 내용으로 제시되는 것은 스마트폰 중독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주제는 가족 간의 대화를 강조하는 것이므로 공공 위생의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② (가)의 내용은 가족 간의 대화 없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1인 가구 비율의 증가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④ (나)의 내용은 스마트폰 중독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가족과 면대면 대화를 통해 정신 건강 증진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대중이 실천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제목을 통해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42 매체 언어의 표현과 가치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2에서 '만화의 구성 요소는 크게 작화와 스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등의 발화를 통해 만화의 요소가 이야기와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만화와 관련된 개인적 경험을 구체적 사례로 들어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② #3에서 '영상과는 달리 움직이지 않는다는 제한'을 들며 만화 장면과 영화 장면의 차이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공통점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④ #1에서 '만화가 이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장르'로 발전되었음을 언급하고 있으나 만화를 비판적으로 읽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 ⑤ 만화 동아리에 관심을 가질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만화를 접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43 매체 자료의 주체적 수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그림은 만화 동아리 학생들이 그린 것으로, '그래도 ○○가 전화하지는 않았잖아.'라는 대사에 이어 전화가 오는 장면이 연결되어 더 나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모든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부분을 제시하면서 전체를 보여 주'는 것에 해당하므로 ㉠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에는 작품성이 뛰어난 만화가 영화로 만들어지는 사례를 제시해야 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에는 우리 모두에게 익히 알려진 인기 있는 만화를 제시해야 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에는 일반적인 책과 만화를 비교하여 제시해야 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에는 등장인물의 변화에 따라 변모하는 작화를 제시해야 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44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1의 내용은 만화가 대중적인 장르의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이므로, 만화의 정의를 묻는 자막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2의 내용은 만화의 구성 요소는 크게 작화와 스토리로 구성 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작화와 스토리를 만화의 필수 요소라고 제시하는 자막은 적절하다.
- ③ #3의 내용은 일반적인 책과 구분되는 만화의 가장 큰 특징은 그림이 내용을 이끌어 가는 데에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므로, 만화의 핵심이 작화의 연출에 있다고 제시하는 자막은 적절하다.
- ④ #4의 내용은 인물의 변화를 그림으로 달리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므로, 작화의 변화가 무궁무진하며 변화무쌍하다고 제시하는 자막은 적절하다.
- ⑤ #5의 내용은 만화를 그리는 재미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권유하는 것이므로, 동아리 가입을 환영한다고 제시하는 자막은 적절하다.

45 문법 요소의 효과와 활용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만들어 가지 않으시겠습니까?'의 주체가 다수의 청자이므로, 청자가 화자보다 나이가 많은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다수의 청자를 높이는 차원에서 선어말 어미 '-으시-'를 쓰는 주체 높임을 사용했다. 따라서 청자가 화자보다 나이가 많은 높임의 대상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피동 표현은 행위의 주체보다는 대상을 부각하는 의미 특성을 보이므로 '여겼던' 주체는 드러내지 않고 '여겼던' 대상만을 드러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② '-다면'은 어떠한 사실을 가정하여 조건으로 삼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이를 통해 '만화'에서 '그림'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대상의 중요한 요소를 설명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③ 비격식체인 '해요체'를 사용하여 격식체의 '하십시요체'를 쓰고 있는 앞뒤 문장과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앞뒤의 문장과 다른 상대 높임을 보인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④ 앞부분에서 설명한 내용을 '이런'으로 가리키고 있으므로 대용 표현을 써서 정보들 간의 응집성을 높인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한눈에 보는 정답

실전 모의고사 1회

01 ④	02 ④	03 ②	04 ⑤	05 ②	06 ③	07 ①
08 ④	09 ①	10 ②	11 ④	12 ①	13 ④	14 ⑤
15 ①	16 ④	17 ⑤	18 ④	19 ③	20 ①	21 ⑤
22 ⑤	23 ⑤	24 ⑤	25 ⑤	26 ②	27 ③	28 ⑤
29 ④	30 ④	31 ④	32 ③	33 ③	34 ④	35 ③
36 ⑤	37 ④	38 ③	39 ①	40 ④	41 ⑤	42 ①
43 ④	44 ②	45 ④				

실전 모의고사 4회

01 ③	02 ⑤	03 ④	04 ②	05 ①	06 ②	07 ⑤
08 ⑤	09 ④	10 ①	11 ⑤	12 ③	13 ②	14 ④
15 ⑤	16 ③	17 ③	18 ①	19 ①	20 ⑤	21 ①
22 ③	23 ④	24 ④	25 ③	26 ②	27 ④	28 ④
29 ⑤	30 ①	31 ③	32 ⑤	33 ⑤	34 ④	35 ②
36 ①	37 ③	38 ②	39 ⑤	40 ⑤	41 ⑤	42 ③
43 ⑤	44 ④	45 ③				

실전 모의고사 2회

01 ⑤	02 ③	03 ③	04 ④	05 ⑤	06 ②	07 ③
08 ②	09 ⑤	10 ④	11 ②	12 ⑤	13 ⑤	14 ④
15 ③	16 ①	17 ①	18 ④	19 ②	20 ①	21 ④
22 ②	23 ④	24 ⑤	25 ①	26 ⑤	27 ④	28 ①
29 ⑤	30 ④	31 ②	32 ⑤	33 ③	34 ④	35 ②
36 ④	37 ⑤	38 ④	39 ④	40 ④	41 ④	42 ⑤
43 ④	44 ④	45 ③				

실전 모의고사 5회

01 ④	02 ①	03 ②	04 ④	05 ③	06 ①	07 ⑤
08 ③	09 ④	10 ④	11 ①	12 ③	13 ④	14 ②
15 ⑤	16 ④	17 ⑤	18 ④	19 ③	20 ②	21 ③
22 ④	23 ②	24 ⑤	25 ⑤	26 ④	27 ④	28 ③
29 ⑤	30 ③	31 ③	32 ②	33 ⑤	34 ①	35 ②
36 ②	37 ④	38 ③	39 ③	40 ④	41 ③	42 ③
43 ④	44 ①	45 ⑤				

실전 모의고사 3회

01 ①	02 ④	03 ③	04 ②	05 ⑤	06 ①	07 ③
08 ⑤	09 ④	10 ④	11 ③	12 ④	13 ④	14 ④
15 ①	16 ⑤	17 ④	18 ③	19 ②	20 ①	21 ④
22 ③	23 ⑤	24 ③	25 ③	26 ④	27 ⑤	28 ③
29 ⑤	30 ⑤	31 ①	32 ⑤	33 ①	34 ⑤	35 ②
36 ①	37 ②	38 ③	39 ④	40 ④	41 ①	42 ①
43 ④	44 ⑤	45 ②				